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연구보고 09-R19-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Ⅱ: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책임연구원 :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지적 도구 활용 영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한국교육개발원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자율적 행동 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사고력 영역	명지대학교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부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	맹영임 선임연구위원 장근영 연구위원 구정화 경인교대 교수 강영배 尚絅学院大 교수 조문흠 Kent State University-Stark 교수
협력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연구위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동선 부연구위원	김나라 연구원 김성남 서울대 연구원
	명지대학교	조아미 교수	김정희 홍익대 교수 설현수 중앙대 교수 정재천 세계독서코치협회 대표

연 구 요 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1차년도에 개발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도구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지표체계 평가 및 수정을 통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측정도구를 최종 개발하고자 함.
- 또한 전국 규모의 진단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진단해 보고, 청소년 역량중심 학습체계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체계

- 기존의 진단도구로는 청소년들의 생애핵심역량을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연구기관 간 협동으로 DeSeCo 프로젝트에서 추출한 세 가지 생애핵심역량 범주별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 및 측정하고자 함.
-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동과제로서, 세 가지 역량 중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을 위한 2차년도 연구임.

3. 연구내용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을 위한 본 조사 도구

개발을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한 선행연구 분석과 국제비교 자료 이용 및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받았음. 또한 1차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기 핵심역량 영역체계 검토 및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체계와 측정도구를 확정함.

-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조사를 위하여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한 비례층화집락추출법으로 각 학습단계를 대표하는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표본을 추출하고 자기기입식 조사를 진행함. 최종 수합된 데이터는 타당화 과정을 거쳐 세부 영역 및 요소에 따라서 연령별, 성별, 부모의 학력별, 경제수준별, 학업성취 수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 조사를 통해 얻어진 분석 결과를 기초로 개인의 역량 개발이 발달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함.

4. 연구결과

-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을 위한 검사는 '적극적 경청', 사람신뢰',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공공에 대한 신뢰' 등의 네 요소로 구성된 '관계지향성' 영역과 '시민의식', '소속감', '만족감' 등 세 요소로 구성된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마지막으로 '문제인식 및 해결',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다수정당의 존재이유'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영역을 최종 문항으로 개발함.
-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52.4%, 여학생은 47.6%로 나타났으며, 학교는 초등학생 30.4%, 중학생 30.3%, 고등학생 39.3%로 나타남. 또한 거주지는 서울시가 16.6%로 조사되었고, 광역시는 31.0%, 시·군은 52.4%로 조사되었음.
-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분석을 살펴보면, 먼저 발달단계에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차이가 나타났음. 그러나 측정 영역에 따라서 발달적

효과가 잘 나타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계 지향성 영역에서는 경청능력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발달적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으나 신뢰, 사회적 접촉 등의 영역에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음. 즉, 개인적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발달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뢰나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고 보여짐.
- 사회적 협동 영역에서는 정치관심 정도나 종교이해, 민주적 절차지식과 같은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발달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한편 비판적 지식에서는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밖의 소속감,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만족감, 행복도는 연령이 감소할수록 높게 나타남. 이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입시위주 교육이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학교나 대인관계,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접촉을 저하시킴으로써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짐.
- 갈등관리 영역에서는 높은 연령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있거나 발달적으로 능력의 수준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이민자 영향에 대한 태도에서는 중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지식을 측정했을 때는 발달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태도를 측정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나타난 앞의 결과와 같았음. 즉,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지식과 태도가 불일치하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갈등관리 영역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조망 취득 능력에 대한 분석에서는 먼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사 판단이 더 분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공/사 판단을 더욱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공정 가치보다는 인정 가치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조망 취등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조망 변별값 측정에서는 전체적

으로 인정조망 변별값 보다는 공정조망의 변별 점수가 크게 나타남.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정조망 보다는 인정조망 변별력이 증가하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서는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관계지향성 영역에서 친척과의 만남, 공공에 대한 신뢰,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에서는 비민주성, 부정적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삶의 만족도, 갈등관리 영역에서는 시민의식 중에 형평에 관한 지식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높게 나타남. 한편, 형평에 관한 문항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지만 사회적 통합에 관한 문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발달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성의 특성으로서 '기능성'과 여성의 특성으로서 '친화성'이 지식 판단의 준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모의 학력이나 본인의 학업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학력 및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경향이 부모의 학력보다는 본인의 학업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부모보다는 본인의 학업수준과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밖에 경제수준을 독립변수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관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경제수준이 높 을수록 점수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한편 조망 취득 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측정치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가치 준거 조망을 소유한 집단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태도나 지식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우리나라 학교교육 시스템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잘 길러지고 있는가를 검토 한다면 긍정적인 대답만을 할 수는 없음. 본인의 학업수준이나 교육적 지원환경(부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 등)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서의 측정치들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앞서 학습단계별로 나타난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임. 특히 사회적 지식이나 가치 변별력과 같은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보다는 사회적 태도나 행동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남.

- 한국의 학교교육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육성 측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는 최근 OECD(2009)의 교육의 사회적 효과(SOL: Social Outcomes of Learning) 측정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에서는 한국과 다른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자료를 상호 비교한 결과,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조사자들의 학력이 증가할수록 대인 신뢰나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지만, 한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음. 즉, 교육을 많이 받았더라도 사회적 산물에 대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관한 태도 교육에서 한국의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취약점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의 진단조사 문항 중 일부는 국제비교조사의 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 조사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내년에는 UNESCO의 지원을 받아 IEA에서 주관하고 전 세계 3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시민교육 및 시민의식조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결과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국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2010년 한국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임.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주요 연구 내용 ····· 5
   1)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을 위한 본 조사 도구 개발 ····· 5
   2)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조사 실시 및 분석 ····· 6
   3)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원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 도출 ····· 6
3. 연구방법 ····· 7
   1) 문헌 연구 ····· 7
   2) 국제비교조사 도구 검토 ····· 7
   3) 국내·외 전문가 자문 ····· 7
   4) 청소년 대상 진단조사 ····· 7
   5) 심층 면담 ····· 7

Ⅱ. 이론적 배경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 11
   1) 타인과 관계 유지(관계 지향성) ····· 13
   2) 사회적 협력, 협동 ····· 14
   3) 갈등 관리와 해결 ····· 15
2.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 17
   1) 사회적 자본 형성의 원천 ····· 18
   2) 사회적 자본의 측정 ····· 19
   3) 사회적 자본의 국제 측정도구 비교 ····· 22
3.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한 부분으로서의 시민의식 ····· 26
   1) 1차년도 IEA CIVED ····· 26
   2) 2차년도 IEA ICCS 2009 ····· 30

III.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결과

1. 진단조사 도구 개발 ····· 37
1) 측정도구 최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 37
2) 측정도구 최종개발 ····· 38
2. 진단조사 결과 ····· 42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정 ····· 42
2) 조사대상자들의 진단조사 결과 ····· 44

IV. 핵심역량 교육의 뉴질랜드 사례 분석

1. 배경 ····· 161
2.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의 연계 ····· 162
3. 뉴질랜드 핵심역량교육의 비전 및 지원 체제 ····· 166
1) 비전 ····· 166
2) 핵심역량 교육 지원체제 ····· 167
4. 뉴질랜드 핵심역량 중심 교육의 시사점 ····· 173

V. 요약 및 결론 ····· 177

참고문헌 ····· 186
부 록 ····· 195

표 목차

<표 Ⅱ-1>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요소 ····· 21
<표 Ⅱ-2> IEA의 시민의식 문항개발을 위한 구조 ····· 28
<표 Ⅱ-3> ICCS 2009 평가의 내용 영역 ····· 31
<표 Ⅱ-4> 내용 영역, 정서-행동 영역과 인지 영역 사이의 관계 ····· 33
<표 Ⅲ-1>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최종 항목 및 출처 ····· 38
<표 Ⅲ-2>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최종 항목 및 출처 ····· 40
<표 Ⅲ-3>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최종 항목 및 출처 ····· 41
<표 Ⅲ-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3
<표 Ⅲ-5>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 44
<표 Ⅲ-6> 연령별, 성별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 45
<표 Ⅲ-7> 연령별, 성별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 45
<표 Ⅲ-8> 연령별, 성별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 46
<표 Ⅲ-9> 연령별, 성별에 따른 사교적 모임 평균비교 ····· 46
<표 Ⅲ-10> 연령별, 성별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 47
<표 Ⅲ-11> 연령별, 성별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 48
<표 Ⅲ-12>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 정도 평균비교 ··· 49
<표 Ⅲ-13> 연령별, 성별에 따른 종교이해에 대한 교차표 ··· 49
<표 Ⅲ-14> 연령별, 성별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 50
<표 Ⅲ-15> 연령별, 성별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 51
<표 Ⅲ-16> 연령별, 성별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 52

<표 Ⅲ-17> 연령별,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평균비교 ····· 52
<표 Ⅲ-18> 연령별, 성별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 53
<표 Ⅲ-19> 연령별,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 53
<표 Ⅲ-20> 연령별,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 54
<표 Ⅲ-21> 연령별, 성별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 54
<표 Ⅲ-22> 연령별, 성별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 55
<표 Ⅲ-23> 연령별, 성별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 56
<표 Ⅲ-24> 연령별, 성별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 57
<표 Ⅲ-25> 연령별, 성별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 57
<표 Ⅲ-26> 연령별, 성별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 58
<표 Ⅲ-27> 연령별, 성별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 59
<표 Ⅲ-28> 연령별, 성별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 59
<표 Ⅲ-29> 연령별, 성별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 60
<표 Ⅲ-30> 연령별, 성별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 60
<표 Ⅲ-31> 연령별, 성별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 61
<표 Ⅲ-32> 연령별, 성별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 61
<표 Ⅲ-33> 연령별, 성별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 62
<표 Ⅲ-34> 조망능력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 63
<표 Ⅲ-35> 조망능력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 64
<표 Ⅲ-36> 조망능력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 64

<표 Ⅲ-37> 조망능력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 65
<표 Ⅲ-38> 조망능력에 따른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모임 평균비교 ····· 65
<표 Ⅲ-39> 조망능력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 66
<표 Ⅲ-40> 조망능력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 67
<표 Ⅲ-41> 조망능력에 따른 정치관심 정도 평균비교 ····· 68
<표 Ⅲ-42> 조망능력에 따른 종교이해에 대한 교차표 ····· 68
<표 Ⅲ-43> 조망능력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 69
<표 Ⅲ-44> 조망능력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 70
<표 Ⅲ-45> 조망능력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 70
<표 Ⅲ-46> 조망능력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평균비교 ····· 71
<표 Ⅲ-47> 조망능력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 71
<표 Ⅲ-48> 조망능력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 72
<표 Ⅲ-49> 조망능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 72
<표 Ⅲ-50> 조망능력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 72
<표 Ⅲ-51> 조망능력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 73
<표 Ⅲ-52> 조망능력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 74
<표 Ⅲ-53> 조망능력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 75
<표 Ⅲ-54> 조망능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 75
<표 Ⅲ-55> 조망능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 76
<표 Ⅲ-56> 조망능력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 77
<표 Ⅲ-57> 부학력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 77
<표 Ⅲ-58> 부학력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 78
<표 Ⅲ-59> 부학력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 78
<표 Ⅲ-60> 부학력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 79

<표 Ⅲ-61> 부학력에 따른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모임 평균비교 ····· 79
<표 Ⅲ-62> 부학력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 80
<표 Ⅲ-63> 부학력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 81
<표 Ⅲ-64> 부학력에 따른 정치관심 정도 평균비교 ····· 81
<표 Ⅲ-65> 부학력에 따른 종교이해에 대한 교차표 ····· 82
<표 Ⅲ-66> 부학력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 83
<표 Ⅲ-67> 부학력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 84
<표 Ⅲ-68> 부학력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 84
<표 Ⅲ-69> 부학력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평균비교 ····· 85
<표 Ⅲ-70> 부학력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 85
<표 Ⅲ-71> 부학력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 85
<표 Ⅲ-72> 부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 86
<표 Ⅲ-73> 부학력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 86
<표 Ⅲ-74> 부학력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 87
<표 Ⅲ-75> 부학력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 87
<표 Ⅲ-76> 부학력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 88
<표 Ⅲ-77> 부학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 89
<표 Ⅲ-78> 부학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 89
<표 Ⅲ-79> 부학력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 90
<표 Ⅲ-80> 부학력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 90
<표 Ⅲ-81> 부학력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 91
<표 Ⅲ-82> 부학력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 91
<표 Ⅲ-83> 부학력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 92
<표 Ⅲ-84> 부학력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 92
<표 Ⅲ-85> 부학력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 93
<표 Ⅲ-86> 모학력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 93

<표 Ⅲ-87> 모학력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 94
<표 Ⅲ-88> 모학력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 94
<표 Ⅲ-89> 모학력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 95
<표 Ⅲ-90> 모학력에 따른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모임
평균비교 ····· 95
<표 Ⅲ-91> 모학력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 96
<표 Ⅲ-92> 모학력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 97
<표 Ⅲ-93> 모학력에 따른 정치관심 정도 평균비교 ····· 97
<표 Ⅲ-94> 모학력에 따른 종교이해에 대한 교차표 ····· 98
<표 Ⅲ-95> 모학력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 99
<표 Ⅲ-96> 모학력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 100
<표 Ⅲ-97> 모학력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 100
<표 Ⅲ-98> 모학력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평균비교 ····· 101
<표 Ⅲ-99> 모학력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 101
<표 Ⅲ-100> 모학력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 101
<표 Ⅲ-101> 모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 102
<표 Ⅲ-102> 모학력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 102
<표 Ⅲ-103> 모학력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 103
<표 Ⅲ-104> 모학력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 103
<표 Ⅲ-105> 모학력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 104
<표 Ⅲ-106> 모학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 105
<표 Ⅲ-107> 모학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 105
<표 Ⅲ-108> 모학력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 106
<표 Ⅲ-109> 모학력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 106
<표 Ⅲ-110> 모학력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 107

<표 Ⅲ-111> 모학력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 107
<표 Ⅲ-112> 모학력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 107
<표 Ⅲ-113> 모학력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108
<표 Ⅲ-114> 모학력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 108
<표 Ⅲ-115> 경제수준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 109
<표 Ⅲ-116> 경제수준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 110
<표 Ⅲ-117> 경제수준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 110
<표 Ⅲ-118> 경제수준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 111
<표 Ⅲ-119> 경제수준에 따른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모임
평균비교 ····· 111
<표 Ⅲ-120>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 112
<표 Ⅲ-121> 경제수준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 113
<표 Ⅲ-122> 경제수준에 따른 정치관심 정도 평균비교 ···· 113
<표 Ⅲ-123> 경제수준에 따른 종교이해에 대한 교차표 ···· 114
<표 Ⅲ-124> 경제수준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 115
<표 Ⅲ-125> 경제수준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 116
<표 Ⅲ-126> 경제수준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 116
<표 Ⅲ-127>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평균비교 ··· 117
<표 Ⅲ-128>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 117
<표 Ⅲ-129>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 117
<표 Ⅲ-130> 경제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 118
<표 Ⅲ-131> 경제수준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 118
<표 Ⅲ-132> 경제수준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 119
<표 Ⅲ-133> 경제수준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 119
<표 Ⅲ-134> 경제수준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 120

<표 Ⅲ-135> 경제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 121
<표 Ⅲ-136> 경제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 121
<표 Ⅲ-137> 경제수준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 122
<표 Ⅲ-138> 경제수준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 122
<표 Ⅲ-139> 경제수준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 123
<표 Ⅲ-140> 경제수준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 123
<표 Ⅲ-141> 경제수준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 123
<표 Ⅲ-142> 경제수준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 124
<표 Ⅲ-143> 경제수준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 124
<표 Ⅲ-144> 학업수준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 125
<표 Ⅲ-145> 학업수준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 125
<표 Ⅲ-146> 학업수준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 126
<표 Ⅲ-147> 학업수준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 126
<표 Ⅲ-148> 학업수준에 따른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모임 평균비교 ····· 127
<표 Ⅲ-149> 학업수준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 128
<표 Ⅲ-150> 학업수준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 129
<표 Ⅲ-151> 학업수준에 따른 정치관심 정도 평균비교 ··· 129
<표 Ⅲ-152> 학업수준에 따른 종교이해에 대한 교차표 ··· 130
<표 Ⅲ-153> 학업수준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 131
<표 Ⅲ-154> 학업수준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 132
<표 Ⅲ-155> 학업수준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 132
<표 Ⅲ-156>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평균비교 ··· 133

<표 Ⅲ-157>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 133
<표 Ⅲ-158>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 133
<표 Ⅲ-159> 학업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 134
<표 Ⅲ-160> 학업수준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 134
<표 Ⅲ-161> 학업수준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 135
<표 Ⅲ-162> 학업수준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 135
<표 Ⅲ-163> 학업수준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 136
<표 Ⅲ-164> 학업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 137
<표 Ⅲ-165> 학업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 137
<표 Ⅲ-166> 학업수준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 138
<표 Ⅲ-167> 학업수준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 138
<표 Ⅲ-168> 학업수준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 139
<표 Ⅲ-169> 학업수준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 139
<표 Ⅲ-170> 학업수준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 140
<표 Ⅲ-171> 학업수준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 140
<표 Ⅲ-172> 학업수준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 141
<표 Ⅲ-173>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 141
<표 Ⅲ-174>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 142
<표 Ⅲ-175>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 142

<표 Ⅲ-176>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 143
<표 Ⅲ-177>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 모임 평균비교 ····· 143
<표 Ⅲ-178>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 144
<표 Ⅲ-179>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 145
<표 Ⅲ-180>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정치 관심 정도 평균비교 ····· 145
<표 Ⅲ-181>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종교이해에 대한 교차표 ····· 146
<표 Ⅲ-182>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 147
<표 Ⅲ-183>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 148
<표 Ⅲ-184>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 148
<표 Ⅲ-185>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평균비교 ····· 149
<표 Ⅲ-186>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 149
<표 Ⅲ-187>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 150
<표 Ⅲ-188>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 150
<표 Ⅲ-189>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 150
<표 Ⅲ-190>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 151
<표 Ⅲ-191>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 152

<표 Ⅲ-192>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 153
<표 Ⅲ-193>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 153
<표 Ⅲ-194>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 154
<표 Ⅲ-195>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 154
<표 Ⅲ-196>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 155
<표 Ⅲ-197>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 155
<표 Ⅲ-198>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 156
<표 Ⅲ-199>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 156
<표 Ⅲ-200>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 157
<표 Ⅲ-201>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 157
<표 Ⅳ-1> 생애 핵심역량과 학교와 대학교육, 유아교육의 연계 ····· 164
<표 Ⅳ-2> 핵심역량개발 프로젝트 적용기관과 중점연구 ···· 172
<표 Ⅴ-1> '관계지향성' 영역과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 (요약) ····· 177
<표 Ⅴ-2>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과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요약) ····· 178
<표 Ⅴ-3> '갈등관리' 영역과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 (요약) ····· 179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 추진계획 ····· 4
[그림 Ⅱ-1] 공정 및 인정행동 판단에서 준거가치 차원 ····· 17
[그림 Ⅱ-2] CIVED 모형(Torney-purta 등, 2001) ····· 27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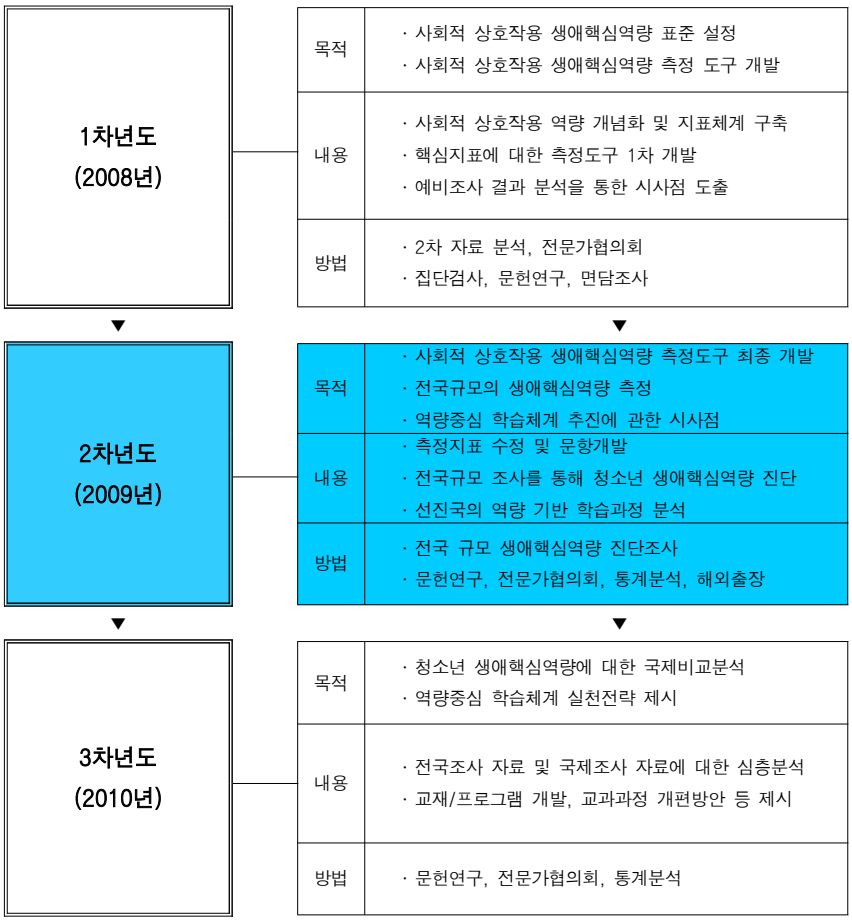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취업 및 진로 불확실성의 증가, 가족구조의 다양화, 소득의 양극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갈수록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그동안 학교교육이 견지했던 입시 위주 교육, 주입식 교육, 학력만능주의 교육 등의 성취목표를 지양하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숙한 삶을 설계할 줄 아는 미래지향적 사회의 인적자원으로서 새로운 청소년의 모습이나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OECD(2005, 2006)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현대인이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역량인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에서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다(김기헌 외, 2008).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가치지향적이거나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범주로 국제적인 논의에서는 아직 개념화 단계이거나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은 기존의 진단도구로는 청소년들의 생애핵심역량을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DeSeCo 프로젝트에서 추출한 세 가지 생애핵심역량 범주별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김기헌 외, 2008).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동과제로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차년도로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협동연구과제의 성격을 가진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추출한 세 가지 생애핵심역량 범주별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자율적인 행동 역량' 부문,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도구 활용 역량' 부문에 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에 걸친 본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연도별 연구 추진계획

전체 연구 설계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1차년도에 개발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도구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영역 측정지표체계 평가 및 수정을 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국 규모로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용(5학년), 중학생용(2학년), 고등학생용(2학년)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측정도구를 최종 개발하고자 하였다. 셋째, 전국 규모의 진단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준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및 선진국의 역량기반 학습과정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역량중심 학습체계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내용

1)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을 위한 본 조사 도구 개발

올해 본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은 1차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영역체계와 예비조사를 거친 진단도구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체계와 측정도구를 확정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 생애핵심역량의 개념 및 측정도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하였다. 둘째, OECD, IEA CIVED 자료 등 국제비교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체계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내·외 전문가 자문의 도움을 받았는데, 생애핵심역량 지표체계 확정을 위해 Rychen, D.S.(OECD DeSeCo Secretariat), Kelly, F.(Senior Manager, Ministry of Education), 水原克敏(東北大 교육학과 교수) 등 해외자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E-mail)로 자문을 받았다. 그밖에 진단도구에 대한 문항타당도 검토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 교장, 교감, 교육학과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진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을 위한 검사 최종문항은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협동)', '갈등 관리' 등의 세 영역에서 개발되었다. 첫째, 관계지향성 범주의 하위영역으로는 '적극적 경청', '사람신뢰',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공공에 대한 신뢰' 등의 네 요소로 구성되었다. 둘째, 사회적 협력(협동) 범주의 하위영역으로는 크게 '시민의식', '소속감', '만족감'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시민의식 범주 안에는 정치관심, 종교이해, 권리책임, 민주적 절차 등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갈등관리 범주는 '문제 인식 해결',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다수정당 존재이유' 등의 네 가지 요소로 개발되었다.

2)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조사 실시 및 분석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을 위한 본 조사는 각 학습단계를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초등학생(4~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별로 3,000명씩 총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 틀은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으며 비례층화집락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진행되었다.

최종 수합된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진단조사 데이터는 타당화 과정을 거쳐 세부 영역 및 요소에 따라서 연령별, 성별, 부모의 학력별, 경제수준별, 학업성취 수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3)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원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 도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 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 및 이미 역량기반 학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역량기반 교육체계 분석(연구대상국: 뉴질랜드)을 통하여 개인의 역량 개발이 발달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향후 교육정책 추진방향과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문헌 연구를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 생애핵심역량의 개념 및 측정도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선진국의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분석하였다.

2) 국제비교조사 도구 검토

국제비교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OECD, IEA 등 국제기구의 조사 담당자들과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본 조사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체계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3) 국내·외 전문가 자문

이 연구는 생애핵심역량 지표체계 확정을 위해 Rychen, D.S.(OECD DeSeCo Secretariat), Kelly, F.(Senior Manager, Ministry of Education), 水原克敏(東北大 교육학과 교수) 등 해외자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았다.

4) 청소년 대상 진단조사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조사는 청소년 핵심역량 측정을 위한 전국규모의 진단조사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때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와 학교 수에 따라 지역별로 비례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자세한 표집절차는 모 과제와 동일하므로 생략).

5) 심층 면담

청소년 상호작용역량 측정 문항, 예시문, 지시문 등에 관한 발달 수준별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뉴질랜드의 역량기반 교육체계 분석을 위해 뉴질랜드의 핵심역량교육체계 운영시범학교 방문 면담, 뉴질랜드 교육부 담당자 및 관련 연구진과 의견교류를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2.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3.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한 부분으로서의 시민의식

II. 이론적 배경

1.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현대 지식기반 사회는 급속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개인들이 적응하기 위하여 지난날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능력의 습득에 기반이 되는 기초 문해력을 넘어서 컴퓨터 활용능력, 외국어 능력, 직업전환 능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능력들은 환경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생애 특정 단계에 국한되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해 습득되고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이 평생학습을 통하여 습득해야 하는 능력의 범위는 실로 다양하고 방대하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도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나이든 사람도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생산 현장에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악화로 인한 청·장년 실업 문제는 구직이나 전직을 위한 직업 능력이나 직업 전환 능력이 중요한 능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 탈이데올로기,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신뢰 구축의 필요에서 개인이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줄 아는 능력, 물질만능주의, 탈법, 이기주의의 확산 등에 대비하여 도덕성, 준법정신, 사회적 정체성 등 시민의식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능력에 관한 논의는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DfES, 2001; EURYDICE, 2002; Hipkins, 2006; ILO, 2003; OECD, 2002, 2005, 2006; Q.C.A, 2007; S.Q.A, 2003; U.S. Department of Labor, 1994; U.S. Department of Education, N.C.E.S, 2001). 또한 이러한 핵심능력은 생애기술(life skills), 핵심기술(key skills), 핵심능력(core competencies)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나 능력들은 전반적으로는 시민생활과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의 요건으로서 평생학습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이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평생학습을 통한 전 생애 능력 개발을 도모할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됨에 따라 OECD는 개인의 생애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청소년과 성인의 기초능력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핵심 기초능력을 규정하기에 적절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생애학습과 교육체계의 최선의 목표로서 생애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 개인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언어와 기술, 상징 부호 등)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이질적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 개인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생애핵심역량의 범주는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기관(KEDI)이 수행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는 이들 세 가지 영역 중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에 관한 연구로서,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이 능력의 세부 기초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하게 대응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 기초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 타인과의 좋은 관계 유지 능력

– 사회적 협력, 협동 능력
–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 타인과 관계 유지(관계 지향성)

이 능력은 개인이 가족 구성원, 친구, 이웃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며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서로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개인이 타인의 생애, 가치관, 신념, 문화를 존중하고 감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Stein, 2000b).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의 개발과 관련해서 나라별로 살펴보면 핀란드에서는 1999년 교육평가 결과에 의사소통 능력의 요소 가운데,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적, 비언어적 인식 및 표현'을 담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초·중등 및 성인 교육 핵심 교육과정에 '영성적 인간'을 키우기 위해 '다른 문화에 개방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과 '다른 종교와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존중하는 능력'의 두 가지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Equipped for the Future' 프로젝트에서 시민, 가족 구성원, 노동자로서 참여하는 일상적 활동으로써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정의하고 있다(Stein, 2000a).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응집의 요구조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 요인으로 더 많이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Levy and Murnane(2001)은 공장에서의 변화와 경제에서의 변화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포함하여 '감성지능'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중 감정이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Ridgeway, 2001), 타인의 역할을 맡아보고,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것(Goleman, 1996)이 필요하다. 감정이입은 광범위한 의견과 신념을 고려하여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타인과 공유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기 성찰을 이끌어낸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누군가의 정서와 내부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런 능력은 자아 인식과 스스로에 대한 효과적인 해석 및 타인의 기본적인 정서적, 동기유발적 상태를 가정한다(Haste, 2001).

상기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계지향성으로서 개인의 적극적 경청 능력, 공감 능력, 도움(희생)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사회적 협력, 협동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내의 상호작용 범주 안에서 두 번째 핵심 능력은 다른 이들과 협동하는 능력이다. 이 핵심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집단이나 팀 안에서 일하는 능력은 거의 모든 국가 보고서에서 핵심 능력으로 언급되고 있다(Trier, 2003).

DeSeCo에서 사용하는 핵심 능력의 정의에서 일관된 점은, 그 초점이 집합적 의미로 집단에서 요구되는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의미로 사회 구성원에게도 요구되는 능력이란 점이다. 협력은 타인을 지원하고 리더십 역할을 공유해야 하는 집단에 대한 균형 있는 실행, 자발적 행위의 기준, 활발한 참여를 위한 균형 잡힌 사회적 책임감을 포함한다.

사회적 책임감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다.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역할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며 사회적 협력이나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책임감의 근원이 된다(Turner, 198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역할 이해,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유대감 등을 사회적 협력(협동) 역량의 주요 측정 요소로 보았다.

또한 사회적 협력, 행동 관련 요인으로 토의 내용과 의제의 역동성 및 경향을 이해하고 연대의 한계를 간파하며 전술적이거나 지속적인 동맹의 구성,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타협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주제이다(Perrenoud, 2001, pp.140−141). 결국 이 능력은 서로 다른 의견의 미묘한 차이를 허용하는 협상, 동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능력은 다음의 갈등 관리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3) 갈등 관리와 해결

세 번째 능력은 갈등을 일으키는 이해관계를 협상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하여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 일에 매달려야 하거나 갈등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판사, 변호사, 중재인, 옴부즈맨(고충처리원)과 같은 외부의 중재 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갈등에 직면하게 되며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갈등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역사회든 간에 삶의 모든 면면에서 발생한다. 갈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반대의견을 가질 때, 규준에서 벗어난 요구, 목표, 가치 때문에 일어난다. 갈등은 사회적 현실이며, 자유와 다원주의의 소산으로서 인간관계 고유의 부분이다(Perrenoud, 2001, p. 142). 구성적 방식(constructive manner)으로 갈등에 접근하는 것은 갈등을 관리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을 완전히 피하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대신, 민감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려 한다.

이런 능력은 개인이 타인의 요구와 이해를 고려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갈등 이익을 양자가 공유하는 것(win-win 해법)을 선호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갈등 관리와 해결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들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의 이슈와 관심사를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갈등의 시작이나 모든 측면의 합리적 이해, 혹은 다른 가능한 해법이 있음을 인식하는 일 등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동의와 불일치의 영역을 확인하는 것,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 필요한 일과 목표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능력은 결국 타인의 요구와 목표가 나의 것보다 우선적일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양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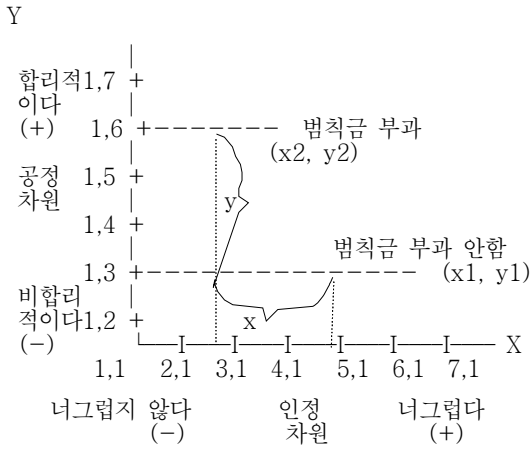
Walton과 Mckersie(1965)는 이러한 갈등해결 방식을 분배적 협상(distributive negotiation)과 대비되는 통합적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이라 불렀다. 한편 Thompson과 Hastie(1990)는 사람들이 통합적 동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을 협상자들이 지각이나 판단에서 범하는 총화고정오류

(fixed-sum error)때문이라고 보았다. 총화고정오류는 분배자원이 가변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정된 것으로 지각하는 오류이다. 따라서 갈등상황은 상대방의 이득이 곧 자기의 손실로 나타나는 zero-sum, 혹은 win-lose game으로 지각된다. 예컨대, 갈등장면에서 협상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초심자에 비하여 통합적 협상에 도달하기 더 쉽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원을 가변적으로 인식하여 상대와 공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갈등 상대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전체자원을 확대한다. 그리하여 갈등상황을 non zero-sum, 혹은 win-win game으로 지각하여 상대와의 통합적 협상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이 같은 역량은 상대방의 관심이나 기대를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갈등상대에 대한 조망취득 능력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관리 및 해결 능력을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인식, 조망취득 수준, 문제 해결 수준(얼마나 win-win 전략을 선택하는지 등)과 같은 개인 역량을 알아봄으로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갈등 문제에 대한 인식, 조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공정을 중요시하는 행동과 인정을 중요시하는 행동이 갈등하는 시나리오(교통위반을 적발한 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여하는 것과 부여하지 않는 것)를 제작하였다. 이때, 공정조망은 대인관계에서 이해의 교환에 관심을 갖고 원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는 심리적 과정인 반면, 인정조망은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정서나 유대감을 중시하는 심리적 과정이다(이헌남, 1992).

한편, 시나리오의 행동들은 공정조망(예; 비합리적이다 – 합리적이다)과 인정조망(너그럽지 않다 – 너그럽다)을 대표하는 형용사들로 양극이 규정된 의미미분척도 상에서 판단되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공정과 인정이 갈등하는 장면에서 두 판단 준거에 대한 가치지향성 점수 x, y, 즉 두 차원에서 판단된 행동들의 변별값이다.



[그림 II-1] 공정 및 인정행동 판단에서 준거가치 차원

그림에서 y는 범칙금 부과와 부과하지 않는 행동을 공정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x는 인정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 각 차원에서의 변별값이 클수록 그 가치나 조망을 가지고 두 대립된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각 준거차원 변별값의 구체적 계산 절차는 이수원과 박영석(1988)이 개발한 것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2.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개념

전 생애동안 인간은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점점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인간관계 형성은 개개인의 복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위해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기존에 형성된 사회적 연계가 약해지고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새로운 사회적 연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구축

은 중요하다.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자본은 인간자본(human capital)과 함께 한 나라의 인적자원이나 자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최근 수 년 간의 연구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복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의 거시적 혹은 미시적인 효과들을 밝혀왔다(OECD, 2000).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자본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며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자본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어떤 한 개인만이 소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며 공공의 성격을 가진다. 셋째, 관습이나 문화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간자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이나 특성들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집단 간 혹은 집단 내에서 협동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 가치 및 상호이해를 수반하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적인 틀을 넘어서 협동하고 정보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양한 집단 활동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상호이해를 수반하는 네트워크의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 신뢰 관계를 수립하고 협동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 사회적 자본 형성의 원천

사회적 자본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국가, 하위 국가 수준의 다양한 행정단위나 제도들을 통하여 형성된다.

첫째, 가정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일차적인 원천이다.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

이나 부모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신뢰나 협동, 혹은 학교교육에서의 학습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콜맨은 가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 ① 가정에서 부모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의 정도 ② 아이에 대한 주의나 보살핌의 강도와 질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일을 통하여 형성되는 실질적인 장소는 기업이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는 점차 협동, 학습,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조직학습, 학습조직이라는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시민사회 조직들이다. 한 지역에서의 경제적 혹은 정책수행 활동들은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시민사회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스포츠클럽, 각종 협의체, 봉사조직, 노동조합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제도들이나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른바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부의 생산과 복지 정책 및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넷째, 성(gender), 인종, 지역감정 등 우리 사회에서 상존하고 있는 편견의 범주들도 사회적 자본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 규정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시민활동, 정치적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 성, 인종, 지역, 학벌 등의 차별과 같은 문제는 조직이나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주요 원천들은 세대 간의 격차, 변화하는 가치체계(포스트모더니즘, 개인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공동체 의식의 약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변화, 가정의 붕괴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사회적 자본의 측정

인간자본이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기술력 등으로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일찍이 푸트남(Putnam, 2002)

은 미국인들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데 ① 지역사회나 조직 생활에 대한 참여의 강도, ② 투표 등과 같은 정치 참여나 관심, ③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④ 친구관계와 같은 비형식적인 사교성, ⑤ 대인간의 신뢰와 같은 지표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사회적 자본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예컨대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푸트남은 개인의 태도나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했는데 신뢰의 기준 자체가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들 간 비교나 문화 간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넥과 키퍼(Knack & Keefer, 1997)는 행동수준에서 OECD 국가들 간 신뢰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측정이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시민의식의 핵심요소로서 사람들 간의 신뢰가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경제·사회적 효과로 인하여 선진 각국들은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으로써 자국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그 개념을 명료화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육성 전략의 계기로 삼고 있다(OECD & ONS, 2002). 2002년 9월에 OECD와 영국의 국가통계청이 주최한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OECD에 소속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차원, 요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측정 차원으로서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제(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규범·가치의 공유와 신뢰(shared norms, values and trust), 시민적 참여(civic participation),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views of the local area) 5가지를 들고 있다. 이를 기초로 영국 국가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2)의 사회적 자본 문항 군(social capital question bank)에서는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문항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측정 차원 및 내용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요소

사회적 자본 측정요소	세부 측정내용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관련 요소
시민 참여 (civic participation)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활동 및 강도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장애요인	○
	정치참여 활동(정치, 투표 참여)	○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
	이웃에 대한 친밀감	○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정치결정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	●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	●
지역사회의 구조나 제도 수준(structures or support)	지역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지역 소음 등 환경문제	
	지역의 공공 서비스(교육, 교통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도	○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제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의 질과 양	●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에서 장애요인	○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	●
신뢰, 사회적 응집성 (trust, social cohesion)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 수준	●
	한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
	공공 및 서비스 제도에 대한 신뢰	○
	타인에 대한 신뢰	○
	정치구조에 대한 신뢰	○
	가치의 공유에 대한 인식	●

○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직접 측정하는 요소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관련된 요소는 시민참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제(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및 신뢰, 사회적 응집성(trust, social cohesion)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시민참여 요소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활동 및 강도와 같은 요소와 사회적 네

트워크와 지원체제 요소에서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의 질과 양 같은 요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세부요소들이다. 또한 신뢰, 사회적 응집성 요소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 수준 및 가치의 공유에 대한 인식 등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고 한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공공 및 서비스 제도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정치구조에 대한 신뢰 등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측정요소로 볼 수 있다.

이렇듯 1차년도 연구에서는 국제 조사 기관의 사회적 자본 측정 문항군 중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문항들을 살펴보았는데,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사회적 자본 측정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 조사기관의 사회적 자본 측정에 대한 국제지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3) 사회적 자본의 국제 측정도구 비교

각 나라별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서로간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각 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비교·분석 하고자 하는 시도가 OECD와 영국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각 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대한 실태 분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국제비교지표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김태준(2009)은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에서 OECD 등의 국제기구가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개발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ESS(European Social Survey), WVS(World Values Survey),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등에서 사회적 자본 모듈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국제비교지표를 개발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p.2). 또한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의 국제적인 비교 준거의 부재와 동일한 문항의 개발이 미진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분석을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측정도구를 개발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ESS, WVS, ISSP, WB, CIVED와 같은 국제조사들의 문항들을 비교, 조사하여 국제적

으로 비교 가능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1) European Social Survey(ESS: 유럽 사회 조사)

유럽 사회 조사(ESS)에서 사회 불평등 가치 기준, 국가 정체성, 삶의 질, 정치적 경제적 적응, 유럽화와 대중 매체 행동을 기준으로 유럽인들의 정치, 사회적 신념을 측정하였는데, 최근의 ESS에서는 Citizenship, Involvement, Democracy(CID) 모듈로 사회적 자본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다. CID의 주요 측정의 핵심요소 중에서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련한 요소>

- 시간과 돈의 자발적인 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과 협회의 참여활동 정도
- 조직이나 사회와 관련이 없는 비공식적인 사회 활동 뿐만 아니라 협회 구성원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측정
- 지역과 국가, 이웃을 위한 지각된 관심의 정도
- 다른 그룹의 구성원의 관심 지각(다른 사회계층, 언어, 민족, 지역 등)
- 정치적인 사건, 특정한 목적의 지지속의 정치적인 활동과 시민의 약속에 대한 관심 정도
- 비공식 접촉의 정도,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일어나는 사회적 지지와 정신적 도움 정도
- 다른 그룹의 구성원에 대한 관용의 정도
- 신뢰
- 정부, 법률 집행과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신뢰

<그 밖의 요소>

- TV시청의 정도
- 정치의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한 인터넷 사용
- 태도, 가치 그리고 '좋은 시민의식'에 관한 지각

- 태도, 가치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에 관한 지각
- 정치적인 효능의 지각 혹은 공공서비스 품절의 변화의 가능성(예, 교육, 건강) 그리고 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전략의 평가

(2) World Values Survey(WVS: 세계가치관조사)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세계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그러한 가치관이 사회와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연구이다. 1981년 이후, 유럽가치관조사(EVS)와 함께 세계 인구의 90% 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97개국에 걸쳐 조사 결과를 축적해 왔다. 1차 조사는 1981년-1984년에 20개국의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조사는 2005-2008년 54개국의 7만 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 측정도구는 259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문항은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에 이르는 신뢰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미시적 수준의 신뢰: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신뢰
- 중간적 수준의 신뢰: 지역사회, 단체 및 기구에 대한 신뢰
- 거시적 수준의 신뢰: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국제단체에 대한 신뢰

이러한 세계가치관 조사는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사회적 자본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각 나라별 표본 크기, 질문 영역이 제한적인 점과 '신뢰' 등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3)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SSP)은 매년마다 다국적 협업으로 실시되는 조사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두 기관인 독일 만하임의 조사방법론 및 분석센터의 사회과학종합인구조사와 미 시카고 대학의 국가여론연구센터가 시계열 자료를 축적해 오고 있다. 이 사회조사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련 있는 질문은 두 모듈인데, 사회 연결망 1차 조사(Social Networks I, 1986)와 사회참여와 지원 시스템 2차 조사(Social Participation and Support Systems; Social Networks II, 2001)이다. 특히, 사회 연결망 2차 조사에서는 참여, 신뢰,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의 질문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ISSP는 2004년에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데, 시민의식(Citizenship)이 포함되어 있다.

(4) World Bank(WB: 세계 은행)

세계은행(WB)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도출해 내는 등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다. 사회적 자본의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 이르는 많은 연구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사회연결망과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 자본의 주 영역임을 밝혔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많은 연구 활동들은 최근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질문문항들을 하나의 도구로 통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Grootaert, Narayan, Jones, Woolcock(2003)이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 통합판(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rgrated Questionnaire: SC-IQ)'을 정리하였으며, 그 구성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집단 및 네트워크(Group and Networks)
- 신뢰 및 유대(Trust and Solidarity)
- 집합적 행동 및 협동(Collective Action and Cooperation)
-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사회적 응집력 및 포섭력(Social Cohesion and Inclusion)
- 권력 강화 및 정치적 행동(Empowerment and Political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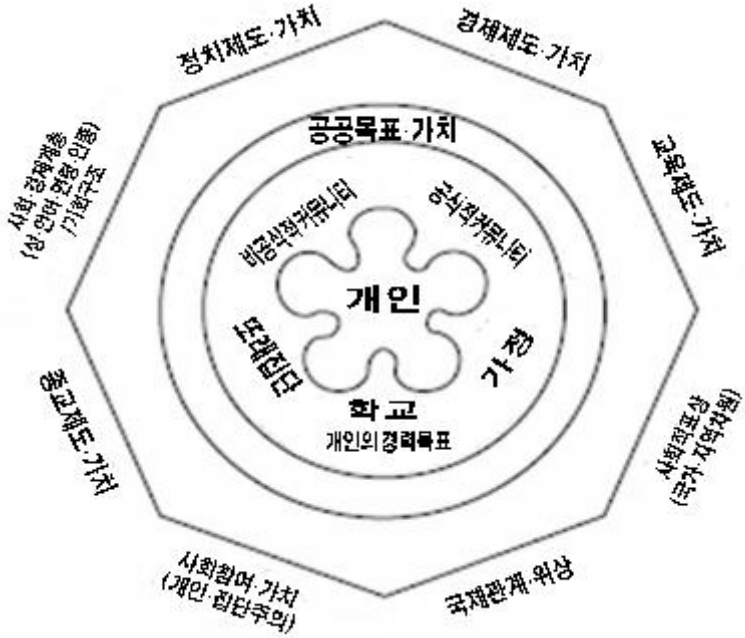
이러한 통합적인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의 개발은 다양화된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체계화하고 경험적 연구들의 유사성을 구조화하였다.

3.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한 부분으로서의 시민의식

현재 우리사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탈법, 불신풍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덕성, 준법정신, 상호 신뢰 등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시민의식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동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 1차년도 IEA CIVED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교육 국제비교 연구를 하고 있다. 1999년에 수행된 시민교육에 관한 IEA 연구(CIVED: Civic Education Study)에서는 Uri Bronfenbrenner의 인간 발달·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근거로 시민의식 측정을 위한 시민교육의 주제 영역을 개념화하였으며(Torney-purta 등, 2001),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약 30개국의 참여국 사이에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II-3] CIVED 모형(Torney-purta 등, 2001)

한편 민주주의, 국가정체성과 지역 및 국제관계, 사회통합과 다양성 같은 세 가지 공통 핵심영역도 도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역 1: 민주주의/시민
- 영역 2: 국가 정체성/국제 관계
- 영역 3: 사회적 유대/다양성

또한 측정도구에 포함될 문항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유형1) 내용에 관한 지식의 측정

유형2) 시민 혹은 정치적 내용을 담은 매체를 해석하는 기술의 측정(예: 만화, 전단지)

유형3) 민주주의와 시민의식과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의 측정

유형4) 태도의 측정 (예: 정부에 대한 신뢰나 믿음 정도)

유형5)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정치에 대한 참여 행동의 측정

IEA의 시민의식 측정도구는 조사 내용과 문항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I-2> IEA의 시민의식 문항개발을 위한 구조

	지식	기술	개념	태도	행동
영역1 민주주의/시민의식					
영역2 국가적 정체성/국제관계					
영역3 사회통합/다양성					

(1) 시민적 내용의 지식과 정보의 해석 기술

IEA 조사도구에서는 38문항의 내용적 지식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25개의 문항이 내용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13개의 문항이 시민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는 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예를 들면, 세금의 형평성에 있어서의 차별, 비민주적 정부의 행위, 대규모 출판사의 신문 독과점의 결과, 역사책에 관한 만화의 주요 메시지, 전단지의 출처, 민주주의에서 조직이나 단체가 중요한 이유, 복수정당제의 기능 등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2) 민주주의, 시민의식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개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1971년 IEA 시민교육조사에서도 포함된 바 있으며, 이때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부의 민주주의 체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에 응답을 하였다. 1999년 조사에서는 민주주의에 장애가 되는 위협요소(예-정치부패), 긍정적 요소(예-자유 투표) 등을 포함하였고, 대부분의 문항은 첫 번째 영역으로부터 추출되었다.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은 1971년 조사에서는 시민의식에 관하여 훌륭한 시민이 가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16개의 문항을 가지고 평가되었으며, 관습적인 정치 참여(투표, 정당이나 정치적 토론에의 참여)와 사회운동에의 참여(환경이나 인권그룹에의 소속)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1999년의 시민의식 관련 개념을 구성하는 문항이 개발되었다. 정부의 책임은 대체로 경제 관련 정부의 책임(고용의 보장, 가격 조정, 산업지원, 실업대책, 부의 형평 조절)과 사회 관련 정부의 책임(의료보장, 노인복지, 교육 보장, 여성을 위한 정치적 기회의 보장, 환경오염 관리, 순서(order)의 보장, 도덕적 행위의 증진)으로 요인분석 결과 크게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3) 국가, 정부, 이민자 및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태도

시민의식은 지식 외에 공통의 가치와 태도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IEA 조사에서는 첫 번째 영역에서 정부에 대한 믿음, 공공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을 때의 두려움, 두 번째 영역에서 지원이나 소외에 대한 이슈, 국가에 대한 감정, 국가나 정치적 상징에 대한 일체감,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기회 혹은 권리에 대한 지지,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시민단체, 대중매체, 학교 및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고, 대중매체로는 TV, 라디오, 신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국가에 대한 태도는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과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국기에 대한 느낌, 국가에 대한 자긍심, 다른 나라에 살고자 하는 경향성 등)등을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이민자와 여성에 대한 태도는 사회통합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포함된 영역이다. 이민자에 대한 문항은 이민자들의 고유 언어와 관습을 지킬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다른 시민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4) 시민의 참여(civic engagement)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는 특징 중 하나는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정보에 대한 노출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여부는 직접 물어보았고, 정치적 정보에 대한 노출은 정치적 뉴스를 담은 매체(TV, 라디오, 뉴스 및 기사)에의 노출 빈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 예상은 정당에의 참여, 사회적 정치적 관심에 대한 신문 기사를 쓰는 것, 지역의 대표자가 되는 것, 투표참여에의 의지 등을 질문함으로써 조사되었다. 사회운동에의 참여는 청원서 서명, 비폭력적 항의 집회에 참여 등의 문항으로, 관습적이지 않은 불법적 형태의 정치행동은 벽 등에 항의문을 쓰는 것, 항의의 형태로 교통을 차단하는 것, 건물을 점거하는 것 등의 질문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이 외에 자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나 사회적 목적으로 기금을 모금 하는 것 등도 포함된 바 있다.

2) 2차년도 IEA ICCS 2009

1차년도 청소년 생애핵심역량연구에서는 IEA의 1차년도 연구인 CIVED의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부분이 중심이 되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2차년도 청소년 생애핵심역량연구에서는 ICCS 2009 본조사 실시와 함께 더 발전된 평가영역의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에 실시한 IEA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시민교육 국제비교연구)에서는 1999년 국제비교조사에서 사용된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테스트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ICCS 2009는 1999년에 시행된 IEA CIVED의 시민교육의 연구내용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성, 시민의식 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 성취도, 시민참여 및 정치의식과 성향, 태도, 교사의 학생통제, 풍토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인지영역 및 태도에 대한 문항들을 ICCS 2009 평가도구에 포함시켰다. ICCS 2009의 평가영역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내용영역과 정서-행동영역 그리고 두 가지 인지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성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하는 내용영역과 그와 관련한 지각과 행동 유형 및 사고과정과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인지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체제로 발전되었다.

- 내용 영역 1: 시민사회와 체계
- 내용 영역 2: 시민 행동원리
- 내용 영역 3: 시민 참여
- 내용 영역 4: 시민성

- 정서-행동 영역 1: 가치 신념
- 정서-행동 영역 2: 태도
- 정서-행동 영역 3: 행동 의도
- 정서-행동 영역 4: 행동

- 인지 영역 1: 아는 것
- 인지 영역 2: 추론과 분석

ICCS 2009의 네 가지 내용영역의 하위영역을 보면 <표Ⅱ-3>과 같이 나뉜다. IEA 시민교육 연구의 내용 영역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관련된 시민의식 범주로는 시민사회와 시스템, 시민 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및 시민정체성 등 모두가 포함되는데, 각 범주의 구성요소 중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추출하면 시민, 평등, 사회 통합,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자아상, 시민유대감 등이 있다.

<표 II-3> ICCS 2009 평가의 내용 영역

시민 사회와 시스템	시민 Citizens
	국가 조직 State institutions
	시민 조직 Civil institutions
시민 공동체 원리	평등 Equity
	자유 Freedom
	사회 통합 Social Cohesion

시민 참여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영향력 행사 Influencing
	공동체 참여 Community participation
시민 정체성	시민 자아상 Civic self-image
	시민 유대감 Civic connectedness

시민 사회와 시스템의 하위영역인 시민은 다음의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

- 시민 사회에서 시민들과 집단들이 맡아 수행해야 하는 역할
- 시민 사회에서 시민들과 집단들이 맡아 발휘해야 하는 권리
- 시민 사회에서 시민들과 집단들이 맡아 수행해야 하는 책임
-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는 시민과 집단의 기회와 능력

시민 공동체에서 평등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이다. 이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조화를 증진시키는 측정요소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평가영역이다. 즉, 시민 사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권리 및 책임이라는 영역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측정요소로 보았다. 또한 사회 통합은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소속감, 연결성과 공동의 비전을 의미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측정요소이다.

시민 참여의 하위영역인 의사결정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나 공동체 안에 속한 집단에 관한 직접적인 정책 실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적극적 참여를 측정하며, 조직적인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나 투표 등이 이에 속한다. 영향력 행사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정책 및 관행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타인들의 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이 하위 영역의 측정요소로는 공공 토론에 참여하기, 공중의 지지 혹은 반대 시위에 참여 등이 이에 속한다. 공동체 참여는 공동체의 궁극적 이익을 도모하는 참여, 종교, 문화, 운동 조직에 참여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시민 정체성의 하위영역은 시민 자아상과 시민 유대감이다. 시민 자아상과 시민 유대감은 모두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련성에 대해 측정하는 요소로 개인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가지는 위치에 대한 느낌이나 시민적 역할에 대

한 자각을 측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ICCS 2009 평가 틀의 세 범위인 내용 영역, 정서-행동 영역, 인지 영역의 관계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ICCS 2009의 평가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련한 문항의 측정은 이와 같다. 예를 들면, 의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묻는 다면, 이는 정서-행동 영역의 E번 영역으로 내용 영역1: 시민사회와 체계, 정서-행동 영역 2: 태도에 해당된다.

<표 II-4> 내용 영역, 정서-행동 영역과 인지 영역 사이의 관계

	내용 영역 1: 시민사회와 체계			내용 영역 2: 시민공동체 원리			내용 영역 3: 시민 참여			내용 영역 4: 시민 정체성	
	시민	국가 조직	시민 조직	평등	자유	사회 통합	의사 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 자아상	시민 유대감
인지 영역											
아는 것	I			II			III			IV	
추론과 분석	V			VI			VII			VIII	
정서-행동 영역											
가치 신념	A			B			C			D	
태도	E			F			G			H	
행동 의도							I				
행동							J				

III.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결과

1. 진단조사 도구 개발
2. 진단조사 결과

III.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결과

1. 진단조사 도구 개발

1) 측정도구 최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이 연구의 1차년도(2008년)에 연구진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최종 개발하였다. 개발된 최종 측정도구는 1차년도 개발된 도구와 전반적인 골격은 유지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1차년도 개발된 도구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절차를 밟았다. 첫째, 1차년도에는 DeSeCo의 핵심역량개념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문항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과제의 연구방향 설정에서 DeSeCo의 핵심역량개념 및 범주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으로 재설정되었으므로 각 측정영역에 따른 하위요소들이 삭제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었다.

둘째, 2차년도의 측정도구 개발은 향후 3차년도 연구 방향인 청소년 핵심역량의 국제비교에 맞추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셋째, 1차년도에 비하여 측정도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개발한 도구의 전국단위의 조사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예비조사를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문항을 선정하는데 반영하였다(1차, 2차년도별 측정문항 변화는 부록1 참고).

한편, 올해 실시되는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도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초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초등학생용 조사지와 중등학생용 조사지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그밖에 전문가 자문은 2009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교육학과 교수 및 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예비조사

타당성 및 난이도 검토를 위해서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최종개발

(1)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검사 최종문항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을 위한 검사 최종문항은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의 논의를 근간으로 하여 '관계지향성', ' 사회적 협력(협동)', '갈등관리'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개발되었다.

① 관계지향성 영역

관계지향성 범주의 하위영역으로는 '적극적 경청', '사람신뢰',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공공에 대한 신뢰' 등의 네 요소로 구성되었다.

<표 III-1>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최종 항목 및 출처

하위요소	문항내용	출처	문항
적극적 경 청	나는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DeSeCo 참고	Ⅲ-20-1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말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Ⅲ-20-2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Ⅲ-20-3
	나는 내가 관심 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Ⅲ-20-4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바라본다.		Ⅲ-20-5
	나는 상대방의 말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들으며 말꼍 마디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다.		Ⅲ-20-6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Ⅲ-20-7
사람 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ESS	Ⅲ-24
주변사	친척과 얼마나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나요?	ESS	Ⅲ-33

람과의 접촉의 질과양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 할 사람이 있나요?		Ⅲ-34
	같은 나이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나요?		Ⅲ-35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Ⅰ-10
공공에 대 한 신 뢰	아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나요?(국회, 사법기관, 경찰서, 정당, 국제연합)	CIVED	Ⅲ-26

관계지향성 범주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 경청'영역의 문항은 DeSeCo(2002)의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사람신뢰'및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영역의 문항은 2002년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에서 선정된 시민의식 영역의 지표에 대한 개발 내용을 참고로 개발하였다.

'공공에 대한 신뢰'영역의 문항은 1994년부터 시민교육의 영역 내에서 각국의 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 비교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vement)의 1999년 시민의식 관련 개념을 구성하는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②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사회적 협력(협동) 범주의 하위영역으로는 '시민의식', '소속감', '만족감' 등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영역의 문항은 2002년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에서 선정된 시민의식 영역의 지표에 대한 개발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민주적 절차' 영역의 문항은 IEA의 1999년 시민의식 관련 개념을 구성하는 문항 및 1999년 IEA의 시민교육 연구에서 확대된 IEA ICCS 2009(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의 평가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표 III-2>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협력' 최종 항목 및 출처

하위 요소		문항내용	출처	문항
시민 의식	정치 관심	당신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ESS	Ⅲ-25
	종교 이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ESS	Ⅲ-28-1
	권리 책임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ICCS	Ⅲ-28-2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Ⅲ-28-3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Ⅲ-28-4
	민주적 절차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CIVED	Ⅲ-27-1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Ⅲ-27-2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Ⅲ-30
소속감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CIVED	Ⅱ-16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Ⅱ-17
		학교생활 중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나요?		Ⅱ-18
만족감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ESS	Ⅲ-31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Ⅲ-32

③ 갈등관리 영역

갈등관리 범주는 '문제인식 및 해결',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다수 정당 존재이유' 등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개발되었다.

<표 III-3> 사회적 상호작용 '갈등관리' 최종 항목 및 출처

하위 요소	문항내용	출처	문항
문제 인식 해결	나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Heppner & Peterson	Ⅲ-23-1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Ⅲ-23-2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생각한다.		Ⅲ-23-3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ESS	Ⅲ-21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Ⅲ-22-1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Ⅲ-22-2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살기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Ⅲ-22-3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다음 중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ICCS	Ⅲ-36-1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Ⅲ-36-2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적발해서 벌금을 매긴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이헌남	Ⅲ-37-1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모른 척 눈감아 준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Ⅲ-37-2
다수정당존재 이유	민주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CIVED	Ⅲ-29

갈등관리 범주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을 위하여 '문제인식 및 해결'영역의 문항은 Heppner & Peterson(1982)의 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참고로 하였으며, '이민자에 대한 태도' 영역의 문항은 2002년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에서 선정된 시민의식 영역의 지표에 대한 개발 내용을 참고로 하였다.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영역의 문항은 1999년 IEA의 시민교육 연구의 평가 문항과 이헌남(1992)의 논문에서 심리적 조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척도를 참고로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개발단계에서부터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협동), 갈등관리 세 영역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따라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영역에 따른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42에서 .64까지 각 측정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신뢰도가 낮은 영역에서의 측정 변수들은 각 하위척도의 문항 배분이 불균일하고 측정도구의 성격도 달라 문항의 숫자에 따라서 신뢰도 분석결과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때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각 영역에 따른 신뢰도 분석은 부록1 참고).

2. 진단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52.4%, 여학생은 47.6%로 나타났으며, 학교는 초등학생 30.4%, 중학생 30.3%, 고등학생 39.3%로 나타났다. 교급으로 초등학생 중 4학년은 9.3%, 5학년은 10.2%, 6학년은 10.9%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1학년 10.7%, 2학년 9.6%, 3학년은 10.1%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중 1학년은 13.8%, 2학년은 13.3%, 3학년은 12.2%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시가 16.6%로 조사되었고, 광역시는 31.0%, 시·군은 52.4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은 대학이상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학력은 고졸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51.8%가 자신의 가정 경제수준을 보통(중)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에서 자신의 학업성적(2009년 1학기)에 대해 보통(중)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38.3%, 낮은(하)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37.4%, 높은(상)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24.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사회영역의 학업성적에 대해서도 보통(중)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39.6%, 낮은(하)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32.7%, 높은(상)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27.7%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4792	52.4
	여	4358	47.6
학교	초등학생	2781	30.4
	중학생	2770	30.3
	고등학생	3599	39.3
교급	초4	849	9.3
	초5	931	10.2
	초6	1001	10.9
	중1	975	10.7
	중2	875	9.6
	중3	920	10.1
	고1	1265	13.8
	고2	1218	13.3
	고3	1116	12.2
거주지	서울	1521	16.6
	광역시	2838	31.0
	시·군	4791	52.4
부학력	고등이하	486	5.7
	고졸	3696	43.4
	대학이상	4341	50.9
모학력	고등이하	523	6.2
	고졸	4491	53.1

	대학이상	3451	40.8
경제수준	상	2764	30.8
	중	4658	51.8
	하	1564	17.4
학업성적 (전체)	상	2199	24.3
	중	3470	38.3
	하	3392	37.4
사회영역 학업성적	상	2459	27.7
	중	3520	39.6
	하	2904	32.7
합 계		7535	100.0

* 표에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2) 조사대상자들의 진단조사 결과

(1) 연령 및 성별 차이 분석

① 관계 지향성 영역

● 적극적 경청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적극적 경청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성별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타인과의 대화에서 더 적극적인 경청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경청 태도	M	3.28	3.52	3.40	3.35	3.58	3.46	3.46	3.65	3.55	55.120***	301.482***	1.299
	SD	.64	.62	.64	.61	.57	.57	.60	.60	.52			

*p<.05, **p<.01, ***p<.001

● 사람 신뢰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타인을 대우하는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타인을 신뢰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연령별, 성별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사람 신뢰	M	6.33	6.62	6.48	5.81	5.81	5.81	5.59	5.92	5.75	61.230***	12.457***	3.145*
	SD	2.63	2.49	2.57	2.53	2.44	2.48	2.47	2.29	2.39			

*p<.05, **p<.01, ***p<.001

●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친척과의 만남 빈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성별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친척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친척과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연령별, 성별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친척과 의만남	M	3.56	3.50	3.53	3.19	3.04	3.12	2.66	2.63	2.64	314.108***	7.657**	1.456
	SD	1.43	1.39	1.41	1.40	1.33	1.37	1.23	1.22	1.2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

71.1%, 고등학생 75.7%로 나타났으며, 그 중 남학생은 67.4%, 여학생은 80.8%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 28.9%, 고등학생 24.3%였으며, 그 중 남학생은 32.6%, 여학생은 19.2%로 나타났다.

<표 III-8> 연령별, 성별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x2	남학생	여학생	x2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있다	빈도	1956	2702	17.195***	2260	2398	146.684***
		%	71.1	75.7		67.4	80.8	
	없다	빈도	796	867		1094	569	
		%	28.9	24.3		32.6	19.2	
	전체	빈도	2752	3569		3354	2967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또래에 비해 사람들과의 사교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성별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다 본인이 또래에 비해 사교적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사교적 모임의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았다.

<표 III-9> 연령별, 성별에 따른 사교적 모임 평균비교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사교적 모임	M	3.01	3.08	3.04	2.93	3.00	2.96	9.011**	7.230**	.014
	SD	1.03	.93	.98	1.02	.94	.9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부모님과의 활동에 대한 평균 차

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과의 활동 전체에 대해서는 연령별, 성별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 집단이 낮을수록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부모님과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고민에 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TV・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부모님과의 여가활동, 부모님과의 저녁식사에 대한 활동들은 모두 초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학생 집단, 고등학생 집단 순으로 활동의 빈도가 나타났다. 즉, 어린 연령집단의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따라서는 고등학생 집단의 저녁식사에 대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단에서 각 활동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의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연령별, 성별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고민에 대한 대화	M	1.84	2.14	1.99	1.66	1.95	1.80	1.62	2.02	1.81	23.667***	201.298***	2.397
	SD	1.13	1.24	1.19	.99	1.20	1.10	.89	1.17	1.05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M	2.74	3.20	2.96	2.47	2.98	2.71	2.23	2.89	2.54	72.917***	375.612***	4.905**
	SD	1.40	1.45	1.44	1.28	1.42	1.37	1.11	1.37	1.28			
책,TV,영화에 대한 대화	M	2.21	2.30	2.26	2.12	2.28	2.19	1.90	2.25	2.06	21.447***	70.372***	10.362***
	SD	1.20	1.21	1.21	1.09	1.20	1.15	1.02	1.18	1.11			
정치, 사회에 대한 대화	M	1.81	1.85	1.83	1.78	1.75	1.77	1.67	1.81	1.74	6.255**	6.267*	5.805**
	SD	1.08	1.07	1.07	1.01	1.02	1.01	.89	1.01	.95			
여가활동	M	2.38	2.55	2.46	2.16	2.17	2.16	1.73	1.88	1.80	287.024***	21.544***	4.383**
	SD	1.18	1.25	1.22	1.13	1.12	1.12	.89	1.05	.97			
저녁식사	M	3.69	3.95	3.82	3.55	3.61	3.58	2.76	2.68	2.72	592.967***	8.236**	12.183***
	SD	1.37	1.31	1.34	1.37	1.38	1.37	1.35	1.34	1.35			
부모님과 활동 (전체)	M	2.42	2.64	2.53	2.28	2.45	2.36	1.98	2.25	2.11	229.330***	175.526***	3.096*
	SD	.79	.86	.83	.75	.83	.79	.67	.82	.76			

*p<.05, **p<.01, ***p<.001

● 공공에 대한 신뢰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서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집단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집단이 공공기관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 사법기관, 경찰서, 정당, 국제연합 등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성별에 따라서는 경찰서와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경찰서와 국제연합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연령별, 성별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국회	M	2.78	2.76	2.77	1.94	1.97	1.95	218.819***	.002	.113
	SD	2.41	2.10	2.27	2.05	1.81	1.94			
사법기관	M	4.60	4.46	4.54	3.94	3.79	3.87	101.457***	5.082*	.007
	SD	2.75	2.39	2.59	2.63	2.24	2.45			
경찰서	M	5.07	4.51	4.81	4.32	3.86	4.10	101.334***	53.208***	.508
	SD	2.90	2.65	2.80	2.72	2.35	2.56			
정당	M	2.86	2.77	2.82	2.03	1.97	2.00	203.092***	1.714	.075
	SD	2.53	2.19	2.38	2.12	1.83	1.99			
국제연합	M	6.20	5.61	5.92	5.44	5.08	5.27	77.662***	41.787***	2.170
	SD	2.93	2.59	2.79	2.87	2.51	2.71			
공공기관 신뢰	M	4.17	3.91	4.05	3.43	3.25	3.35	212.684***	21.877***	.712
	SD	2.03	1.85	1.95	1.86	1.63	1.76			

*p<.05, **p<.01, ***p<.001

②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 시민의식-정치관심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정치에 대해 더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표 III-12> 연령별, 성별에 따른 정치 관심 정도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정치관심 정도	M	2.58	2.58	2.58	2.55	2.43	2.49	2.57	2.60	2.59	10.857***	3.092	5.747**
	SD	.91	.81	.86	.90	.83	.87	.85	.81	.83			

*p<.05, **p<.01, ***p<.001

● 시민의식-종교이해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연령별로는 중학생 집단 92.4%, 고등학생 집단 93.0%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91.2%, 여학생 94.5%로 나타났다.

<표 III-13> 연령별, 성별에 따른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표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x^2	남학생	여학생	x^2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빈도	2559	3348	.962	3082	2825	26.142***
		%	92.4	93.0		91.2	94.5	
	오답	빈도	211	251		298	164	
		%	7.6	7.0		8.8	5.5	
	전체	빈도	2770	3599		3380	2989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권리 책임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권리 책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연령별로 중학생 집단은 89.9%, 고등학생 집단은 93.6%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90.1%, 여학생 94.1%를 보였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중학생 집단 69.3%, 고등학생 집단 68.8%가 올바른 응답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65.5%, 여학생 73.1%가 올바른 응답을 보였다.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새로운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연령별로는 중학생 집단 81.6%, 고등학생 집단 83.9%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80.9%, 여학생 85.2%로 나타났다.

<표 Ⅲ-14> 연령별, 성별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x^2	남학생	여학생	x^2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2491	3367	27.888***	3046	2812	33.707***
		%	89.9	93.6		90.1	94.1	
	오답	빈도	279	232		334	177	
		%	10.1	6.4		9.9	5.9	
	전체	빈도	2770	3599		3380	2989	
		%	100.0	100.0		100.0	100.0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정답	빈도	1920	2477	.175	2213	2184	42.801***
		%	69.3	68.8		65.5	73.1	
	오답	빈도	850	1122		1167	805	
		%	30.7	31.2		34.5	26.9	
	전체	빈도	2770	3599		3380	2989	
		%	100.0	100.0		100.0	100.0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2260	3020	5.963*	2734	2546	20.609***
		%	81.6	83.9		80.9	85.2	
	오답	빈도	510	579		646	443	
		%	18.4	16.1		19.1	14.8	
	전체	빈도	2770	3599		3380	2989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민주적 절차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민주주의 인식 전체에 대해서는 연령별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결이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연령별, 집단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다 더 비민주적인 절차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비민주적인 절차가 더 높게 나타났다. 비민주주의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에서 역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비민주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5> 연령별, 성별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다수결위배	M	2.62	2.43	2.53	2.51	2.36	2.44	9.379**	30.541***	.617
	SD	1.28	1.10	1.20	1.24	1.12	1.19			
비민주주의성	M	2.55	2.15	2.37	2.60	2.20	2.41	2.056	147.689***	.007
	SD	1.42	1.17	1.33	1.40	1.18	1.32			
비민주주의성 (전체)	M	2.59	2.29	2.45	2.55	2.28	2.43	.749	119.792***	.164
	SD	1.10	.93	1.04	1.09	.94	1.0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정부가 비민주적인 경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총 보기 4개의 문항 중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인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중학생 38.1%, 고등학생 51.0%로 나타났으며, 그중 남학생은 43.2%, 여학생은 48.0%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 외의 오답으로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 61.9%, 고등학생 49.0%로 나타났으며,

그 중 남학생은 56.8%, 여학생 52.0%로 나타났다.

<표 III-16> 연령별, 성별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x^2	남학생	여학생	x^2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정답	빈도	1040	1821	104.491***	1441	1420	14.778***
		%	38.1	51.0		43.2	48.0	
	오답	빈도	1690	1747		1898	1539	
		%	61.9	49.0		56.8	52.0	
	전체	빈도	2730	3568		3339	2959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소속감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린 연령의 집단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7> 연령별,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학교생활 만족도	M	3.59	3.71	3.65	3.07	3.04	3.06	2.77	2.85	2.81	604.151***	6.808**	4.739**
	SD	.97	.94	.96	.99	.92	.96	1.02	.95	.99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집단, 연령과 성별집단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어릴수록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집단이 높아질수록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집단에서는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여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연령별, 성별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학교에 대한 느낌	M	3.51	3.57	3.54	2.95	2.82	2.89	2.63	2.66	2.65	1217.624***	.511	13.640***
	SD	.76	.75	.76	.73	.68	.71	.73	.72	.7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집단, 연령과 성별집단간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에서 휴학, 지각, 무단결석,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연령별,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M	1.33	1.24	1.28	1.29	1.26	1.28	1.30	2.24	1.29	.240	40.183***	5.181**
	SD	.405	.323	.37	.39	.35	.37	.40	.36	.38			

*p<.05, **p<.01, ***p<.001

● 만족감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성별, 연령과 성별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어린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 집단이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0> 연령별,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삶의 만족도	M	7.21	7.11	7.16	6.10	5.71	5.91	5.54	5.54	5.53	351.486***	8.298**	5.280**
	SD	2.57	2.53	2.55	2..56	2.43	2.51	2.40	2.14	2.2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집단과 연령과 성별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행복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어린 집단일수록 행복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여학생이 행복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중학생 이상 집단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행복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 연령별, 성별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행복도	M	7.54	7.68	7.61	7.07	6.96	7.02	6.85	6.70	6.78	108.174***	.667	3.629*
	SD	2.35	2.28	2.31	2.26	2.19	2.23	2.20	2.03	2.12			

*p<.05, **p<.01, ***p<.001

③ 갈등관리 영역

● 문제 인식 해결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문제 인식 해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집단과 연령과 성별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집단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인

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어린 초등학생 집단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연령별, 성별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문제 해결	M	3.32	3.41	3.37	3.36	3.34	3.35	3.42	3.43	3.43	9.747***	2.776	4.795**
	SD	.79	.74	.77	.71	.69	.70	.70	.64	.67			

*p<.05, **p<.01, ***p<.001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허용도에 대한 전체 문항은 연령과 성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민자 허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허용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에 대한 허용도는 연령별, 연령집단과 성별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도가 높았으며, 초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남학생의 허용도가 더 높았으나,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여학생이 허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허용도는 연령과 성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 대한 허용도는 초등학생보다는 중, 고등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집단에서는 여학생이,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남학생이 허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이민 허용도 역시 연령과 성별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다. 다른 대상과는 달리 연령이 낮을수록 오히려 허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 연령별, 성별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후손들	M	3.23	3.20	3.22	3.28	3.27	3.27	3.30	3.37	3.33	18.275***	.310	3.696*
	SD	.81	.73	.77	.78	.70	.75	.77	.65	.72			
우리민족이 아닌 외국인	M	2.75	2.81	2.78	2.91	2.95	2.93	2.93	2.92	2.93	35.050***	4.102*	1.431
	SD	.85	.78	.82	.79	.66	.73	.75	.60	.69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M	2.67	2.77	2.72	2.63	2.68	2.66	2.61	2.69	2.64	5.839**	15.795***	.508
	SD	.96	.85	.91	.90	.79	.85	.86	.73	.80			
이민자 허용도 (전체)	M	2.71	2.76	2.73	2.82	2.86	2.84	2.85	2.94	2.89	39.505***	14.821***	1.000
	SD	.76	.71	.74	.74	.65	.70	.71	.58	.65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에 대해서는 연령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 집단보다 중학생 집단이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성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문화수준에 대해서는 연령, 성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연령과 성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생 집단보다는 중학생 집단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연령별, 성별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F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연령(A)	남녀(B)	A×B
경제영향	M	5.53	5.41	5.47	5.46	5.27	5.37	2.648	5.855*	.224
	SD	2.33	1.98	2.18	2.28	1.93	2.13			
문화수준	M	5.82	5.98	5.89	5.79	5.76	5.78	3.332	.957	2.020
	SD	2.42	2.16	2.30	2.34	1.96	2.17			
삶의 질	M	5.44	5.32	5.39	5.30	5.12	5.22	6.806**	4.986*	.208
	SD	2.34	2.07	2.22	2.30	1.88	2.12			
외국인 이민자 영향	M	5.58	5.58	5.58	5.49	5.38	5.44	5.363*	.644	.799
	SD	2.01	1.81	1.93	2.02	1.69	1.88			

*p<.05, **p<.01, ***p<.001

●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철수와 영희의 상황에서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연령집단에서 중학생 집단은 33.4%, 고등학생은 38.4%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37.5%, 여학생 34.7%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중학생 66.6%, 고등학생 61.6%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62.5%, 여학생 65.3%로 나타났다.

<표 III-25> 연령별, 성별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x^2	남학생	여학생	x^2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	빈도	924	1382	17.229***	1268	1038	5.336*
		%	33.4	38.4		37.5	34.7	
	오답	빈도	1846	2217		2112	1951	
		%	66.6	61.6		62.5	65.3	
	전체	빈도	2770	3599		3380	2989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또한,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중학생 집단 66.2%, 고등학생 집단 72.5%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65.2%, 여학생 75.0%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중학생 33.8%, 고등학생 27.5%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34.8%, 여학생 25.0%로 나타났다.

<표 III-26> 연령별, 성별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x^2	남학생	여학생	x^2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답	빈도	1834	2611	17.229***	2204	2241	71.785***
		%	66.2	72.5		65.2	75.0	
	오답	빈도	936	988		1176	748	
		%	33.8	27.5		34.8	25.0	
	전체	빈도	2770	3599		3380	2989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한편 본 연구에서는 조망 취득 능력에 대한 발달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공정을 중요시하는 행동과 인정을 중요시하는 행동이 갈등하는 시나리오(교통위반을 적발한 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여하는 것과 부여하지 않는 것)를 제시하고 시나리오의 행동들에 대하여 피조사자들이 얼마나 공적, 혹은 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마지막으로 공정조망의 가치판단 준거(예; 비합리적이다 – 합리적이다 등)와 인정조망(너그럽지 않다 – 너그럽다 등) 가치판단 준거를 대표하는 각각의 형용사들로 양극이 규정된 의미미분척도상에서 얼마나 그 행동이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지를 변별하도록 하였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별, 성별에 따른 공/사 판단에서는 먼저 행위에 대한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공적인 것

으로, 부과하지 않는 행위는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범칙금 부과 행동은 공적인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행동은 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사 판단이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이 관계없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공/사 판단을 더욱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연령별, 성별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벌금부담	모른척하는 행위
중학생	남	5.31(1.75)	2.19(1.54)
	녀	5.58(1.61)	1.86(1.26)
	전체	5.43(1.69)	2.03(1.42)
고등학생	남	5.62(1.64)	2.07(1.48)
	녀	5.88(1.51)	1.76(1.24)
	전체	5.75(1.59)	1.93(1.39)

* 사적이다/공적이다(1-7점)

<표 III-28> 연령별, 성별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연령(A)	32.59	1	32.59	29.17***
성별(B)	2.45	1	2.45	2.19
A ×B	.00	1	.00	.00
오차 a	7037.48	6299	1.12	
집단내				
행위(C)	40581.91	1	40581.91	11678.85***
A × C	134.09	1	134.09	38.59***
B × C	259.35	1	259.35	74.64***
A × B × C	.08	1	.08	.02
오차 b	21887.89	6299	3.47	

*p<.05, **p<.01, ***p<.001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동과 부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호오판단에서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의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과하지 않는 행위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은 두 행위의 선호도의 차이가 고등학생보다 더욱 뚜렷하였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연령별, 성별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벌금부담	모른척하는 행위
중학생	남	4.84(1.74)	2.52(1.64)
	녀	5.09(1.53)	2.22(1.32)
	전체	4.95(1.65)	2.38(1.51)
고등학생	남	4.79(1.58)	2.78(1.63)
	녀	4.98(1.49)	2.53(1.43)
	전체	4.88(1.54)	2.67(1.55)

* 나쁘다/좋다(1-7점)

<표 III-30> 연령별, 성별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연령(A)	33.48	1	33.48	26.12***
성별(B)	2.23	1	2.23	1.74
A ×B	.02	1	.02	.02
오차 a	8071.84	6298	1.28	
집단내				
행위(C)	17891.18	1	17891.18	5045.12***
A × C	102.48	1	102.48	28.90***
B × C	187.94	1	187.94	53.00***
A × B × C	2.32	1	2.32	.65
오차 b	22334.17	6298	3.55	

*p<.05, **p<.01, ***p<.001

한편 공정차원과 인정차원에서 반응한 점수들을 가지고 피조사자들의 공정조망 변별력과 인정조망 변별력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인정조망 보다는 공정조망의 점수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인정과 공정에 대한 조망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정조망 변별력이 증가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III-31> 연령별, 성별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공정	인정
중학생	남	8.74(7.96)	−2.59(8.39)
	녀	10.33(7.22)	−3.35(7.27)
	전체	9.49(7.66)	−2.95(7.89)
고등학생	남	8.62(7.59)	.06(8.11)
	녀	10.13(7.11)	−.59(7.32)
	전체	9.33(7.40)	−.24(7.75)

<표 III-32> 연령별, 성별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연령(A)	5066.10	1	5066.10	128.78***
성별(B)	553.58	1	553.58	14.07***
A ×B	.29	1	.29	.01
오차 a	250396.76	6365	39.34	
집단내				
조망(C)	382375.05	1	382375.05	4929.52***
A × C	6419.44	1	6419.44	82.76***
B × C	3946.03	1	3946.03	50.87***
A × B × C	7.46	1	7.46	.10
오차 b	493923.19	6365	77.57	

*p<.05, **p<.01, ***p<.001

● 다수 정당 존재 이유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집단에 따라 다수 정당 존재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주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연령 집단에서는 중학생 47.1%, 고등학생 47.5%로 나타났으며, 성별 집단에서는 남학생 40.8%, 여학생 54.6%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연령 집단에서 중학생 59.2%, 고등학생 45.4%로 나타났다.

<표 III-33> 연령별, 성별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x^2	남학생	여학생	x^2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답	빈도	1290	1697	.096	1365	1622	120.750***
		%	47.1	47.5		40.8	54.6	
	오답	빈도	1451	1879		1982	1348	
		%	52.9	52.5		59.2	45.4	
	전체	빈도	2741	3576		3347	2970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2) 조망능력에 따른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망능력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차이 분석을 위하여 먼저 전체 조사자들을 그들의 조망능력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를 위해서 조망 측정에서 얻어진 공정차원 변별값(그림 1에서 y)과 인정차원 변별값(그림 1에서 x)이 이용되었다.

전체 조사자들을 각각의 조망에서 변별값의 크기에 따라 나열한 후 각 변별값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각각 나누었다. 그리하여 y값도 높고 x값도 높은 집단(HH), y값은 높고 x값은 낮은 집단(HL), y값은 낮고 x값은 높은 집단(LH), y값도 낮고 x값도 낮은 집단(LL)의 4가지 능

력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LL은 공정과 인정 두 차원의 변별력이 모두 떨어지는 집단이므로 미분화되어 있는 집단이다. 또한 LH는 인정차원에서는 변별력이 있지만 공정차원에서는 변별력이 낮은 집단이며, HL은 공정차원에서는 변별력이 있지만 인정차원에서는 변별력이 낮은 집단이다. 따라서 두 집단은 어떤 한쪽만의 조망 능력이 있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HH는 공정과 인정 두 차원에서 모두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서 두 차원이 분화되어 있고 공정조망과 인정조망 능력이 있으므로 조망 취득이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① 관계 지향성 영역

● 적극적 경청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른 적극적 경청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LL집단보다는 HH집단에서 조망능력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대화에서 더 적극적인 경청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조망능력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경청태도	M	3.61	3.56	3.43	3.44	3.51	33.455***
	SD	.53	.58	.62	.58	.59	

*p<.05, **p<.01, ***p<.001

● 사람 신뢰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른 사람 신뢰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5> 조망능력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사람신뢰	M	5.90	5.79	5.71	5.68	5.77	1.856
	SD	.53	.58	.62	.58	.59	

*p<.05, **p<.01, ***p<.001

●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HH집단보다는 LL집단이 친척과의 만남이 빈번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LH가 HL보다 친척과의 만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조망능력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친척과의 만남	M	2.67	2.93	2.81	3.04	2.85	17.270***
	SD	1.21	1.38	1.28	1.36	1.31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HH가 74.8%, HL이 73.2%, LH가 73.3%, LL이 73.6%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HH가 25.2%, HL이 26.8%, LH가 26.7%, LL이 26.4%로 나타났다.

<표 III-37> 조망능력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구 분			조망능력				x^2
			HH	HL	LH	LL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있다	빈도	1092	1358	1421	787	1.244
		%	74.8	73.2	73.3	73.6	
	없다	빈도	368	496	517	282	
		%	25.2	26.8	26.7	26.4	
	전체	빈도	1460	1854	1938	1069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또래에 비해 사람들과의 사교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LH가 또래에 비해 사교적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으며, HL, LL, HH 순으로 본인이 또래에 비해 사교적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았다.

<표 III-38> 조망능력에 따른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 모임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사교적 모임	M	2.92	3.02	3.04	2.98	3.00	4.203**
	SD	.96	.99	1.00	.97	.9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부모님과의 활동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과의 활동 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HL이 부모님과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LL, HH, LH 순으로 부모님과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고민에 대한 대화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와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에서는 HH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하며, HL, LL, LH 순으로 부모

님과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과의 여가활동과 부모님과의 저녁식사에 대한 활동에서는 LL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며, HL, LH, HH 순으로 부모님과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책・TV・영화에 대한 대화는 HL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며, LL, HH, LH 순으로 부모님과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39> 조망능력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고민에 대한 대화	M	1.82	1.85	1.76	1.78	1.80	2.400
	SD	1.05	1.15	1.04	1.04	1.08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M	2.77	2.65	2.50	2.54	2.61	13.771***
	SD	1.32	1.37	1.29	1.29	1.32	
책,TV,영화에 대한 대화	M	2.12	2.17	2.07	2.13	2.12	2.810*
	SD	1.11	1.19	1.09	1.12	1.13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M	1.85	1.76	1.69	1.70	1.75	8.040***
	SD	1.00	1.00	.93	.97	.98	
여가활동	M	1.82	2.04	1.91	2.08	1.96	18.116***
	SD	.96	1.14	1.01	1.08	1.05	
저녁식사	M	2.92	3.23	2.99	3.27	3.09	22.372***
	SD	1.40	1.45	1.41	1.39	1.42	
부모님과 활동 (전체)	M	2.21	2.28	2.15	2.24	2.22	10.343***
	SD	.76	.84	.75	.77	.78	

*p<.05, **p<.01, ***p<.001

● 공공에 대한 신뢰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HH보다는 LL이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LH가 HL에 비해 공공기관을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와 정당은 HH보다 LL이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사법기관과 경찰서 역시 HH보다 LL에서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나, LH가 HL보다는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는 LL보다 HH가 더 높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조망능력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국회	M	1.87	2.20	2.37	2.98	2.30	56.989***
	SD	1.84	2.14	2.16	2.24	2.12	
사법기관	M	4.20	4.11	3.99	4.46	4.15	7.855***
	SD	2.51	2.66	2.48	2.38	2.53	
경찰서	M	4.27	4.42	4.30	4.75	4.40	7.692***
	SD	2.65	2.81	2.67	2.54	2.69	
정당	M	1.87	2.20	2.50	3.05	2.35	62.291**
	SD	1.89	2.20	2.27	2.31	2.20	
국제연합	M	5.91	5.66	5.20	5.48	5.55	18.137**
	SD	2.65	2.88	2.76	2.65	2.77	
공공기관 신뢰	M	3.54	3.61	3.56	4.01	3.65	16.128***
	SD	1.73	1.91	1.93	1.88	1.88	

*p<.05, **p<.01, ***p<.001

②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 시민의식-정치관심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LL보다는 HH에서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조망능력에 따른 정치 관심 정도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정치관심정도	M	2.70	2.54	2.50	2.43	2.55	24.234**
	SD	.81	.86	.86	.83	.85	

*p<.05, **p<.01, ***p<.001

● 시민의식-종교이해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조망능력에 따라 HH가 97.3%, HL이 93.9%, LH가 90.1%, LL이 89.3%로 나타났다.

<표 III-42> 조망능력에 따른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표

구 분			조망능력				x^2
			HH	HL	LH	LL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있다	빈도	1425	1751	1768	963	87.401*
		%	97.3	93.9	90.1	89.3	
	없다	빈도	40	113	194	115	
		%	2.7	6.1	9.9	10.7	
	전체	빈도	1465	1864	1962	1078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권리 책임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권리 책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조망능력에 따라 HH가 98.1%, HL이 95.1%, LH가 87.2%, LL이 86.9%를 보였고.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HH가 72.1%, HL이 72.0%, LH가 65.0%, LL이 67.1%가 올바른 응답을 보

였으며,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새로운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HH가 89.4%, HL이 85.8%, LH가 79.5%, LL이 75.3%로 나타났다.

<표 III-43> 조망능력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구 분			조망능력				x^2
			HH	HL	LH	LL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1437	1773	1711	937	196.925***
		%	98.1	95.1	87.2	86.9	
	오답	빈도	28	91	251	141	
		%	1.9	4.9	12.8	13.1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정답	빈도	1056	1342	1276	723	30.637***
		%	72.1	72.0	65.0	67.1	
	오답	빈도	409	522	686	355	
		%	27.9	28.0	35.0	32.9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1309	1600	1559	812	114.384***
		%	89.4	85.8	79.5	75.3	
	오답	빈도	156	264	403	266	
		%	10.6	14.2	20.5	24.7	
전체		빈도	1465	1864	1962	1078	–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민주적 절차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민주주의 인식 전체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망능력이 낮을수록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결이 위배되는 상황과 비민주주의성에 모두에서 조망능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망능력이 낮을수록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 조망능력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다수결위배	M	2.30	2.39	2.60	2.67	2.48	30.996***
	SD	1.24	1.21	1.15	1.12	1.19	
비민주주의성	M	2.12	2.31	2.56	2.58	2.39	42.055***
	SD	1.31	1.30	1.34	1.26	1.32	
비민주주의성 (전체)	M	2.21	2.35	2.58	2.62	2.44	53.995***
	SD	1.04	1.03	1.01	.99	1.0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정부가 비민주적인 경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총 보기 4개의 문항 중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인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조망능력에 따라 HH가 59.9%, HL이 43.1%, LH가 42.8%, LL이 34.3%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 외의 오답으로 응답한 경우는 HH가 40.1%, HL이 56.9%, LH가 57.2%, LL이 65.7%로 나타났다.

<표 III-45> 조망능력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구 분			조망능력				x^2
			HH	HL	LH	LL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정답	빈도	872	796	829	364	184.950***
		%	59.9	43.1	42.8	34.3	
	오답	빈도	584	1050	1106	697	
		%	40.1	56.9	57.2	65.7	
	전체	빈도	1456	1846	1935	1061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소속감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HL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HH, LL, LH 순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46> 조망능력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학교생활 만족도	M	2.94	2.95	2.86	2.92	2.91	3.288*
	SD	.97	1.00	1.00	.92	.9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LL이 학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HL, HH, LH 순으로 학교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조망능력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학교에 대한 느낌	M	2.76	2.78	2.71	2.79	2.75	3.830**
	SD	.74	.75	.72	.68	.7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LH가 학교생활에서 휴학, 지각, 무단결석,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L, HL, HH 순으로 학교생활에 징계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조망능력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M	1.25	1.26	1.33	1.31	1.28	18.645***
	SD	.32	.33	.44	.39	.38	

*p<.05, **p<.01, ***p<.001

● 만족감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LH가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 점수를 보여 주었고, LL이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HH와 HL은 같은 삶의 만족도 점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9> 조망능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삶의 만족도	M	5.77	5.77	5.57	5.69	5.69	2.634*
	SD	2.30	2.48	2.40	2.29	2.3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HL의 행복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HH, LL LH 순으로 행복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조망능력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행복도	M	7.03	7.05	6.69	6.70	6.88	12.379***
	SD	2.06	2.23	2.21	2.13	2.17	

*p<.05, **p<.01, ***p<.001

③ 갈등 관리 영역

● 문제 인식 해결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문제 인식 해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망능력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조망능력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문제해결	M	3.52	3.43	3.33	3.28	3.40	36.566***
	SD	.65	.71	.69	.64	.69	

*p<.05, **p<.01, ***p<.001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허용도에 대한 전체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HH의 이민자 허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HL, LL, LH 순으로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에 대한 허용도와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허용도에서는 조망능력이 높을수록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이민 허용도는 다른 대상과는 달리 LL이 가장 높은 허용도를 보였으며, HH, LH, HL 순으로 이민자에 대해 더 높은 허용도를 보였다.

<표 III-52> 조망능력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후손들	M	3.48	3.33	3.22	3.19	3.31	45.260***
	SD	.66	.73	.78	.68	.73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	M	2.98	2.93	2.90	2.90	2.93	3.706*
	SD	.67	.74	.72	.65	.70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M	2.68	2.61	2.63	2.71	2.65	3.362*
	SD	.79	.87	.82	.77	.82	
이민자 허용도 (전체)	M	2.98	2.85	2.82	2.83	2.87	17.853***
	SD	.60	.71	.70	.64	.67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조망능력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경제영향, 문화수준, 삶의 질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망능력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LH가 LL에 비하여 근소한 차이로 낮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문화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망능력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표 III-53> 조망능력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조망능력					F
		HH	HL	LH	LL	전체	
경제영향	M	5.69	5.39	5.28	5.29	5.42	8.703***
	SD	2.13	2.25	2.16	1.94	2.15	
문화수준	M	6.14	5.83	5.66	5.65	5.83	11.966***
	SD	2.16	2.35	2.20	2.09	2.23	
삶의 질	M	5.51	5.27	5.18	5.17	5.29	5.395**
	SD	2.17	2.28	2.11	1.99	2.16	
외국인 이민자 영향	M	5.78	5.50	5.36	5.31	5.50	10.747***
	SD	1.85	2.01	1.87	1.77	1.90	

*p<.05, **p<.01, ***p<.001

●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철수와 영희의 상황에서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조망능력에 따라 HH가 45.3%, HL이 35.5%, LH가 34.1%, LL이 28.8%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HH가 54.7%, HL이 64.5%, LH가 65.9%, LL이 71.2%로 나타났다.

<표 III-54> 조망능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구 분			조망능력				x^2
			HH	HL	LH	LL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	빈도	664	661	670	311	82.033***
		%	45.3	35.5	34.1	28.8	
	오답	빈도	801	1203	1292	767	
		%	54.7	64.5	65.9	71.2	
	전체	빈도	1465	1864	1962	1078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또한,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조망능력에 따라 HH가 80.9%, HL이 70.7%, LH가 64.6%, LL이 62.6%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HH가 19.1%, HL이 29.3%, LH가 35.4%, LL이 37.4%로 나타났다.

<표 III-55> 조망능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구 분			조망능력				x^2
			HH	HL	LH	LL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답	빈도	1185	1318	1267	675	137.925***
		%	80.9	70.7	64.6	62.6	
	오답	빈도	280	546	695	403	
		%	19.1	29.3	35.4	37.4	
	전체	빈도	1465	1864	1962	1078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다수 정당 존재 이유

조사대상자의 조망능력에 따라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항 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조망능력에 따라 HH가 52.6%, HL이 50.0%, LH가 42.6%, LL이 43.9%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HH가 47.4%, HL이 50.0%, LH가 57.4%, LL이 56.1%로 나타났다.

<표 III-56> 조망능력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구 분			조망능력				x^2
			HH	HL	LH	LL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답	빈도	766	926	828	467	43.687***
		%	52.6	50.0	42.6	43.9	
	오답	빈도	691	927	1116	596	
		%	47.4	50.0	57.4	56.1	
	전체	빈도	1457	1853	1944	1063	
		%	100.0	100.0	100.0	100.0	

*p<.05, **p<.01, ***p<.001

(3) 아버지 학력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차이 분석

① 관계 지향성

● 적극적 경청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적극적 경청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학력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대화에서 더 적극적인 경청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부학력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경청태도	M	3.44	3.45	3.53	3.49	22.639***
	SD	.65	.59	.61	.60	

*p<.05, **p<.01, ***p<.001

● 사람 신뢰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타인을 대우하는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

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학력이 높을수록 타인을 신뢰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부학력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사람신뢰	M	5.26	5.86	6.16	5.99	28.314***
	SD	2.47	2.41	2.53	2.49	

*p<.05, **p<.01, ***p<.001

●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친척과의 만남 빈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학력이 높을수록 친척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으며 친척과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 부학력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친척과의 만남	M	2.90	2.99	3.10	3.04	8.573***
	SD	1.40	1.38	1.36	1.37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부학력은 고등이하 73.1%, 고졸 73.4%, 대학이상 75.1%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부학력은 고등이하 26.9%, 고졸 26.6%, 대학이상 24.9%로 나타났다.

<표 III-60> 부학력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구 분			부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있다	빈도	294	2074	2105	2.442
		%	73.1	73.4	75.1	
	없다	빈도	108	753	698	
		%	26.9	26.6	24.9	
	전체	빈도	402	2827	2803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또래에 비해 사람들과의 사교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적 모임의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았다.

<표 III-61> 부학력에 따른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 모임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사교적 모임	M	2.92	2.96	3.06	3.00	7.803***
	SD	.98	.97	.99	.9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부모님과의 활동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과의 활동 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고민에 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TV・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부모님과의 여가활동에 대한 활동들은 모두 부학력이 대학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졸 집단, 고등이하 집단 순으로 활

동의 빈도가 나타났다. 즉, 부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녁식사에 대한 활동에서는 부학력이 대학이상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이하 집단, 고졸 집단 순으로 활동의 빈도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62> 부학력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고민에 대한 대화	M	1.67	1.79	1.96	1.87	32.113***
	SD	.99	1.07	1.16	1.1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M	2.42	2.59	2.90	2.74	64.259***
	SD	1.29	1.32	1.39	1.37	
책,TV,영화 대화	M	1.94	2.11	2.24	2.17	23.066***
	SD	1.10	1.12	1.18	1.15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M	1.58	1.71	1.88	1.79	37.904***
	SD	.88	.86	1.05	1.01	
여가활동	M	1.88	2.00	2.23	2.11	50.023***
	SD	1.13	1.07	1.16	1.13	
저녁식사	M	3.21	3.20	3.39	3.30	18.155***
	SD	1.51	1.44	1.42	1.44	
부모님과 활동 (전체)	M	2.11	2.23	2.42	2.32	77.439***
	SD	.76	.78	.83	.81	

*p<.05, **p<.01, ***p<.001

● 공공에 대한 신뢰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학력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 경찰서, 정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사법기관, 국제연합에서는 부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63> 부학력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국회	M	2.16	2.26	2.33	2.29	1.496
	SD	2.06	2.10	2.15	2.12	
사법기관	M	3.96	4.06	4.27	4.15	5.732**
	SD	2.54	2.47	2.57	2.53	
경찰서	M	4.33	4.40	4.42	4.40	.268
	SD	2.72	2.65	2.69	2.67	
정당	M	2.24	2.34	2.36	2.34	.501
	SD	2.17	2.19	2.20	2.20	
국제연합	M	5.31	5.33	5.81	5.56	21.421***
	SD	2.89	2.74	2.73	2.76	
공공기관 신뢰	M	3.44	3.56	3.76	3.65	10.036***
	SD	1.87	1.86	1.87	1.87	

*p<.05, **p<.01, ***p<.001

②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 시민의식-정치관심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4> 부학력에 따른 정치 관심 정도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정치관심정도	M	2.41	2.51	2.63	2.56	25.626***
	SD	.88	.85	.85	.85	

*p<.05, **p<.01, ***p<.001

● 시민의식-종교이해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부학력에 따라 고등이하 집단 92.1%, 고졸 집단 92.5%, 대학이상 집단 93.0%로 나타났다.

<표 III-65> 부학력에 따른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표

구 분			부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빈도	375	2632	2627	.831
		%	92.1	92.5	93.0	
	오답	빈도	32	214	197	
		%	7.9	7.5	7.0	
	전체	빈도	407	2846	2824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권리 책임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권리 책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부학력에 따라 고등이하 집단은 89.9%, 고졸 집단은 46.5%, 대학이상 집단은 47.0%를 보였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학력에 따라 고등이하 집단 66.1%, 고졸 집단 69.1%, 대학이상 집단 69.5%가 올바른 응답을 보였다.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새로운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부학력에 따라 고등이하 집단 82.1%, 고졸 집단 82.2%, 대학이상 집단 84.4%로 나타났다.

<표 III-66> 부학력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구 분			부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366	2601	2628	8.142*
		%	89.9	46.5	47.0	
	오답	빈도	41	245	196	
		%	10.1	8.6	6.9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정답	빈도	269	1967	1963	13947
		%	66.1	69.1	69.5	
	오답	빈도	138	879	861	
		%	33.9	30.9	30.5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334	2339	2384	5.478
		%	82.1	82.2	84.4	
	오답	빈도	73	507	440	
		%	17.9	17.8	15.6	
전체		빈도	407	2846	2824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민주적 절차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민주주의 인식 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학력이 낮을수록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결이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민주주의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학력이 낮을수록 더 비민주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67> 부학력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다수결위배	M	2.47	2.50	2.45	2.48	1.165
	SD	1.14	1.17	1.22	1.19	
비민주주의성	M	2.51	2.44	2.31	2.38	9.444***
	SD	1.32	1.30	1.33	1.32	
비민주주의성 (전체)	M	2.49	2.47	2.38	2.43	6.321**
	SD	1.02	1.01	1.05	1.0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정부가 비민주적인 경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총 보기 4개의 문항 중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인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부학력은 고등이하 41.0%, 고졸 43.4%, 대학이상 49.2%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 외의 오답으로 응답한 경우는 고등이하 59.0%, 고졸 56.6%, 대학이상 50.8%로 나타났다.

<표 III-68> 부학력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구 분			부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정답	빈도	165	1224	1373	23.170***
		%	41.0	43.4	49.2	
	오답	빈도	237	1597	1418	
		%	59.0	56.6	50.8	
	전체	빈도	402	2821	2791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소속감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학력이 높

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69> 부학력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학교생활 만족도	M	2.91	3.04	3.22	3.12	43.730***
	SD	1.04	1.00	1.04	1.0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III-70> 부학력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학교에 대한 느낌	M	2.75	2.89	3.07	2.98	68.114***
	SD	.78	.79	.85	.82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학력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서 휴학, 지각, 무단결석,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 부학력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M	1.35	1.29	1.27	1.28	10.549***
	SD	.45	.38	.36	.37	

*p<.05, **p<.01, ***p<.001

● 만족감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표 III-72> 부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삶의 만족도	M	5.61	5.91	6.36	6.13	40.169***
	SD	2.48	2.52	2.50	2.52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73> 부학력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행복도	M	6.76	7.03	7.19	7.10	9.988***
	SD	2.34	2.23	2.23	2.23	

*p<.05, **p<.01, ***p<.001

③ 갈등관리 영역

● 문제 인식 해결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문제 인식 해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학력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4> 부학력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문제해결	M	3.29	3.35	3.45	3.40	27.605***
	SD	.73	.69	.71	.71	

*p<.05, **p<.01, ***p<.001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허용도에 대한 전체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민자 허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허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학력이 높을수록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이민 허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I-75> 부학력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	M	3.24	3.27	3.30	3.29	2.68.
	SD	.74	.73	.75	.74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	M	2.84	2.86	2.91	2.89	5.638**
	SD	.76	.74	.73	.74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M	2.68	2.67	2.67	2.67	.027
	SD	.81	.85	.85	.85	
이민자 허용도 (전체)	M	2.77	2.82	2.86	2.84	6.954**
	SD	.71	.69	.68	.69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학력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경제 영향, 문화수준,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학력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6> 부학력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부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경제영향	M	4.89	5.29	5.57	5.41	16.014***
	SD	2.20	2.15	2.13	2.15	
문화수준	M	5.51	5.75	5.91	5.82	4.974**
	SD	2.26	2.22	2.23	2.23	
삶의 질	M	4.79	5.14	5.46	5.28	17.122***
	SD	2.15	2.15	2.15	2.16	
외국인 이민자 영향	M	4.99	5.38	5.64	5.49	15.304***
	SD	1.94	1.90	1.88	1.90	

*p<.05, **p<.01, ***p<.001

●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철수와 영희의 상황에서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부학력 집단은 고등이하 집단 33.9%, 고졸 집단 44.4%, 대학이상 집단 49.3%였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고등이하 집단 66.1%, 고졸 집단 65.4%, 대학이상 집단 61.3%로 나타났다.

<표 III-77> 부학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구 분			부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철수는 자신의 죄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	빈도	138	985	1094	11.679**
		%	33.9	44.4	49.3	
	오답	빈도	269	1861	1730	
		%	66.1	65.4	61.3	
	전체	빈도	407	2846	2824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또한,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부학력은 고등이하 집단 63.4%, 고졸 집단 68.6%, 대학이상 집단 72.6%였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고등이하 36.6%, 고졸 31.4%, 대학이상 27.4%로 나타났다.

<표 III-78> 부학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구 분			부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답	빈도	258	1951	2050	20.354***
		%	63.4	68.6	72.6	
	오답	빈도	149	895	774	
		%	36.6	31.4	27.4	
	전체	빈도	407	2846	2824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학력에 따른 공/사 판단에서는 먼저 행위에 대한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공적인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행위는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학력이 높을수록 범칙금 부과 행동은 공적인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은 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9> 부학력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안함
고등이하	5.32(1.75)	2.17(1.58)
고졸	5.54(1.66)	2.03(1.41)
대학이상	5.78(1.57)	1.85(1.33)
전체	5.63(1.63)	1.96(1.39)

* 사적이다/공적이다(1-7점)

<표 III-80> 부학력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부학력(A)	5.59	2	2.80	2.57
오차 a	6539.32	6018	1.09	
집단내				
행위(B)	17476.03	1	17476.03	5040.81***
A × B	182.77	2	91.38	26.36***
오차 b	20863.87	6018	3.47	

*p<.05, **p<.01, ***p<.001

부학력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동과 부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호오판단에서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의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과하지 않는 행위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이 높을수록 선호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동을 좋게 보고, 부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 부학력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안함
고등이하	4.81(1.58)	2.70(1.63)
고졸	4.86(1.59)	2.54(1.52)
대학이상	5.02(1.57)	2.51(1.52)
전체	4.93(1.58)	2.54(1.53)

* 나쁘다/좋다(1-7점)

<표 III-82> 부학력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부학력(A)	11.43	2	5.71	4.52*
오차 a	7613.45	6018	1.27	
집단내				
행위(B)	7490.99	1	7490.99	2103.40***
A × B	45.40	2	22.70	6.37**
오차 b	21432.33	6018	3.56	

*p<.05, **p<.01, ***p<.001

한편 공정차원과 인정차원에서 반응한 점수들을 가지고 피조사자들의 공정조망 변별력과 인정조망 변별력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인정조망 보다는 공정조망의 점수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인정과 공정에 대한 조망의 차이는 부학력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학력이 높을수록 공정조망 변별력의 증가는 뚜렷이 나타났지만, 인정조망 변별력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83> 부학력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공정	인정
고등이하	8.28(8.23)	−1.17(8.20)
고졸	9.13(7.44)	−1.64(7.80)
대학이상	9.98(7.35)	−1.13(7.98)
전체	9.47(7.47)	−1.37(7.91)

<표 III-84> 부학력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부학력(A)	1523.34	2	761.67	19.01***
오차 a	243391.40	6074	40.07	
집단내				
행위(B)	155109.02	1	155109.02	1988.50***
A × B	503.31	2	251.65	3.23*
오차 b	473791.34	6047	78.00	

*p<.05, **p<.01, ***p<.001

● 다수 정당 존재 이유

조사대상자의 부학력에 따라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항 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부학력은 고등이하 43.0%, 고졸 47.1%, 대학이상 48.5%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고등이하 57.0%, 고졸 52.9%, 대학이상 51.5%로 나타났다.

<표 III-85> 부학력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구 분			부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답	빈도	172	1332	1359	4.515
		%	43.0	47.1	48.5	
	오답	빈도	228	1496	1444	
		%	57.0	52.9	51.5	
	전체	빈도	400	2828	2803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4) 어머니학력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차이 분석

① 관계 지향성

● 적극적 경청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적극적 경청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학력이 고졸, 대학이상, 고등이하 순으로 타인과의 대화에서 더 적극적인 경청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6> 모학력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경청태도	M	3.48	3.67	3.53	3.49	9.462***
	SD	.63	.59	.61	.60	

*p<.05, **p<.01, ***p<.001

● 사람 신뢰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타인을 대우하는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

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학력이 높을수록 타인을 신뢰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7> 모학력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사람신뢰	M	5.31	5.89	6.23	6.00	30.994***
	SD	2.32	2.43	2.55	2.49	

*p<.05, **p<.01, ***p<.001

●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친척과의 만남 빈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학력이 높을수록 친척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으며 친척과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8> 모학력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친척과의 만남	M	2.82	2.96	3.15	3.03	22.669***
	SD	1.42	1.34	1.38	1.37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모학력은 고등이하 73.5%, 고졸 73.9%, 대학이상 75.2%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모학력은 고등이하 26.5%, 고졸 26.1%, 대학이상 24.8%로 나타났다.

<표 III-89> 모학력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구 분			모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있다	빈도	322	2566	1573	1.325
		%	73.5	73.9	75.2	
	없다	빈도	116	907	519	
		%	26.5	26.1	24.8	
	전체	빈도	438	3473	2092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또래에 비해 사람들과의 사교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적 모임의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았다.

<표 III-90> 모학력에 따른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 모임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사교적 모임	M	2.83	2.99	3.06	3.01	10.204***
	SD	.97	.97	1.00	.99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부모님과의 활동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과의 활동 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모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TV・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부모님과의 여가활동, 부모님과의 저녁식사에 대한 활동들은 모두 모학력이 대학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졸 집단, 고등이하 집단 순으로 활동의 빈도

가 나타났다. 즉, 모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과의 고민에 대한 대화는 모학력이 대학 이상인 집단에서 오히려 가장 낮은 활동 빈도를 보였으며, 고졸 집단에서 부모님과 고민에 대한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1> 모학력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고민에 대한 대화	M	1.75	1.81	1.65	1.87	25.746***
	SD	1.06	1.08	1.17	1.1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M	2.47	2.64	2.92	2.74	52.920***
	SD	1.29	1.34	1.40	1.37	
책,TV,영화 대화	M	1.98	2.12	2.27	2.17	24.308***
	SD	1.10	1.12	1.19	1.15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M	1.66	1.73	1.88	1.79	26.283***
	SD	.93	.97	1.06	1.01	
여가활동	M	1.90	2.03	2.25	2.11	45.364***
	SD	1.10	1.10	1.17	1.13	
저녁식사	M	3.18	3.19	3.44	3.29	31.529***
	SD	1.51	1.44	1.40	1.44	
부모님과 활동 (전체)	M	2.14	2.25	2.45	2.32	73.431***
	SD	.74	.79	.83	.81	

*p<.05, **p<.01, ***p<.001

● 공공에 대한 신뢰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모학력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서, 정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국회, 사법기관, 국제연합에서는 모학력이 높은 집단일수

록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92> 모학력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국회	M	2.22	2.23	2.39	2.28	3.674*
	SD	2.01	2.09	2.17	2.12	
사법기관	M	3.95	4.07	4.30	4.14	6.109**
	SD	2.50	2.49	2.59	2.53	
경찰서	M	4.38	4.36	4.43	4.39	.345
	SD	2.64	2.65	2.74	2.69	
정당	M	2.20	2.31	2.41	2.34	2.082
	SD	2.11	2.18	2.24	2.20	
국제연합	M	5.37	5.40	5.85	5.56	17.099***
	SD	2.96	2.72	2.77	2.76	
공공기관 신뢰	M	3.50	3.57	3.79	3.64	10.350***
	SD	1.86	1.85	1.90	1.87	

*p<.05, **p<.01, ***p<.001

②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 시민의식-정치관심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모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3> 모학력에 따른 정치 관심 정도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정치관심정도	M	2.48	2.52	2.65	2.57	23.973***
	SD	.84	.84	.85	.85	

*p<.05, **p<.01, ***p<.001

● 시민의식-종교이해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모학력에 따라 고등이하 집단 93.0%, 고졸 집단 93.1%, 대학이상 집단 92.0%로 나타났다.

<표 III-94> 모학력에 따른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표

구 분			모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빈도	413	3253	1944	2.541
		%	93.0	93.1	92.0	
	오답	빈도	31	240	169	
		%	7.0	6.9	8.0	
	전체	빈도	444	3493	2113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권리 책임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권리 책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모학력에 따라 고등이하 집단은 89.6%, 고졸 집단은 92.4%, 대학이상 집단은 92.2%를 보였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학력에 따라 고등이하 집단 68.9%, 고졸 집단 69.8%, 대학이상 집단 68.2%가 올바른 응답을 보였다.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새로운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모학력에 따라 고등이하 집단 81.3%, 고졸 집단 83.1%, 대학이상 집단 83.5%로 나타났다.

<표 III-95> 모학력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구 분			모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398	3229	1948	4.284
		%	89.6	92.4	92.2	
	오답	빈도	46	264	165	
		%	10.4	7.6	7.8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정답	빈도	306	2439	1442	1.563
		%	68.9	69.8	68.2	
	오답	빈도	138	1054	671	
		%	31.1	30.2	31.8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361	2904	1765	1.295
		%	81.3	83.1	83.5	
	오답	빈도	83	589	348	
		%	18.7	16.9	16.5	
전체		빈도	444	3493	2113	–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민주적 절차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민주주의 인식 전체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결이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비민주주의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학력이 낮을수록 더 비민주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96> 모학력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다수결위배	M	2.45	2.48	2.46	2.47	.395
	SD	1.13	1.20	1.21	1.20	
비민주주의성	M	2.53	2.40	2.32	2.38	5.680**
	SD	1.32	1.31	1.33	1.32	
비민주주의성 (전체)	M	2.49	2.44	2.39	2.43	2.607
	SD	1.00	1.03	1.05	1.04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정부가 비민주적인 경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총 보기 4개의 문항 중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인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모학력은 고등이하 42.0%, 고졸 45.5%, 대학이상 47.3%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 외의 오답으로 응답한 경우는 고등이하 58.0%, 고졸 54.5%, 대학이상 52.7%로 나타났다.

<표 III-97> 모학력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구 분			모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정답	빈도	185	1569	990	4.681
		%	42.0	45.5	47.3	
	오답	빈도	256	1882	1103	
		%	58.0	54.5	52.7	
	전체	빈도	441	3451	2093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소속감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

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모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98> 모학력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학교생활만족도	M	2.94	3.03	3.27	3.12	60.638***
	SD	1.03	1.00	1.04	1.0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모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III-99> 모학력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학교에 대한 느낌	M	2.74	2.88	3.13	2.98	115.403***
	SD	.79	.79	.85	.82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모학력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서 휴학, 지각, 무단결석,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0> 모학력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M	1.32	1.28	1.27	1.28	4.522*
	SD	.44	.37	.36	.37	

*p<.05, **p<.01, ***p<.001

● 만족감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모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표 III-101> 모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삶의 만족도	M	5.62	5.94	6.46	6.13	51.717***
	SD	2.43	2.49	2.53	2.52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모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2> 모학력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행복도	M	6.77	7.04	7.23	7.10	12.402***
	SD	2.23	2.20	2.26	2.23	

*p<.05, **p<.01, ***p<.001

③ 갈등관리 영역

● 문제 인식 해결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문제 인식 해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학력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3> 모학력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문제해결	M	3.27	3.36	3.47	3.40	31.557***
	SD	.73	.69	.72	.71	

*p<.05, **p<.01, ***p<.001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허용도에 대한 전체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이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이민 허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허용도는 모학력이 높을수록 허용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104> 모학력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	M	3.27	3.28	3.30	3.29	.485
	SD	.73	.73	.75	.74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	M	2.84	2.87	2.92	2.89	4.603*
	SD	.76	.73	.75	.74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M	2.72	2.66	2.67	2.67	.841
	SD	.85	.83	.86	.85	
이민자 허용도 (전체)	M	2.80	2.83	2.86	2.84	2.514
	SD	.71	.69	.69	.69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모학력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경제 영향, 문화수준,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모학력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5> 모학력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모학력				F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전체	
경제영향	M	5.13	5.31	5.61	5.41	11.687***
	SD	2.21	2.12	2.19	2.16	
문화수준	M	5.59	5.78	5.96	5.83	4.901**
	SD	2.16	2.23	2.25	2.23	
삶의 질	M	4.89	5.19	5.51	5.29	14.666***
	SD	2.16	2.12	2.22	2.17	
외국인 이민자 영향	M	5.18	5.41	5.69	5.50	12.538***
	SD	1.90	1.86	1.96	1.91	

*p<.05, **p<.01, ***p<.001

●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철수와 영희의 상황에서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모학력에 따라 고등이하 집단 34.0%, 고졸 집단 35.7%, 대학이상 집단 38.0%였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고등이하 집단 66.0%, 고졸 집단 64.3%, 대학이상 집단 62.0%로 나타났다.

<표 III-106> 모학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구 분			모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철수는 자신의 죄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	빈도	151	1248	803	4.122
		%	34.0	35.7	38.0	
	오답	빈도	293	2245	1310	
		%	66.0	64.3	62.0	
	전체	빈도	444	3493	2113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또한,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모학력은 고등이하 집단 61.7%, 고졸 집단 70.3%, 대학이상 집단 71.7%였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고등이하 38.3%, 고졸 29.7%, 대학이상 33.1%로 나타났다.

<표 III-107> 모학력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구 분			모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답	빈도	274	2455	1516	17.704***
		%	61.7	70.3	71.7	
	오답	빈도	170	1038	597	
		%	38.3	29.7	33.1	
	전체	빈도	444	3493	2113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학력에 따른 공/사 판단에서는 먼저 행위에 대한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공적인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행위는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학력이 높을수록 범칙금 부과 행동은 공적인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행동은 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8> 모학력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안함
고등이하	5.53(1.64)	2.13(1.50)
고졸	5.60(1.63)	1.96(1.38)
대학이상	5.74(1.61)	1.91(1.39)
전체	5.64(1.63)	1.96(1.39)

* 사적이다/공적이다(1-7점)

<표 III-109> 모학력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모학력(A)	4.79	2	2.39	2.20
오차 a	6516.85	5990	1.09	
집단내				
행위(B)	19452.16	1	19452.16	5577.05***
A × B	42.99	2	21.50	6.16**
오차 b	20892.50	5990	3.49	

*p<.05, **p<.01, ***p<.001

모학력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동과 부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호오판단에서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의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과하지 않는 행위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학력과 호오판단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0> 모학력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안함
고등이하	4.92(1.51)	2.61(1.51)
고졸	4.89(1.59)	2.53(1.52)
대학이상	5.02(1.59)	2.54(1.56)
전체	4.93(1.58)	2.54(1.53)

* 나쁘다/좋다(1-7점)

<표 III-111> 모학력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모학력(A)	11.74	2	1.27	4.64*
오차 a	7581.13	5990	1.27	
집단내				
행위(B)	8400.40	1	8400.40	2348.71***
A × B	11.60	2	5.80	1.52
오차 b	21423.88	5990	3.58	

*p<.05, **p<.01, ***p<.001

한편 공정차원과 인정차원에서 반응한 점수들을 가지고 피조사자들의 공정조망 변별력과 인정조망 변별력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인정조망 보다는 공정조망의 점수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인정과 공정에 대한 조망의 차이와 모학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III-112> 모학력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공정	인정
고등이하	8.75(7.65)	-2.03(8.24)
고졸	9.42(7.40)	-1.42(7.86)
대학이상	9.76(7.59)	-1.20(8.03)
전체	9.49(7.49)	-1.39(7.95)

<표 III-113> 모학력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모학력(A)	657.25	2	328.63	8.15***
오차 a	243759.19	6047	40.31	
집단내				
행위(B)	176179.53	1	176179.53	2232.20***
A × B	11.99	2	5.99	.08
오차 b	477268.78	6047	78.93	

*p<.05, **p<.01, ***p<.001

● 다수 정당 존재 이유

조사대상자의 모학력에 따라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항 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모학력은 고등이하 41.7%, 고졸 47.8%, 대학이상 48.1%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고등이하 58.3%, 고졸 52.2%, 대학이상 51.9%로 나타났다.

<표 III-114> 모학력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구 분			모학력			x^2
			고등이하	고졸	대학이상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답	빈도	183	1654	1010	6.335*
		%	41.7	47.8	48.1	
	오답	빈도	256	1809	1090	
		%	58.3	52.2	51.9	
	전체	빈도	439	3463	2100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5) 경제수준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차이 분석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적극적 경청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높음, 낮음, 보통 순으로 타인과의 대화에서 더 적극적인 경청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관계 지향성

● 적극적 경청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적극적 경청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높음, 낮음, 보통 순으로 타인과의 대화에서 더 적극적인 경청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5> 경제수준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경청태도	M	3.45	3.44	3.56	3.48	37.963***
	SD	.60	.60	.61	.61	

*p<.05, **p<.01, ***p<.001

● 사람 신뢰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타인을 대우하는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을 신뢰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6> 경제수준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사람신뢰	M	5.32	5.91	6.46	5.98	91.217***
	SD	2.51	2.39	2.54	2.49	

*p<.05, **p<.01, ***p<.001

● 주변 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친척과의 만남 빈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친척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으며 친척과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7> 경제수준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친척과의 만남	M	2.79	3.01	3.26	3.05	57.667***
	SD	1.39	1.33	1.40	1.3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제수준은 낮음 69.5%, 보통 73.8%, 높음 77.0%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제수준은 낮음 30.5%, 보통 26.2%, 높음 23.0%로 나타났다.

<표 III-118> 경제수준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구 분			경제수준			x^2
			낮음	보통	높음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있다	빈도	921	2447	1238	21.278***
		%	69.5	73.8	77.0	
	없다	빈도	404	868	369	
		%	30.5	26.2	23.0	
	전체	빈도	1325	3315	1607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또래에 비해 사람들과의 사교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적 모임의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았다.

<표 III-119> 경제수준에 따른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 모임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사교적 모임	M	2.82	2.99	3.15	2.99	36.713***
	SD	1.06	.94	.99	.9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부모님과의 활동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과의 활동 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고민에 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TV・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부모님과의 여가활동, 부모님과의 저녁식사에 대한 모든 활동들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통, 낮음 집단

순으로 활동의 빈도가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0>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고민에 대한 대화	M	1.65	1.82	2.04	1.86	66.309***
	SD	1.01	1.08	1.20	1.11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M	2.38	2.68	2.99	2.72	102.683***
	SD	1.30	1.35	1.39	1.37	
책,TV,영화 대화	M	1.98	2.12	2.33	2.16	50.274***
	SD	1.12	1.14	1.19	1.16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M	1.64	1.69	1.99	1.78	91.945***
	SD	.95	.94	1.11	1.01	
여가활동	M	1.78	2.05	2.40	2.11	171.088***
	SD	1.03	1.07	1.21	1.13	
저녁식사	M	2.92	3.29	3.56	3.31	98.034***
	SD	1.48	1.43	1.38	1.44	
부모님과 활동 (전체)	M	2.05	2.27	2.54	2.31	200.287***
	SD	.76	.78	.84	.81	

*p<.05, **p<.01, ***p<.001

● 공공에 대한 신뢰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 사법기관, 경찰서, 정당, 국제연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121> 경제수준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국회	M	2.07	2.34	2.39	2.30	9.169***
	SD	2.05	2.11	2.19	2.12	
사법기관	M	3.83	4.14	4.40	4.15	17.134***
	SD	2.48	2.46	2.67	2.53	
경찰서	M	4.04	4.42	4.65	4.40	18.074***
	SD	2.61	2.66	2.77	2.69	
정당	M	2.16	2.39	2.41	2.35	5.444**
	SD	2.09	2.20	2.28	2.20	
국제연합	M	5.13	5.44	6.08	5.55	44.631***
	SD	2.77	2.69	2.84	2.77	
공공기관 신뢰	M	3.34	3.64	3.90	3.64	31.968***
	SD	1.82	1.85	1.91	1.87	

*p<.05, **p<.01, ***p<.001

②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 시민의식-정치관심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가장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낮음, 보통 집단 순으로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 경제수준에 따른 정치 관심 정도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정치관심정도	M	2.53	2.48	2.69	2.55	49.053***
	SD	.87	.84	.84	.85	

*p<.05, **p<.01, ***p<.001

● 시민의식-종교이해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경제수준에 따라 낮음 집단 93.0%, 보통 집단 92.7%, 높음 집단 92.6%로 나타났다.

<표 III-123> 경제수준에 따른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표

구 분			경제수준			x^2
			낮음	보통	높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빈도	1242	3098	1497	.163
		%	93.0	92.7	92.6	
	오답	빈도	94	243	120	
		%	7.0	7.3	7.4	
	전체	빈도	1336	3341	1617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권리 책임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권리 책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경제수준에 따라 낮음 집단은 92.5%, 보통 집단은 91.9%, 높음 집단은 91.9%를 보였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에 따라 낮음 집단 66.9%, 보통 집단 69.9%, 높음 집단 69.3%가 올바른 응답을 보였다.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새로운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경제수준에 따라 낮음 집단 84.1%, 보통 집단 83.1%, 높음 집단 82.1%로 나타났다.

<표 III-124> 경제수준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구 분			경제수준			x^2
			낮음	보통	높음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1236	3070	1486	.557
		%	92.5	91.9	91.9	
	오답	빈도	100	271	131	
		%	7.5	8.1	8.1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정답	빈도	894	2335	1121	3.998
		%	66.9	69.9	69.3	
	오답	빈도	442	1006	496	
		%	33.1	30.1	30.7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1124	2775	1327	2.221
		%	84.1	83.1	82.1	
	오답	빈도	212	566	290	
		%	15.9	16.9	17.9	
전체		빈도	1336	3341	1617	–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민주적 절차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민주주의 인식 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결이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민주주의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이 낮을수록 더 비민주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5> 경제수준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다수결위배	M	2.49	2.49	2.45	2.48	.516
	SD	1.21	1.19	1.20	1.20	
비민주주의성	M	2.50	2.40	2.29	2.39	10.023***
	SD	1.40	1.30	1.31	1.32	
비민주주의성 (전체)	M	2.49	2.44	2.37	2.44	5.539**
	SD	1.05	1.03	1.03	1.0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정부가 비민주적인 경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총 보기 4개의 문항 중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인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경제수준에 따라 낮음 44.9%, 보통 45.3%, 높음 46.5%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 외의 오답으로 응답한 경우는 낮음 55.1%, 보통 54.7%, 높음 53.5%로 나타났다.

<표 III-126> 경제수준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구 분			경제수준			x^2
			낮음	보통	높음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정답	빈도	596	1498	741	.834
		%	44.9	45.3	46.5	
	오답	빈도	730	1808	853	
		%	55.1	54.7	53.5	
	전체	빈도	1326	3306	1594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소속감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경제수

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7>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학교생활만족도	M	2.85	3.10	3.35	3.13	129.689***
	SD	1.01	.99	1.07	1.0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III-128>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학교에 대한 느낌	M	2.73	2.95	3.19	2.99	165.845***
	SD	.78	.78	.87	.82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서 휴학, 지각, 무단결석,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9> 경제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M	1.34	1.28	1.26	1.28	23.566***
	SD	.42	.37	.35	.37	

*p<.05, **p<.01, ***p<.001

● 만족감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0> 경제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삶의 만족도	M	5.03	6.04	6.92	6.14	286.277***
	SD	2.56	2.40	2.45	2.5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1> 경제수준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행복도	M	6.49	7.04	7.55	7.10	110.538***
	SD	2.39	2.18	2.16	2.24	

*p<.05, **p<.01, ***p<.001

③ 갈등관리 영역

● 문제 인식 해결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문제 인식 해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2> 경제수준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문제해결	M	3.34	3.34	3.49	3.39	45.092***
	SD	.73	.79	.73	.71	

*p<.05, **p<.01, ***p<.001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허용도에 대한 전체 문항 및 구체적인 문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에 대한 이민 허용도는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3> 경제수준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	M	3.33	3.27	3.27	3.28	3.750*
	SD	.72	.73	.77	.74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	M	2.87	2.87	2.91	2.88	2.266
	SD	.74	.73	.76	.74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M	2.68	2.67	2.67	2.67	.051
	SD	.83	.83	.89	.85	
이민자 허용도 (전체)	M	2.85	2.81	2.84	2.83	2.682
	SD	.68	.70	.70	.70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경제 영향,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134> 경제수준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경제수준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경제영향	M	5.29	5.33	5.64	5.41	10.124***
	SD	2.18	2.12	2.19	2.16	
문화수준	M	5.76	5.79	5.93	5.82	1.879
	SD	2.21	2.20	2.31	2.23	
삶의 질	M	5.10	5.25	5.50	5.29	9.282***
	SD	2.15	2.09	2.30	2.17	
외국인 이민자 영향	M	5.35	5.44	5.69	5.49	7.913***
	SD	1.89	1.86	1.97	1.91	

*p<.05, **p<.01, ***p<.001

●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철수와 영희의 상황에서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경제수준은 낮음 35.2%, 보통 36.3%, 높음 37.0%였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낮음 64.8%, 보통 63.7%, 높음 63.0%로 나타났다.

<표 III-135> 경제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구 분			경제수준			x^2
			낮음	보통	높음	
철수는 자신의 죄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	빈도	470	1214	599	1.112
		%	35.2	36.3	37.0	
	오답	빈도	866	2127	1018	
		%	64.8	63.7	63.0	
	전체	빈도	1336	3341	1617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또한,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경제수준은 낮음 68.3%, 보통 69.7%, 높음 71.3%였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낮음 31.7%, 보통 30.3%, 높음 28.7%로 나타났다.

<표 III-136> 경제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구 분			경제수준			x^2
			낮음	보통	높음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답	빈도	913	3341	1617	3.103
		%	68.3	69.7	71.3	
	오답	빈도	423	1012	464	
		%	31.7	30.3	28.7	
	전체	빈도	1336	3341	1617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수준에 따른 공/사 판단에서는 먼저 행위에 대한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공적인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행위는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의 경제수준을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집단보다는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범칙금 부과 행동은 공적인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행동은 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7> 경제수준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안함
낮음	5.67(1.64)	1.96(1.41)
보통	5.55(1.65)	2.00(1.40)
높음	5.71(1.61)	1.91(1.39)
전체	5.62(1.64)	1.97(1.40)

* 사적이다/공적이다(1-7점)

<표 III-138> 경제수준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경제수준(A)	4.07	2	2.04	1.82
오차 a	6949.30	6227	1.12	
집단내				
행위(B)	36254.88	1	36254.88	10271.90***
A × B	39.14	2	19.57	5.54**
오차 b	21978.32	6227	3.53	

*p<.05, **p<.01, ***p<.001

경제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동과 부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호오판단에서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의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과하지 않는 행위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의 경제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범칙금 부과 행동과 부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표 III-139> 경제수준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안함
낮음	4.92(1.58)	2.58(1.57)
보통	4.85(1.59)	2.54(1.52)
높음	5.04(1.59)	2.51(1.55)
전체	4.91(1.59)	2.54(1.54)

* 나쁘다/좋다(1-7점)

<표 III-140> 경제수준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경제수준(A)	14.93	2	7.47	5.81**
오차 a	7998.43	6227	1.28	
집단내				
행위(B)	15285.21	1	15285.21	4248.11***
A × B	24.39	2	12.20	3.39*
오차 b	22405.51	6227	3.60	

*p<.05, **p<.01, ***p<.001

한편 공정차원과 인정차원에서 반응한 점수들을 가지고 피조사자들의 공정조망 변별력과 인정조망 변별력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인정조망보다는 공정조망의 점수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인정과 공정에 대한 조망의 차이와 경제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III-141> 경제수준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공정	인정
낮음	9.36(7.63)	-1.26(8.05)
보통	9.19(7.5)	-1.48(7.75)
높음	9.89(7.44)	-1.41(8.19)
전체	9.40(7.52)	-1.42(7.93)

<표 III-142> 경제수준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경제수준(A)	338.40	2	169.20	4.21*
오차 a	253051.23	6291	40.22	
집단내				
행위(B)	318587.42	1	618587.42	4029.18***
A × B	247.92	2	123.96	1.57
오차 b	497429.48	6291	79.07	

*p<.05, **p<.01, ***p<.001

● 다수 정당 존재 이유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항 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경제수준은 낮음 46.0%, 보통 48.2%, 높음 46.5%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낮음 54.0%, 보통 51.8%, 높음 53.5%로 나타났다.

<표 III-143> 경제수준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구 분			경제수준			x^2
			낮음	보통	높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답	빈도	611	1598	744	2.290
		%	46.0	48.2	46.5	
	오답	빈도	717	1719	855	
		%	54.0	51.8	53.5	
	전체	빈도	1328	3317	1599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6) 학업수준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차이 분석

① 관계 지향성

● 적극적 경청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적극적 경청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인 경청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4> 학업수준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경청태도	M	3.38	3.46	3.66	3.48	145.824***
	SD	.62	.57	.61	.61	

*p<.05, **p<.01, ***p<.001

● 사람 신뢰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타인을 대우하는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을 신뢰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5> 학업수준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사람신뢰	M	5.52	5.93	6.68	5.98	122.726***
	SD	2.41	2.43	2.54	2.49	

*p<.05, **p<.01, ***p<.001

●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친척과의 만남 빈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친척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으며 친척과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6> 학업수준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친척과의 만남	M	2.90	3.08	3.24	3.05	37.575***
	SD	1.39	1.35	1.37	1.3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있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학업수준은 낮음 71.3%, 보통 74.4%, 높음 75.9%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학업수준은 낮음 28.7%, 보통 25.6%, 높음 24.1%로 나타났다.

<표 III-147> 학업수준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구 분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있다	빈도	1639	1614	1379	12.312**
		%	71.3	74.4	75.9	
	없다	빈도	561	555	437	
		%	28.7	25.6	24.1	
	전체	빈도	2300	2169	1816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또래에 비해 사람들과의 사교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적 모임의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았다.

<표 III-148> 학업수준에 따른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 모임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사교적 모임	M	2.94	3.00	3.07	3.00	8.591***
	SD	1.02	.94	.99	.9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부모님과의 활동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과의 활동 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고민에 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TV・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부모님과의 여가활동, 부모님과의 저녁식사에 대한 모든 활동들에서 학업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통, 낮음 집단 순으로 활동의 빈도가 나타났다. 즉, 학업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9> 학업수준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고민에 대한 대화	M	1.71	1.86	2.09	1.86	81.521***
	SD	1.03	1.09	1.23	1.11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M	2.42	2.73	3.16	2.72	202.677***
	SD	1.30	1.34	1.40	1.37	
책,TV,영화 대화	M	2.02	2.14	2.41	2.16	74.666***
	SD	1.13	1.10	1.24	1.16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M	1.61	1.77	2.04	1.77	124.454***
	SD	.89	.99	1.14	1.01	
여가활동	M	1.90	2.12	2.40	2.11	135.744***
	SD	1.06	1.10	1.20	1.13	
저녁식사	M	3.03	3.33	3.70	3.31	150.838***
	SD	1.44	1.42	1.36	1.44	
부모님과 활동 (전체)	M	2.11	2.32	2.62	2.31	287.083***
	SD	.76	.77	.85	.81	

*p<.05, **p<.01, ***p<.001

● 공공에 대한 신뢰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법기관, 경찰서, 국제연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국회와 정당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법기관과 경찰서는 학업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국제연합은 높음, 낮음, 보통 순으로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III-150> 학업수준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국회	M	2.26	2.31	2.34	2.30	.755
	SD	2.15	2.08	2.13	2.12	
사법기관	M	2.26	2.31	2.34	2.30	21.063***
	SD	2.15	2.08	2.13	2.12	
경찰서	M	3.94	4.11	4.46	4.15	10.217***
	SD	2.53	2.44	2.61	2.53	
정당	M	4.21	4.43	4.60	4.40	.181
	SD	2.74	260	2.71	2.69	
국제연합	M	2.36	2.33	2.37	2.35	87.191***
	SD	2.25	2.15	2.22	2.20	
공공기관 신뢰	M	5.02	5.53	6.20	5.56	36.933***
	SD	2.77	2.67	2.74	2.76	

*p<.05, **p<.01, ***p<.001

②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 시민의식-정치관심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1> 학업수준에 따른 정치 관심 정도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정치관심정도	M	2.38	2.58	2.77	2.56	139.550***
	SD	.85	.82	.84	.85	

*p<.05, **p<.01, ***p<.001

● 시민의식-종교이해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학업수준에 따라 낮음 90.4%, 보통 93.6%, 높음 94.7%로 나타났다.

<표 III-152> 학업수준에 따른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표

구 분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빈도	2102	2047	1726	31.661***
		%	90.4	93.6	94.7	
	오답	빈도	222	139	96	
		%	9.6	6.4	5.3	
	전체	빈도	2324	2186	1822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권리 책임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권리 책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학업수준에 따라 낮음 89.8%, 보통 92.7%, 높음 94.1%를 보였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업수준에 따라 낮음 67.5%, 보통 69.6%, 높음 70.3%가 올바른 응답을 보였다.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새로운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학업수준에 따라 낮음 81.1%, 보통 84.1%, 높음 84.0%로 나타났다.

<표 III-153> 학업수준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구 분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2086	2027	1822	28.131***
		%	89.8	92.7	94.1	
	오답	빈도	238	159	108	
		%	10.2	7.3	5.9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정답	빈도	1568	1521	1281	4.343
		%	67.5	69.6	70.3	
	오답	빈도	756	665	541	
		%	32.5	30.4	29.7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1885	1839	1531	9.210**
		%	81.1	84.1	84.0	
	오답	빈도	439	347	291	
		%	18.9	15.9	16.0	
전체		빈도	2324	2186	1822	–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민주적 절차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민주주의 인식 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업수준이 낮을수록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결이 위배되는 상황과 비민주주의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업수준이이 낮을수록 비민주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54> 학업수준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다수결위배	M	2.52	2.48	2.42	2.48	3.547*
	SD	1.16	1.19	1.23	1.19	
비민주주의성	M	2.56	2.36	2.21	2.39	37.285***
	SD	1.30	1.30	1.34	1.32	
비민주주의성 (전체)	M	2.54	2.42	2.31	2.43	24.427***
	SD	1.02	1.03	1.04	1.0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정부가 비민주적인 경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총 보기 4개의 문항 중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인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학업수준에 따라 낮음 39.8%, 보통 47.5%, 높음 50.3%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 외의 오답으로 응답한 경우는 낮음 60.2%, 보통 52.5%, 높음 49.7%로 나타났다.

<표 III-155> 학업수준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구 분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정답	빈도	913	1030	907	50.455***
		%	39.8	47.5	50.3	
	오답	빈도	1381	1137	896	
		%	60.2	52.5	49.7	
	전체	빈도	2294	2167	1803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소속감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업수

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56>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학교생활 만족도	M	2.38	2.58	2.77	2.56	289.014***
	SD	.85	.82	.84	.85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III-157>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학교에 대한 느낌	M	2.72	3.01	3.38	2.99	483.571***
	SD	.75	.76	.86	.82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서 휴학, 지각, 무단결석,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8>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M	1.36	1.25	1.21	1.28	119.960***
	SD	.43	.33	.37	.37	

*p<.05, **p<.01, ***p<.001

● 만족감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표 III-159> 학업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삶의 만족도	M	5.39	6.22	7.08	6.14	301.222***
	SD	2.48	2.38	2.49	2.5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160> 학업수준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행복도	M	6.68	7.11	7.69	7.10	130.940***
	SD	2.32	2.16	2.12	2.24	

*p<.05, **p<.01, ***p<.001

③ 갈등관리 영역

● 문제 인식 해결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문제 인식 해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1> 학업수준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문제해결	M	3.25	3.36	3.64	3.39	204.548***
	SD	.70	.68	.72	.71	

*p<.05, **p<.01, ***p<.001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허용도에 대한 전체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에 대한 허용도와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허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허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62> 학업수준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	M	3.22	3.28	3.38	3.28	30.115***
	SD	.75	.73	.74	.74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	M	2.85	2.88	2.93	2.88	7.076**
	SD	.75	.72	.76	.74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M	2.66	2.66	2.71	2.67	2.718
	SD	.85	.83	.88	.85	
이민자 허용도 (전체)	M	2.78	2.83	2.90	2.83	17.785***
	SD	.72	.67	.69	.70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경제 영향, 문화수준,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3> 학업수준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경제영향	M	5.12	5.39	5.74	5.42	30.137***
	SD	2.16	2.06	2.20	2.15	
문화수준	M	5.69	5.76	6.05	5.83	10.959***
	SD	2.25	2.13	2.28	2.22	
삶의 질	M	5.06	5.26	5.56	5.29	19.403***
	SD	2.22	2.06	2.18	2.16	
외국인 이민자 영향	M	5.24	5.45	5.79	5.50	26.204***
	SD	1.92	1.81	1.93	1.90	

*p<.05, **p<.01, ***p<.001

●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철수와 영희의 상황에서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학업수준은 낮음 35.0%, 보통 36.0%, 높음 38.0%였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낮음 65.0%, 보통 64.0%, 높음 62.0%로 나타났다.

<표 III-164> 학업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구 분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철수는 자신의 죄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	빈도	813	786	692	4.047
		%	35.0	36.0	38.0	
	오답	빈도	1511	1400	1130	
		%	65.0	64.0	62.0	
	전체	빈도	2324	2186	1822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또한,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팔요가 있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학업수준은 낮음 63.6%, 보통 70.9%, 높음 76.7%였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낮음 36.4%, 보통 29.1%, 높음 23.3%로 나타났다.

<표 III-165> 학업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구 분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답	빈도	1479	1550	1397	84.068***
		%	63.6	70.9	76.7	
	오답	빈도	845	636	425	
		%	36.4	29.1	23.3	
	전체	빈도	2324	2186	1822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업수준에 따른 공/사 판단에서는 먼저 행위에 대한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공적인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행위는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범칙금 부과 행동은 공적인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행동은 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6> 학업성적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집단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안함
낮음	5.34(1.70)	2.20(1.52)
보통	5.67(1.61)	1.93(1.34)
높음	5.89(1.55)	1.74(1.27)
전체	5.61(1.64)	1.97(1.40)

* 사적이다/공적이다(1-7점)

<표 III-167> 학업성적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학업성적(A)	4.35	2	2.17	1.93
오차 a	7048.42	6267	1.12	
집단내				
행위(B)	41958.17	1	41958.17	12144.38***
A × B	529.27	2	264.64	76.60***
오차 b	21652.14	6267	3.45	

*p<.05, **p<.01, ***p<.001

학업성적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동과 부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호오판단에서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의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과하지 않는 행위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선호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동을 좋게 보고, 부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8> 학업성적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안함
낮음	4.77(1.60)	2.62(1.56)
보통	4.92(1.55)	2.53(1.51)
높음	5.09(1.60)	2.46(1.53)
전체	4.91(1.59)	2.54(1.54)

* 나쁘다/좋다(1-7점)

<표 III-169> 학업성적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학업성적(A)	13.13	2	6.57	5.11**
오차 a	8054.99	6266	1.29	
집단내				
행위(B)	17701.65	1	17701.65	4950.00***
A × B	117.91	2	58.96	16.49***
오차 b	22407.80	6266	3.58	

*p<.05, **p<.01, ***p<.001

한편 공정차원과 인정차원에서 반응한 점수들을 가지고 피조사자들의 공정조망 변별력과 인정조망 변별력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인정조망 보다는 공정조망의 점수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인정과 공정에 대한 조망의 차이는 학업성적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공정조망 변별력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났다.

<표 III-170> 학업성적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공정	인정
낮음	8.34(7.78)	−1.94(7.64)
보통	9.56(7.30)	−1.33(7.97)
높음	10.58(7.24)	−.80(8.19)
전체	9.40(7.52)	−1.40(7.93)

<표 III-171> 학업성적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학업성적(A)	5943.13	2	2971.57	75.57***
오차 a	248877.83	6329	39.32	
집단내				
행위(B)	368516.20	1	698516.20	4662.93***
A × B	618.10	2	309.05	3.91*
오차 b	500187.09	6329	79.03	

*p<.05, **p<.01, ***p<.001

● 다수 정당 존재 이유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에 따라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항 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학업수준은 낮음 45.8%, 보통 46.6%, 높음 50.1%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낮음 54.2%, 보통 53.4%, 높음 49.9%로 나타났다.

<표 III-172> 학업수준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구 분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답	빈도	1053	1011	908	8.275*
		%	45.8	46.6	50.1	
	오답	빈도	1246	1160	904	
		%	54.2	53.4	49.9	
	전체	빈도	2299	2171	1812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7) 학업수준(사회영역)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차이 분석

① 관계 지향성

● 적극적 경청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적극적 경청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대화에서 더 적극적인 경청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3>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적극적 경청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경청태도	M	3.37	3.47	3.63	3.48	131.356***
	SD	.61	.58	.60	.61	

*p<.05, **p<.01, ***p<.001

● 사람 신뢰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타인을 대우하는 태도에 대

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을 신뢰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4>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사람 신뢰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사람 신뢰	M	5.50	5.98	6.48	5.98	83.436***
	SD	2.50	2.38	2.55	2.50	

*p<.05, **p<.01, ***p<.001

●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친척과의 만남 빈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친척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으며 친척과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5>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친척과의 만남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친척과의 만남	M	2.98	3.08	3.12	3.06	6.118**
	SD	1.40	1.35	1.39	1.3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은 낮음 71.1%, 보통 75.2%, 높음 74.6%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은 낮음 28.9%, 보통 24.8%, 높음 25.4%로 나타났다.

<표 III-176>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개인적인 문제 상의 대상 교차표

구 분			사회영역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있다	빈도	1618	1815	1439	11.223**
		%	71.1	75.2	74.6	
	없다	빈도	657	598	365	
		%	28.9	24.8	25.4	
	전체	빈도	2275	2413	1439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또래에 비해 사람들과의 사교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177>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사교적 모임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사교적 모임	M	2.98	3.01	3.02	3.00	.806
	SD	1.01	.95	1.06	.98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부모님과의 활동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과의 활동 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고민에 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TV・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부모님과의 여가활동, 부모님과의 저녁식사에 대한 모든 활동들에서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통, 낮음 집단 순으로 활동의 빈도가 나타났다. 즉,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8>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부모님과의 활동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고민에 대한 대화	M	1.71	1.88	2.01	1.86	49.662***
	SD	1.04	1.11	1.19	1.1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M	2.44	2.74	3.02	2.72	122.149***
	SD	1.31	1.36	1.39	1.37	
책, TV, 영화 대화	M	2.01	2.17	2.35	2.17	58.005***
	SD	1.11	1.13	1.22	1.16	
정치, 사회적 주제 대화	M	1.58	1.77	2.02	1.78	129.856***
	SD	.87	.99	1.13	1.01	
여가활동	M	1.95	2.12	2.30	2.12	65.718***
	SD	1.08	1.10	1.20	1.13	
저녁식사	M	3.12	3.32	3.50	3.32	63.395***
	SD	1.46	1.41	1.40	1.44	
부모님과 활동 (전체)	M	2.13	2.33	2.53	2.32	175.202***
	SD	.75	.79	.85	.81	

*p<.05, **p<.01, ***p<.001

● 공공에 대한 신뢰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 정당, 국제연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법기관과 경찰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회와 정당은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국제연합에서는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III-179>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공공기관 신뢰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국회	M	2.44	2.33	2.10	2.31	11.110***
	SD	2.20	2.10	2.04	2.13	
사법기관	M	4.08	4.20	4.26	4.17	2.324
	SD	2.53	2.51	2.59	2.54	
경찰서	M	4.44	4.41	4.38	4.41	.186
	SD	2.74	2.63	2.71	2.69	
정당	M	2.46	2.38	2.20	2.36	5.672**
	SD	2.26	2.17	2.21	2.21	
국제연합	M	5.16	5.55	6.13	5.55	51.333***
	SD	2.76	2.71	2.76	2.77	
공공기관 신뢰	M	3.57	3.67	3.77	3.66	5.164**
	SD	1.93	1.85	1.83	1.88	

*p<.05, **p<.01, ***p<.001

②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 시민의식-정치관심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0>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정치 관심 정도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정치 관심 정도	M	2.30	2.57	2.81	2.55	233.844***
	SD	.84	.81	.84	.85	

*p<.05, **p<.01, ***p<.001

● 시민의식-종교이해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낮음 집단 90.8%, 보통 집단 93.5%, 높음 집단 94.8%로 나타났다.

<표 III-181>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종교 이해에 대한 교차표

구 분			사회영역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빈도	2085	2273	1373	23.768***
		%	90.8	93.5	94.8	
	오답	빈도	210	158	75	
		%	9.2	6.5	5.2	
	전체	빈도	2295	2431	1448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권리 책임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시민의식 중에서 권리 책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낮음 집단은 90.1%, 보통 집단은 92.3%, 높음 집단은 94.2%를 보였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낮음 집단 67.5%, 보통 집단 70.1%, 높음 집단 69.7%가 올바른 응답을 보였다.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새로운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은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낮음 집단 81.2%, 보통 집단 83.4%, 높음 집단 84.5%로 나타났다.

<표 III-182>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권리 책임 교차표

구 분			사회영역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2067	2244	1364	21.240***
		%	90.1	92.3	94.2	
	오답	빈도	228	187	84	
		%	9.9	7.7	5.8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정답	빈도	1548	1705	1009	4.355
		%	67.5	70.1	69.7	
	오답	빈도	747	726	439	
		%	32.5	29.9	30.3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정답	빈도	1864	2027	1223	7.412*
		%	81.2	83.4	84.5	
	오답	빈도	431	404	225	
		%	18.8	16.6	15.5	
전체		빈도	2295	2431	1448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시민의식-민주적 절차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민주주의 인식 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낮을수록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결이 위배되는 상황과 비민주주의성 모두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이 낮을수록 더 비민주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83>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민주적 절차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다수결 위배	M	2.54	2.45	2.44	2.48	4.43**
	SD	1.17	1.17	1.26	1.19	
비민주주의성	M	2.55	2.37	2.20	2.39	32.259***
	SD	1.34	1.28	1.34	1.32	
비민주주의성 (전체)	M	2.54	2.41	2.32	2.44	22.744***
	SD	1.04	1.01	1.06	1.04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정부가 비민주적인 경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총 보기 4개의 문항 중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인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낮음 38.0%, 보통 48.0%, 높음 51.9%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 외의 오답으로 응답한 경우는 낮음 62.0%, 보통 52.0%, 높음 48.1%로 나타났다.

<표 III-184>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교차표

구 분			사회영역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정답	빈도	861	1157	744	80.613***
		%	38.0	48.0	51.9	
	오답	빈도	1403	1252	690	
		%	62.0	52.0	48.1	
	전체	빈도	2264	2409	1434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 소속감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85>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학교생활 만족도	M	2.96	3.14	3.34	3.14	87.803***
	SD	1.03	1.00	1.05	1.0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III-186>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에 대한 느낌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학교에 대한 느낌	M	2.79	3.00	3.21	2.99	182.622***
	SD	.77	.79	.87	.82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서 휴학, 지각, 무단결석,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7>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M	1.35	1.26	1.22	1.28	88.285***
	SD	.43	.34	.33	.38	

*p<.05, **p<.01, ***p<.001

● 만족감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표 III-188>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삶의 만족도	M	5.51	6.22	6.74	6.15	153.306***
	SD	2.57	2.39	2.52	2.53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189>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행복도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행복도	M	6.75	7.14	7.44	7.10	61.930***
	SD	2.34	2.16	2.19	2.25	

*p<.05, **p<.01, ***p<.001

③ 갈등관리 영역

● 문제 인식 해결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문제 인식 해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0>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문제인식해결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문제해결	M	3.24	3.36	3.59	3.39	171.898***
	SD	.70	.67	.73	.71	

*p<.05, **p<.01, ***p<.001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허용도에 대한 전체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과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91>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	M	3.17	3.27	3.41	3.28	64.040***
	SD	.76	.73	.72	.74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	M	2.84	2.87	2.94	2.88	13.313***
	SD	.78	.71	.75	.74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M	2.65	2.66	2.70	2.67	1.917
	SD	.86	.83	.86	.85	
이민자허용도 (전체)	M	2.75	2.82	2.91	2.82	37.217***
	SD	.73	.67	.68	.70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이민자의 영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경제영향, 문화수준, 삶의 질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영역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2>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외국인이민자의 영향 평균비교

		사회영역 학업성적				F
		낮음	보통	높음	전체	
경제영향	M	5.23	5.41	5.65	5.41	12.556***
	SD	2.18	2.07	2.22	2.15	
문화수준	M	5.74	5.79	5.99	5.83	4.631**
	SD	2.26	2.14	2.30	2.23	
삶의 질	M	5.12	5.23	5.59	5.29	15.559***
	SD	2.20	2.09	2.18	2.16	
외국인이민자 영향	M	5.33	5.46	5.74	5.50	13.316***
	SD	1.93	1.83	1.93	1.90	

*p<.05, **p<.01, ***p<.001

●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철수와 영희의 상황에서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은 낮음 35.4%, 보통 34.2%, 높음 40.1%였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낮음 64.6%, 보통 65.8%, 높음 59.9%로 나타났다.

<표 III-193>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1) 교차표

구 분			사회영역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철수는 자신의 죄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	빈도	813	831	580	14.141**
		%	35.4	34.2	40.1	
	오답	빈도	1482	1600	868	
		%	64.6	65.8	59.9	
	전체	빈도	2295	2431	1448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또한,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총 4개의 보기 문항 중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은 낮음 63.4%, 보통 70.7%, 높음 77.2%였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낮음 36.6%, 보통 29.3%, 높음 22.8%로 나타났다.

<표 III-194>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ICCS 인지도 검사(2) 교차표

구 분			사회영역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답	빈도	1454	1719	1118	83.172***
		%	63.4	70.7	77.2	
	오답	빈도	841	712	330	
		%	36.6	29.3	22.8	
	전체	빈도	2295	2431	1448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영역 학업성적에 따른 공/사 판단에서는 먼저 행위에 대한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공적인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행위는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영역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범칙금 부과 행동에 대해서는 공적인 것으로, 부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5> 사회영역 학업성적에 따른 공/사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안함
낮음	5.39(1.71)	2.15(1.49)
보통	5.61(1.62)	1.96(1.38)
높음	5.92(1.55)	1.75(1.29)
전체	5.60(1.65)	1.98(1.41)

* 사적이다/공적이다(1-7점)

<표 III-196> 사회영역 학업성적에 따른 공/사 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사회영역 학업성적(A)	6.99	2	3.50	3.08*
오차 a	6934.33	6110	1.13	
집단내				
행위(B)	39413.29	1	39413.29	11253.73***
A × B	383.93	2	191.96	54.81***
오차 b	21398.71	6110	3.50	

*p<.05, **p<.01, ***p<.001

사회영역 학업성적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동과 부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호오판단에서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의 주 효과가 나타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과하지 않는 행위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영역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서 범칙금 부과 또는 부과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좋고 나쁨의 차이가 더 뚜렷이 나타났다.

<표 III-197> 사회영역 학업성적에 따른 호오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안함
낮음	4.82(1.62)	2.53(1.53)
보통	4.88(1.54)	2.58(1.53)
높음	5.11(1.62)	2.47(1.56)
전체	4.91(1.59)	2.54(1.54)

* 나쁘다/좋다(1-7점)

<표 III-198> 사회영역 학업성적에 따른 호오판단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사회영역 학업수준(A)	24.73	2	12.36	9.59***
오차 a	7877.42	6109	1.29	
집단내				
행위(B)	16799.76	1	16799.76	4681.08***
A × B	61.74	2	30.87	8.60***
오차 b	21924.39	6109	3.59	

*p<.05, **p<.01, ***p<.001

한편 공정차원과 인정차원에서 반응한 점수들을 가지고 피조사자들의 공정조망 변별력과 인정조망 변별력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인정조망 보다는 공정조망의 점수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인정과 공정에 대한 조망의 차이와 사회영역 학업성적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III-199> 사회영역 학업성적에 따른 조망능력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공정	인정
낮음	8.72(7.68)	−2.15(7.76)
보통	9.30(7.46)	−1.44(7.73)
높음	10.59(7.29)	−.44(8.35)
전체	9.38(7.54)	−1.47(7.91)

<표 III-200> 사회영역 학업성적에 따른 조망능력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사회영역 학업성적(A)	5681.52	2	2840.76	73.04***
오차 a	240011.83	6171	38.89	
집단내				
행위(B)	346136.59	1	346136.59	4348.54***
A × B	36.87	2	18.44	.23
오차 b	492101.42	4191	79.60	

*p<.05, **p<.01, ***p<.001

● 다수 정당 존재 이유

조사대상자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라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수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항 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라고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의 사회영역 학업수준은 낮음 44.5%, 보통 47.3%, 높음 51.1%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오답을 응답한 학생들은 낮음 55.4%, 보통 52.7%, 높음 48.9%로 나타났다.

<표 III-201> 사회영역 학업수준에 따른 다수정당 존재이유 교차표

구 분			사회영역 학업성적			x^2
			낮음	보통	높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답	빈도	1014	1141	736	15.018**
		%	44.6	47.3	51.1	
	오답	빈도	1258	1273	703	
		%	55.4	52.7	48.9	
	전체	빈도	2272	2414	1439	
		%	100.0	100.0	100.0	

*p<.05, **p<.01, ***p<.001

Ⅳ. 핵심역량 교육의 뉴질랜드 사례 분석

1. 배경
2.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의 연계
3. 뉴질랜드 핵심역량교육의 비전 및 지원 체제
4. 뉴질랜드 핵심역량 중심 교육의 시사점

Ⅳ. 핵심역량 교육의 뉴질랜드 사례 분석

1. 배경

뉴질랜드는 핵심역량에 기반을 둔 교육 체제를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뉴질랜드는 2002년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핵심역량 정의에 기반을 두어 2003년 5월에 뉴질랜드 정부는 1989년에 시작된 15년의 교육개혁을 평가하고, '뉴질랜드의 교육 우선성(Education Priorities for New Zealand)'에 의한 교육개혁을 재시도하였다. 2003년에 설정한 교육 개혁의 목표는 2가지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는 뉴질랜드인의 21세기 기술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뉴질랜드 교육 체제에서 발생하는 성취의 하향화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2004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으로서 유아교육과 직업 교육 영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전략 토론 보고서(A Schooling Strategy Discussion Document)'에 기초한 법률 및 행동 제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뉴질랜드는 교육 관장부처를 중앙 부처인 교육부와 관련 6개 독립 교육기관으로 구성·개편하였다. 즉,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The Education Review Office, The Teachers Council, The Tertiary Education의 4개 기관을 구성하였고, 또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와 밀접하게 연계된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성하여,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2006년 뉴질랜드는 교육개정법(Eduation Amendment Act)을 제정하여 2003년 이후 진행된 교육개혁과 2007년 개정된 생애 핵심역량에 기초한 개정 국가교육과정(New Zealand National Curriculum)의 적용을 위한 법률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다.

뉴질랜드에서 정의된 핵심역량은 다문화(백인과 마오리족 및 남태평양인종), 특수아 및 아시아 이민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발되었다. 특히, 뉴질랜드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자국민을 넘어선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 개발에 초점을 둔 교육 선진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국가교육 체제의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생애 핵심능력은 성향(dispositions) 중심의 핵심역량으로 정의되었으며, 영유아교육에서 성인기 이후의 직업교육까지의 생애 연속적인 생애 핵심역량으로 개발되었다(NZ Ministry of Education, 2007). 뉴질랜드의 성향 중심의 생애 핵심역량은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및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과 대학 및 직업 교육(territory education)의 교육과정과 체제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뉴질랜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1993년에 정의된 8가지 '핵심기술(essential skills)'을 5가지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으로 대치하였다. 뉴질랜드가 설정한 핵심역량은 '일과 학업의 습관(work and study habits)'으로 정의된 성향(dispositions) 중심의 정의와 연계하여 개념화 하였다(Hipkins, 2006). 뉴질랜드인의 생애핵심역량의 개발은 유아교육의 생애초기 핵심역량에서 시작하여 대학 및 직업교육, 평생교육과 연계된 생애 핵심역량 학습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전 생애의 연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Wylie, Hodgen, Ferral, & Thompson, 2006).

2.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의 연계

뉴질랜드는 교육법(Education Act with Amendment)에 의하여 1998년 뉴질랜드 국민이 유아기부터 성인기의 유아교육에서 대학 및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학습영역과 기술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1999년 뉴질랜드는 교육법에 기초한 7가지 핵심학습영역(essential learning areas)과

8가지 핵심기술(essential skills)을 설정하여 만 3세에 시작하는 유아교육에서 성인기의 대학 및 직업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왔다. 1989년 교육법에 기초하여 국가 교육지침서, 국가 교육목적, 국가 행정지침서를 구성하고 국가 교육과정의 원칙, 가치, 핵심역량과 학습 영역 및 성취 목표를 설정하였다.

2002년 뉴질랜드는 교육법에 의하여 설정한 8가지 핵심기술을 생애핵심역량으로 대치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 OECD DeSeCo에서 정의하여 설정한 3가지 생애 핵심역량과 기존의 8가지 핵심기술을 연계하여 5가지 '생애능력(key competencies)'을 설정하고 7가지 핵심 학습영역과 연계된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였다.

뉴질랜드의 국가교육과정에 적용되기 위하여 정의된 생애핵심역량은 2002년 교육과정 현황조사 보고서(Curriculum Stack Report)에 기초하여 1999년 뉴질랜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교육 방향을 반영하였다. 2002년 뉴질랜드 교육과정 현황 보고서는 1999년 설정된 8가지 핵심기술의 영역을 축소하고 핵심역량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아교육에서 대학 및 직업교육에 적용할 모든 국가 교육과정 영역에 '태도(attitudes)'와 '가치(values)'를 핵심기술 내용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2년 이후, 개발되어 새롭게 정의된 뉴질랜드의 5가지 생애핵심역량은 사고하기, 언어 · 상징 · 텍스트 사용하기, 자기 관리하기, 참여하기와 기여하기, 타인과 관계 짓기로 구성되었다(Hipkins, 2006). 뉴질랜드 생애능력과 학교 및 대학교육, 유아교육과의 연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생애초기 핵심역량과 연계된 핵심역량 학습자로서 성인교육까지 연계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ylie, Hodgen, Ferral, & Thompson, 2006).

<표 IV-1> 생애 핵심역량과 학교와 대학교육, 유아교육의 연계

핵심역량	학교와 대학교육	유아교육
사고하기	사고하기	탐구
언어, 상징, 텍스트 사용하기	상호작용을 통한 도구사용	의사소통
자기 관리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안녕
참여하기와 기여하기		소속
타인과 관계 짓기	사회집단에서 조작하기	기여

*자료: Hipkins, R. (2006). The Nature of the key competencies: A Background paper의 내용을 재구성

● 사고하기(Thinking)

생각하는 것은 정보, 경험, 생각의 감각을 만들기 위한 창조적, 비판적, 초인지적인 과정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지식을 구성하거나 또는 활동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하며, 이해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적용될 수 있다. 지적인 호기심은 이러한 능력들의 핵심이다. 학생들은 유능한 사색가이자 문제 해결자들로써 활동적으로 지식을 창조하며, 사용하고, 탐구한다. 그들은 가정과 인지에 기초하여 학습과 개인적 지식과 직관을 살리고, 질문을 하며, 도전을 받으며 곰곰이 생각한다.

● 언어, 상징, 텍스트 사용하기(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

언어, 상징, 문자사용은 지식이 표현하는 것에서 정보의 의미를 만들어서 함께 작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언어와 상징은 정보와 경험, 생각을 전달하거나 나타내기 위한 시스템이다.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문자를 만들기 위해 상징과 언어를 사용한다. 즉, 쓰기, 구두/청각, 시각 ;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상적이거나; 형식이 있거나 없거나; 수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것이다.

언어, 상징, 문자의 유능한 사용자로써, 학생들은 환경의 범위 안에서 기

술적이고, 은유적이며, 동작이나 이미지, 숫자, 단어를 사용하고 해석한다. 또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응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언어, 상징 또는 문자를 어떻게 선택해야하는지 인식한다. 즉,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하기 위해 ICT(사용하는 장소,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를 자신 있게 사용한다.

●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

자기 관리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는 태도, 자기 동기와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다. 이 능력은 자기 평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학생들은 진취적이고, 자원이 풍부하며, 믿을만하며, 탄력성이 있다. 또한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전에 대한 전략도 가지고 있다. 즉, 학생들은 이끌어야 할 때, 따라야 할 때,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방법과 때를 알고 있다.

● 타인과 관계 짓기(Relating to others)

이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능력, 협상과 생각의 공유, 관점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학생들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역할을 취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학습에 대해 관대하다. 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적절하게 경쟁할 때가 언제인지, 적절하게 협력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다. 즉, 함께 효과적으로 일함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접근과 생각, 생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된다.

● 참여하기와 기여하기(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이 능력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되어지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지역사회는 가족, 대가족, 학교, 또한 예를 들어 일반적인 관심 또는 문화에 기초되어지는 것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학습, 일, 축제(의식), 레크리에이션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모여드는 것이다. 그 것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일 수 있다. 이 능력은 그룹의 멤버로서, 적절하게 기여하기 위한 재능,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룹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회를 창조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 안에서 참여를 위한 대담함과 소속의식을 가진다. 그들은 권리, 역할, 책임감들의 균형과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경제적 환경의 유지 능력과 소질에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뉴질랜드는 새롭게 정의된 생애 핵심능력에 기초하여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 및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여, 2007년 11월 국가교육과정을 공표하였다. 2008년 현재, 유아교육에서 대학 및 직업교육을 위한 각급 학교와 각 교과목별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NZ Ministry of Education, 2005, 2007).

3. 뉴질랜드 핵심역량교육의 비전 및 지원 체제

1) 비전

뉴질랜드 핵심역량 교육의 비전은 미래 인력을 위해 창조적이고 활기차고 진취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원주민들과 백인(Maori와 Pakeha)은 최고의 조약 파트너로써 서로를 인식하고, 모든 문화는 그들에

게 가져오는 공헌을 위한 소중한 것으로 뉴질랜드(Aotearoa)를 창조하기 위해 일해야 할 것을 최선의 임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의 만족스러운 삶을 가능하도록 가치와 지식, 능력을 계속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자신감(Confident), 결속감(Connected), 적극성(Actively involved), 평생의 학습자(Lifelong learners)임을 강조하고 있다.

2) 핵심역량 교육 지원체제

(1) 핵심역량과 교사교육

① 교육표준법(Education Standards Act, 2001)

생애 핵심역량에 기초한 학습 체계로서 교사양성 체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교육표준법을 정하였다. 2001년 교육표준법의 목적은 교사의 전문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초등 및 중등학교와 유아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증진하고, 유아와 학습자의 안전하고 질 높은 교수와 학습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표준법의 내용은 첫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유아교육의 교사에게 전문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교사 자격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교사 자격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표준에 기초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것이다.

교육표준법의 결과로서 New Zealand Teachers Council 설립을 기초로 제공하였다.

② 뉴질랜드 교사 위원회(New Zealand Teachers Council)의 설립

2002년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교사위원회(New Zealand Teachers Council)를 설립하여 기존의 교사 등록위원회(Teachers Registration Board)를 대치하여 교사의 지위와 역할 확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뉴질랜드 교사위원회의 설립 배경은 먼저, 교사의 질은 교육 결과에 주요한 영향임을 인식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교수의 수월성' 을 반영한 교실 문화의 강화와 교실 내 학습의 효율성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습을 위한 평가사정과 학습의 평가사정이 핵심적 요소가 된다.

뉴질랜드 교사위원회의 역할은 뉴질랜드 각 급 학교인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의 교사 자격을 위한 전문적 기관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에 기초하여

첫째, 뉴질랜드 유아, 초등, 중등학교의 교사 자격, 자격증, 자격의 표준 설정과 유지, 질적 확인 기관과 연계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승인을 관장한다.

둘째, 뉴질랜드 교사에게 교수(teaching)의 전문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확장한다.

셋째, 생애 초기 이후 성인까지의 유아와 초등, 중등 및 대학과 직업교육의 평생 학습자를 위한 양질의 교수와 학습 환경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2004년 교사의 윤리 강령을 설정하였다.

뉴질랜드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하여 National Certificate in Educational Achievement(NCEA)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습자의 효율적 교수에 대한 교사 지원을 위하여 개발된 도구로서 Assessment Tools for Teaching and Learning(asTTle)을 개발하여, 문해와 수학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평가사정을 제공하고 있다.

③ 교사 졸업 표준(Graduating Teacher Standards, 2002, 2007) 설정

뉴질랜드의 교사 졸업 표준은 2002년 설정하여 2007년 생애 핵심역량에 기초한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설정하였다. 교사 졸업 표준은 교사양성과정의 졸업 표준으로서 교사양성 대학 졸업시 갖추어야 자질인 효율적인 교사를 만드는 지식, 이해, 행동, 경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사 졸업 표준은 유아, 초등 및 중등의 모든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요건에 대한 지침서 개발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12월 초등과 중등학교와 유아교육의 교사를 위한 새로운 지침서가 제안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2008년 이후 뉴질랜드의 교사 교육 기관은 새로운 표준에 맞추어 교사 양성교육을 적용하여야 한다. 추후 교사 졸업의 표준에 기초하여 '2008년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인준 지침(Guidelines for the approval of teacher education programmes)'을 개발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8년에 개발된 교사 졸업 표준(Graduating Teacher Standards)에 의하여 다음의 2가지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1과제는 교사 양성과정의 승인, 재승인, 모니터링의 과제이다. 2과제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인준 지침(Guidelines for the approval of teacher education programmes)을 재개발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생애 핵심역량의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사 영역 만족도(Satisfactory Teacher Dimensions)'로 알려진 교사 등록(registration)과 표준(standards)에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New Zealand Teachers Council, 2005).

요약하면, 뉴질랜드의 생애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사교육은 생애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사의 표준을 설정하여 교사양성과정은 물론 자격, 재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생애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위하여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승인, 재승인, 평가를 위한 국가 조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생애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사교육, 자격 기준을 관장하는 국가 조직과 기관을 신설하였다.

(2) 핵심역량의 평가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평가는 학습자와 교사가 평가에 의하여 제공된 평가 정보의 반응자로서 학습자의 학습과 교사의 교수 역량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학교는 평가 목적에 효율적으로 부합하는 평가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습자의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평가는 교수와 학습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진행형 과정(ongoing process)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최선임을 제

안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각 급 학교는 학교 급의 평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의한 평가 정보는 학습자의 학습에 주는 효과를 인식하여야 하며, 학교 급의 평가는 정책, 교육 프로그램, 교사의 교수 실제의 변화를 위한 기초로서 활용되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평가 정보는 학습자가 속한 집단과 타 집단의 상대적 성취의 비교, 국가 표준에 비추어 상대적인 학습자의 성취 수준 비교에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평가 정보는 학교가 교육위원회(the board of trustees), 학부모,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 보고된다.

뉴질랜드는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a(NQF), 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NCEA)의 평가 개혁을 통하여 핵심능력 표준에 기초한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생애 핵심능력의 평가는 관찰, 면담, 포트폴리오, 수행 중심의 평가 등의 다차원적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특히 학습자의 참여를 통한 자기보고, 자기 평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관련 교육지원기관

뉴질랜드 Ministry of Education는 6개 관련 교육기관인,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NZQA), 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NCEA), The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Education Review Office(ERO), The Teachers Council, The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을 관장하고 있다.

먼저,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NZQA)는 고등교육 이상의 자격 체제를 관장한다. 그리고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NZQA)는 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 (NCEA), The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과 연계하여 관장하고 있다. 즉,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NZQA)는 자격표준(standards), 대상 이상의 학교 체제 자격 확립과 등록을 관장하고 있다.

Education Review Office(ERO)는 유아교육 제공자를 지원하고 유아교

육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자기 평가, 검토, 공적 보고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기능을 수행하며, 유아교육과 학교에 대한 자체의 평가, 검토, 공적 보고를 단독으로 수행한다.

The Teachers Council은 유아교육과 학교 교육의 교사를 위한 전문성 구축을 위한 부서이다. 이 기관은 유아교사와 초중등교사를 위한 전문성 표준(professional standards) 설정을 관장하고 있으며, 유아교사와 초중등교사 자격 수여, 전문 자격 등록을 관장한다.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은 의무 교육 이후의 정부 기금, 직업교육 훈련과 직업교육 전략의 적용에 대한 책임 기관이다.

(4)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연구

생애 핵심역량에 기초한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뉴질랜드에서는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과정 현장 적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즉,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007년 11월에 공포된 New Zealand Curriculum의 중심인 5가지 핵심역량과 연계된 각 급 학교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프로젝트(The Implementation Project)가 적용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설정된 생애 핵심역량은 유아교육과 대학 및 직업교육의 체제를 중심으로 먼저 설정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각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가 변화되었다(Wylie, Hodgen, Ferral, & Thompson, 2006). 교육과정 현장 적용 프로젝트(The Implementation Project)의 목표는 각 급 학교의 체제에 적합한 각 단계별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학습 지원 체제의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각 급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지원 환경 구성, 전문성 탐구와 탐색 및 전문적 현장 실제의 발달에 대한 지원, 학교 내와 학교 간의 교육과정의 지속성 유지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현장 적용 프로젝트는 학생 우선, 전문적 현장 실제의 확대,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학습-지역사회 상호유지

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 현장 적용 프로젝트(The Implementation Project)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선정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적용시 지원 요인과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선정된 학교에서의 다양한 차원의 학교별 접근에서 교육과정 적용시 고려한 순서가 있는가? 셋째, 유치원과 초등1-3학년(Primary), 초등4-6학년(intermediate), 중등과 고등학교(secondary)의 적용 과정과 방법에서 제기되는 유사하거나 혹은 동일한 쟁점은 무엇인가? 뉴질랜드는 2007년 개정될 국가교육과정(The revised New Zealand Curriculum)의 초본(Draft)에 기초하여 2006년부터 각 급·학교별 5개 학교에 시범 적용을 실시하였다(참조, <표 Ⅲ-3>). 이 시범 적용에 기초하여 2007년과 2008년에 출간된 'Kick Starts: Key competencies the journey begins'에서 초등, 중등의 교육과정 적용의 결과를 도출하여 전국적인 교육과정 적용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Hipkins, Roberts, & Bolstad, 2008).

<표 Ⅳ-2> 핵심역량개발 프로젝트 적용기관과 중점연구

적용 기관	중점 연구
Red Beach Primary School	- 학교의 목적에 기초한 생애능력의 5개 영역과 교육과정의 연계
Orewa College	- 자기, 타인, 환경 차원을 고려한 가치 지향의 프로그램 적용 - 교육과정 영역의 쟁점에 대한 교사의 사고와 학습의 연계프로그램 적용
Putaruru Primary School	- '언어, 상징, 텍스트 사용하기'와 '사고하기'에 중점을 둔 5개 생애능력 교수프로그램 개발
Hauraki Plains College	- 21세기 교육과 생애 학습 목표에서의 전통적 맥락에서의 수월성 추구
Southern Cross Junior School	- '사고하기'와 '타인과 관계짓기'와 연계된 생애능력 적용

*자료 : Hipkins, R. Roberts, J. & Bolstad, R.(2008). Kick Starts: Key competencies the journey begins.

4. 뉴질랜드 핵심역량 중심 교육의 시사점

뉴질랜드의 5개 핵심역량은 OECD DeSeCo에서 개념화된 핵심역량을 반영하되 그들의 사회문화적(다문화의 마오리족의 교육격차 해소) 맥락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그리고 모든 뉴질랜드 국민의 세계인으로서의 교육을 비전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학습영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뉴질랜드의 핵심능력의 각 영역은 유아교육과 직업교육까지 생애 주기의 전 과정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현지 방문을 통하여 역량중심의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 적용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주로 초등,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아직 적용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 이유는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기존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작업과 함께 교육현장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 장기적이며 이해 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교육부는 역량중심의 공교육 체계 전환 관련하여 2010년 전면적, 의무적 실시를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와 가이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학교현장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장기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뉴질랜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큰 그림을 모든 학교가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는지는 그들의 숙제이지만 현재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교실 수업 및 활동프로그램 등 역량 중심 학습은 매우 경이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과목간 및 학년간 통합교육과정 수업, 동일한 학습 내에서 다양한 조별 혹은 개인별 맞춤식 수준별 수업,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 매우 적극적인 수업 몰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은 한국 교육현실에서 볼 때 이는 공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이 아닐 수 없다.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시킬 때 장기적인 계획과 합의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한국이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도입하기 위하여 유

의해야 할 점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핵심역량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한국에서도 핵심역량 개념을 기업교육 및 인사 장면에 도입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서 도입하는 일부 사례에서는 그 개념을 기존의 '직능' 과 동일한 것으로 다루거나 조직 경쟁력 극대화에 치우친 모델을 강조함으로써 이같은 이념을 왜곡하여 적용한 측면도 있다. 핵심역량의 개념을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가장 큰 의의는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의 능력 향상만을 목적으로 고안된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핵심역량은 학습 활동을 통해 경쟁사회 속의 성과주의에 의한 '격차 확대가 아닌 격차를 해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뉴질랜드 교육의 관찰 결과, 뉴질랜드의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은 주로 전반적인 태도교육 형태로서, 교과나 특정 영역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비전 공유에서부터 개인 학생의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을 관리하고,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맺고, 적극적 사고력 증진 등을 주제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반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량중심교육과정 혁신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뉴질랜드의 교육정책 수립과 운영진행 사항 및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뉴질랜드의 교육협력 및 이를 담당하는 연구협의체, 그리고 실제 정책을 주도하는 전문가 교류 등이 요구된다.

Ⅴ. 요약 및 결론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논의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에서 수준 진단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진단조사 결과 먼저 발달단계에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측정 영역에 따라서 발달적 효과가 잘 나타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계 지향성 영역에서는 경청능력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발달적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으나 신뢰, 사회적 접촉 등의 영역에서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1> '관계지향성' 영역과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요약)

하위 요소		발달 단계별	성별[1]	부학력	모학력	경제 수준	학업 수준 (전체)	학업 수준 (사회)
적극적 경청		↑	↓	↑	–	–	↑	↑
사람 신뢰		↓	↓	↑	↑	↑	↑	↑
주변 사람과의 접촉의 질과양	친척과의 만남	↓	↑	↑	↑	↑	↑	↑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상의대상	↑	↓	–	–	↑	↑	–
	또래와 비교한 사교적 모임	↓	↓	↑	↑	↑	↑	–
	부모님과의 활동	↓	↓	↑	↑	↑	↑	↑
공공에 대한 신 뢰		↓	↑	↑	↑	↑	↑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 친척과의 만남에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사교적 모임에서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높았다. 또한 부모와의 활동은 연령이 감소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신뢰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발달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뢰나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Ⅴ-2>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과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요약)

하위 요소			발달 단계별	성별[2]	부학력	모학력	경제 수준	학업 수준 (전체)	학업 수준 (사회)
시민의식	정치관심		–	–	↑	↑	–	↑	↑
	종교이해		–	↓	–	–	–	↑	↑
	권리 책임	이야기할 권리	↑	↓	–	–	–	↑	↑
		투표자격	–	↓	–	–	–	–	–
		투표권리	↑	↓	–	–	–	–	↑
	민주적 절차	비민주 주의성	–	↑	↓	–	↓	↓	↓
		비민주적 정부	↑	↓	↑	–	–	↑	↑
소속감	학교생활만족도		↓	–	↑	↑	↑	↑	↑
	학교에 대한 느낌		↓	–	↑	↑	↑	↑	↑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	↑	↓	↓	↓	↓	↓
만족감	삶의 만족도		↓	↑	↑	↑	↑	↑	↑
	행복도		↓	–	↑	↑	↑	↑	↑

1)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을수록 ↑로 표기
2)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을수록 ↑로 표기

사회적 협동 영역에서는 관계 지향성 영역에서와 같이 높은 연령층에서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치관심(중학생이 가장 낮음)과 같은 태도 측정에서 뿐 만 아니라 종교이해나 민주적 절차와 같은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도 발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식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나 발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소속감,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만족감, 행복도 연령이 감소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연령층에서 관계지향성에서 나타난 부정적 경향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즉, 고등학교로 갈수록 입시위주 교육이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 긍정적 인식 등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나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접촉을 저하시킴으로써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Ⅴ-3> '갈등 관리' 영역과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요약)

하위 요소		발달 단계별	성별[3]	부학력	모학력	경제 수준	학업 수준 (전체)	학업 수준 (사회)
문제 인식 해결		–	–	↑	↑	↑	↑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이민자 허용	↑	↓	↑	–	–	↑	↑
	이민자 영향	↓	–	↑	↑	↑	↑	↑
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평등	↑	↑	↑	–	–	–	–
	사회통합	↑	↓	↑	↑	–	↑	↑
	공정	↓	↓	↑	↑	–	↑	↑
	인정	↑	↑	–	↑	–	↑	↑
다수정당존재이유		–	↓	–	↑	–	↑	↑

3)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을수록 ↑로 표기

한편 갈등관리 영역에서는 높은 연령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있거나 발달적으로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갈등관리를 측정 영역의 성격 자체가 갈등관리의 수준을 알아보는 요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갈등관리 영역에서는 이민자 영향에 대한 태도를 측정했을 때는 중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두 측정영역의 결과에서와 같이 지식을 측정했을 때는 발달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태도를 측정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지식과 태도가 불일치하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역량 구조의 맥락에서 태도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행동을 표출하는데 더욱 가까운 요소라고 본다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관한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지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학습 단계가 증가할수록 잘 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갈등관리 영역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조망 취득 능력에 대한 분석에서는 먼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사 판단이 더 분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관계없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공/사 판단을 더욱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은 공정 가치를 대표하는 행동인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동'을 인정 가치를 대표하는 행동인 '묵과하는 행동'보다 고등학생보다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망 취득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조망 변별값 측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정조망 변별값 보다는 공정조망의 변별 점수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정조망 보다는 인정조망 변별력이 증가하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갈등상황에서 인정과 공정의 두 가지 대립된 가치 준거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다가치 준거를 가지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별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서는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지향성 영역에서 친척과의 만남, 공공에 대한 신뢰,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에서는 비민주주의성, 부정적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 삶의 만족도, 갈등관리 영역에서는 시민의식 중에 형

평에 관한 지식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중에서 남학생들이 비민주주의성, 부정적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시민의식에 대한 지식 측정에서 형평에 관한 문항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지만 사회적 통합에 대한 문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발달 심리학자들이 주장해왔던 남성의 특성으로서 '기능성'과 여성의 특성으로서 '친화성'을 잘 대변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이나 본인의 학업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학력 및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비민주주의성이나 부정적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에 있어서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부모의 학력보다는 본인의 학업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부모보다는 본인의 학업수준과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 경제수준을 독립변수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관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정답을 선택하는 문항, 즉,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경제수준에 따른 이같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조망 취득 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측정치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 가치 준거 조망을 소유한 집단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태도나 지식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우리나라 학교교육 시스템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잘 길러지고 있는가를 검토 한다면 긍정적인 대답만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학업수준이나 교육적 지원환경(부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 등)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서의 측정치들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앞서 학습단계별로 나타난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특히 사회적 지식이나 가치 변별력과 같은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보다는 사회적 태도나 행동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도덕 판단에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 문제는 김태준(2004)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즉, 한국 성인들이 사회적 도덕 판단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 보다 성숙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신의 행동이나 입장이 관여되어 있을 경우, 예컨대 부정부패에 대한 묵과행위,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인정, 성 고정관념 등의 상황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했을 때에는 도덕 발달의 연령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태도와 행동의 발달 수준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동안 한국의 학교교육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육성 측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최근 OECD(2009)의 교육의 사회적 효과(SOL: Social Outcomes of Learning) 측정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OECD가 주관한 교육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에서는 대인 신뢰, 정치적 관심 등 국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교육의 사회적 산물(여기서 측정한 것은 사회적 태도나 행동이었음)에서 한국과 다른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조사자들의 학력이 증가할수록 대인 신뢰나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산물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은 한번 갖게 되면 좀처럼 변화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관한 태도 교육에서 한국의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취약점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진단 뿐만 아니라 선진국(연구대상국: 뉴질랜드)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질랜드는 DeSeCo 핵심역량(Key Competency)의 개념을 교육현장에 도입하면서 5가지 핵심역

량을 자국의 문화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그들 중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다른 네 가지 핵심능력과 함께 '참여와 공헌(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을 유아교육에서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야 할 핵심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와 공헌'은 '사회적 기부' 교육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사회적 기부는 물질적인 기부 뿐 만 아니라 무형적이고 정신적인 기부도 포함한다. 따라서 '참여와 공헌'은 국가, 지역사회에서부터 학생들의 수업 상황에서의 참여와 공헌에 이르기 까지 학습자 개인에게 하나의 문화로서 체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질랜드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은 '직업능력' 육성만이 목적이 아닌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NZ Ministry of Education, 2008). 따라서 평생학습 단계별로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관점에서 단계별 핵심능력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 본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도덕적 행동의 실천력을 잃게 만드는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은 단편적 지식제공이나 주입식 교육보다는 행동 실천 수준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체험교육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주입식 위주로 이루어졌던 도덕이나 사회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DeSeCo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이질적인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자율성, 도구 활용 등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이다. 최근에 한국의 경우, 외국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다문화의 환경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교육의 문제를 미래 교육과정으로서 DeSeCo를 기반으로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뉴질랜드 등 선진

국의 교육혁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다문화에 대한 핵심역량을 학습자들이 내면화하는 교육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측정도구 개발 및 조사 분석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3차년도에 국제비교 분석을 염두에 두고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적절한 국제비교문항을 활용하는데 한계점이 많이 있었다. 각 영역별 하위 요소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개수차이가 1-7개로, 각 요소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개수를 균등하게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성격상 단일한 점수로 그 역량을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조사도구 개발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균등성에 초점을 두고 단일지수를 산출하기보다는 역량의 성격을 보다 다양하게 규명할 필요성에 대해 더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측정도구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조사 설계에서 진단도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목표연령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진단도구 개발을 위해서 학급 별로 특정 목표연령을 설정함으로써 개발자나 조언자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 시스템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진단도구 개발 대상의 전제와 실제 조사대상의 약간의 불일치 상황이 발생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결과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들 중에 특별히 연령, 성별, 부학력, 모학력, 학업수준들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변수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수준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들과의 비교 해석을 위하여 분석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밖에 교육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향후 3차년도 연구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조망능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는데, LH집단

과 HL집단은 둘 다 어느 한 쪽만 조망 능력을 가진 집단이므로 두 집단 모두를 동등하지만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능력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집단 사이에도 상대적인 우열을 부여한 해석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HH집단과 LL집단의 능력 수준에서의 차이에만 초점을 두고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의 경우에는 HH집단과 LL집단의 중간 능력 수준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집단과 HL집단은 능력 수준에서 차이가 나기보다는 가치관이나 문화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두 집단과 다른 능력들의 관계에서는 능력 수준의 차이가 있는 등 간접적인 분석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기헌 외(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안나 등(2003).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 (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주섭(2007).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역량 개발.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115-13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등(2002). 학습사회에서 성인의 생애능력설정 및 성인학습체제 질 관리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등(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문용린 등(2007). 생애역량,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점에서.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현정 등(2006). KEDI 종합검사도구 개발연구(Ⅱ): 가정특성과 학교특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신범석(2007). 조직수준에서 역량개발 및 활용방안.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95-11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신재철(2007). 고등교육의 역량모델의 탐색 및 개선방안.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37-6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등(2002).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 (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등(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 (Ⅲ).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무근 등(1997).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이석재 등(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수원과 박영석(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학연구, 4(1). 155-181.

이헌남(1992). 도움의 이원성: 공정지향과 관계지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언 등(2004).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조사연구: OECD ALL Project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등(2005a). 한국의 성인직업기초능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등(2005b).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OECD ALL Project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미라 등(2007). 영유아기 핵심역량 표준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철영 등(1008).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대연(2007). 국가수준에서 역량개발 및 활용방안.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135-15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나라당(2007).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서울: 북마크.

한상진(2005). WVS code book. www.worldvaluessurvey.org

한숭희(2007). 지식경제 맥락에서의 성인교육 역량모델의 조건 탐색.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61-7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현주 등(2004). KEDI 종합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현주(2007). 초·중등 교육단계에서의 역량강화 모델 및 개선 방안. 제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p.15-3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cemoglu, D och J Angfrist(2000). "How large are Social Returns to Education? Evidence from Compulsory schooling Laws". *NBER macroeconomics annual, vol 15*, s 9-59.

Aghion, P. and P. Howitt (2006). Appropriate Growth policy: A Unifying Framework,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s Association.*

Andrews, C., Brown, R., Sargent, C.(2007). INCA comparative table: *International review of curriculum and assessment internet archive*. UK, London: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DeSeCo(2002).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s(DeSeCo) :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Strategy paper. DeSoCo Symposium, Geneva, February11-13,2002:www.statistik.admin.ch/stat_ch/ber15/deseco/deseco_int02.htm.

DfES(2001). *Education and skills: Delivering results - A strategy to 2006.* London: DfES.

EURYDICE(2002). *Key competences: A developing concept in general compulsory education. Brussels*, Belgium: Eurydice The information network on education in Europe.

Goleman, D.(1996).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Grootaert, C. D., Narayan, V. N., & Woolcock, J. M. (2003). *Integrated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World Bank.

Haste, H.(2001). Ambiguity, autonomy, and agency: Psychological challengers to new competence. In D.S. Rychen & L.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pp. 93-120). Gottingen, Germany: Hogrefe &Huber.

Heppner & Peterson(1982). *Problem Solving Inventory.*

Hipkins, R, Boyd, S., & Joyce, C.(2005). Documenting learning of the key competencies: What are the issues? : A discussion paper. New Zealand, Wellington: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Hipkins, R.(2006). The Nature of the key competency: A Background paper. Wellington, NZ: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ILO(2003). Learning and training for work in the knowledge society. Geneva: ILO.

Knack, S. & Keefer. P.(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88.

Lepsinger, R. and Lucia, A.(1999). *The art and science of competency models.* San Francisco: Jossey-Bass/Pfeiffer.

Levy F., & Murnane, R.J.(2001). Key competencies critical to economic success. In D.S. Rychen & L.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pp. 151-173). Gottingen, Germany: Hogrefe &Huber.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y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1-14.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2002). Pathways to the future: Nga Huarahi

arataki: A 10 year strategic pla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Zealand, Wellington;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2004).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National report of New Zea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8-11 September, 2004, Geneva, Switzland.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2006). The New Zealand curriculum: Draft for consultation 2006. New Zealand, Wellington; Ministry of Education.

Oberhuemer, P.(2005).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arly childhood curricula.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37*(1), 27-37.

OECD & ONS(2002). *Social capital : The challenge of international measuremen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ondon.

OECD(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 Fim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OECD.

OECD(2002). *Draft strategy paper in key competnecies: A frame of reference for a coherent assessment program.*

OECD(2005). *Learning a Living: First results of the Adults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OECD(2006). *Start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rance, Paris: OECD.

Perrenoud P. (2001). The key to social fields: Competencies of an autonomous actor. In D.S. Rychen & L.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pp. 151-173). Go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Perris, L.(1998). Implementing education reforms in New Zealand: 1987-97. *The Education Reform and Management Series, 1*(2).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2007). *International review of curriculum and assessment internet archive.* UK, London: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Ridgeway, C.(2001). Joining and functioning in groups, self-concept and emotion management. In D.S. Rychen & L.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pp. 205-211). Gottingen, Germany: Hogrefe &Huber.

Rychen, D. S. & Salganik, L. H.(2002). Strategy paper: An overarching frame of reference for a coherent assessment and research program on key competencies.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final report).*

Rychen, D. S. & Salganik, L. H.(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well-functioning society.* Hogrefe & Publishers: Seattle · Toronto · Bern · Gottingen.

Rychen, D. S. & Salganik, L. H.(eds)(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Hogrefe & Publishers: Seattle · Toronto · Bern · Gottingen.

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2003). Key competencies: Some international comparisions. *Policy and Research: Research Bulletin(2).* Glasgow, UK: 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

Stein, S.(2000a). *Equipped for the future content standards: What adults need to know and be able to do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

Stein, S.(2000b). What family life demands: A purposeful view of competent performance.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 In D.S. Rychen, L.H. Salganik, & M.E. Mclaughlin (Eds.), *Selected contributions to the 2nd DeSeCo symposium.* Neuchatel, Switzerland: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Thompson, L., & Hastie, R.(1990). Social perception in negotiation.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7, 98-123.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and Schulz, W. (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 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Netherlands: IEA.

Trier, U.P.(2003). Twelve countries contributing to DeSeCo: A summary report. In D.S. Rychen, L.H. Salganik, & M.E. Mclaughlin (Eds.), *Selected contributions to the 2nd DeSeCo symposium.* Neuchatel, Switzerland: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Turner, J. C.(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 concept: A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K. Lawlen(Ed.). *Advances in group process: Theory and Research, Vol.2*, Greenwich, JAI Press.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01). Defining and Assessing Learning: Exploring competency-based initiatives (by E. Jones, R, A, Voorhees, and K. Paulson for the Council of the National Postsecondary Education Cooperative Competency-based initiatives working group).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1994). *Employer-provided formal training.* Washington, D.C.: Author.

Walton, R. E., & Mckersie, R. B.(1965). *A behavioral theory of labor relations.* New York: McGraw-Hill.

Wylie, C., Hodgen, E., Ferral, H., & Thompson, J. (2006). Contribu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age-14 performance: Evidence form the competent children, competent learners project. Wellington, NZ: Ministry of Education.

http://iccs.acer.edu.au

www.europeansocialsurvey.org/

www.issp.org/

www.ksg.harvard.edu/saguaro/measurement.htm# benchmark/

www.worldbank.org/

www.worldvaluessurvey.org

www.worldvaluessurvey.org

부 록

1. 1차, 2차년도별 측정문항 변화
2. 측정도구의 신뢰도
3.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설문지 (초등용)
4.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설문지 (중등용)

<부록1> 1차, 2차년도별 측정문항 변화

1. 관계지향성 영역

하위 요소	문항내용		비고
	1차	2차	
적극적 경청	본인의 경청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타인의 말에 대한 주의,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관심, 타인의 말에 대한 이해 정도의 점검, 적극적인 질문, 객관적인 경청 자세)		공통
도움 (희생)	남을 돕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삭제
주변인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의 질과 양	가까이 사는 친척, 친구 이웃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까?		공통
	당신이 만약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삭제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 할 사람이 있나요?	추가
		같은 나이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나요?	〃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
공공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가 어떤지 체크하시오(경찰, 법원, 정치인, 노동조합, 정당 등에 대한 신뢰 정도)		공통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의 신뢰 정도가 어떤지 체크하시오(지역의 기업, 이웃 주민, 지역 방송의 요소에 대한 신뢰 정도)		삭제
사람 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추가

2.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하위 요소	문항내용		비고
	1차	2차	
사회적 역할이해/ 사회적책임감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는지 체크하시오		삭제
사회적 유대감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적 유대감 역량 측정 가능한 선택지 제시		
영향력	시나리오에 따라 철수의 행동에 대한 질문		
지역사회 참여	평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봉사	당신은 학교, 학급봉사 및 자원봉사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합니까?		
정치관심		당신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추가
종교이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권리책임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민주적 절차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대 여럿이 의논하기보다 한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된다.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소속감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생활 중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나요?	
만족감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3. 갈등관리 영역

하위 요소	문항내용		비고
	1차	2차	
문제 인식 해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칙은 토론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문제 발생 요인, 미해결 문제에 대한 결과 예측, 문제에 따른 영향, 문제의 핵심 파악, 문제의 가치정도)	나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요소 축소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문제해결 방해 요소에 대한 인식,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접근, 문제 해결에 관한 목적의 설정)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생각한다.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허용	(의사결정 상의 민주주의적 절차, 민주주의 실행의 필수불가결성)		삭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경제(문화수준, 삶의 질)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다수 정당 존재 이유	민주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위요소 변경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철수와 영희 시나리오를 읽고 질문에 답해주시오.	변경 및 추가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에 대해 취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에 답해주시오.	

<부록2> 측정도구의 신뢰도

1. 관계지향성 영역

관계지향성 영역에는 모두 7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Cronbach's alpha)는 .418로 나타났다.

<부표 2-1> 관계지향성 영역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문항제거시 척도평균	문항제거시 척도변량	개별문항 상관계수	문항중다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척도신뢰도
경청태도	19.4115	18.601	.258	.128	.385
사람 신뢰	17.1653	10.267	.264	.103	.368
친척과의 만남 빈도	20.1526	16.983	.145	.049	.402
개인적 문제 상의 대상	21.2333	19.060	.252	.090	.396
사교활동 참여정도	19.9793	16.779	.304	.140	.343
부모님과의 활동	20.7265	17.808	.266	.113	.369
공공기관 신뢰	19.2667	14.403	.174	.031	.401

2.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13문항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Cronbach's alpha)는 .468로 나타났다. 앞서 관계지향성 영역의 문항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부표2-2>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문항제거시 척도평균	문항제거시 척도변량	개별문항 상관계수	문항중다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척도신뢰도
정치 관심	25.8658	23.749	.089	.053	.467
종교 이해	27.4988	25.101	.008	.040	.473
권리책임(발언할 권리)	27.5036	24.888	.092	.106	.468

권리책임(투표자격)	27.7391	24.948	.004	.013	.476
권리책임(투표권리)	27.5975	24.781	.072	.078	.468
민주주의 절차	26.0504	25.640	-.146	.065	.529
비민주주의	27.9729	24.926	.000	.060	.477
학교생활 만족도	25.4977	20.691	.396	.408	.387
학교에 대한 느낌	25.6669	21.892	.407	.410	.404
학교 출결 경험	27.1665	25.482	-.119	.033	.485
삶의 만족도	22.7016	11.112	.536	.373	.232
행복도	21.5521	12.934	.486	.330	.276

3. 갈등관리 영역

갈등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중 6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Cronbach's alpha)는 .325로 나타났다. 앞선 두 영역의 문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내적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부표2-3> 갈등관리 영역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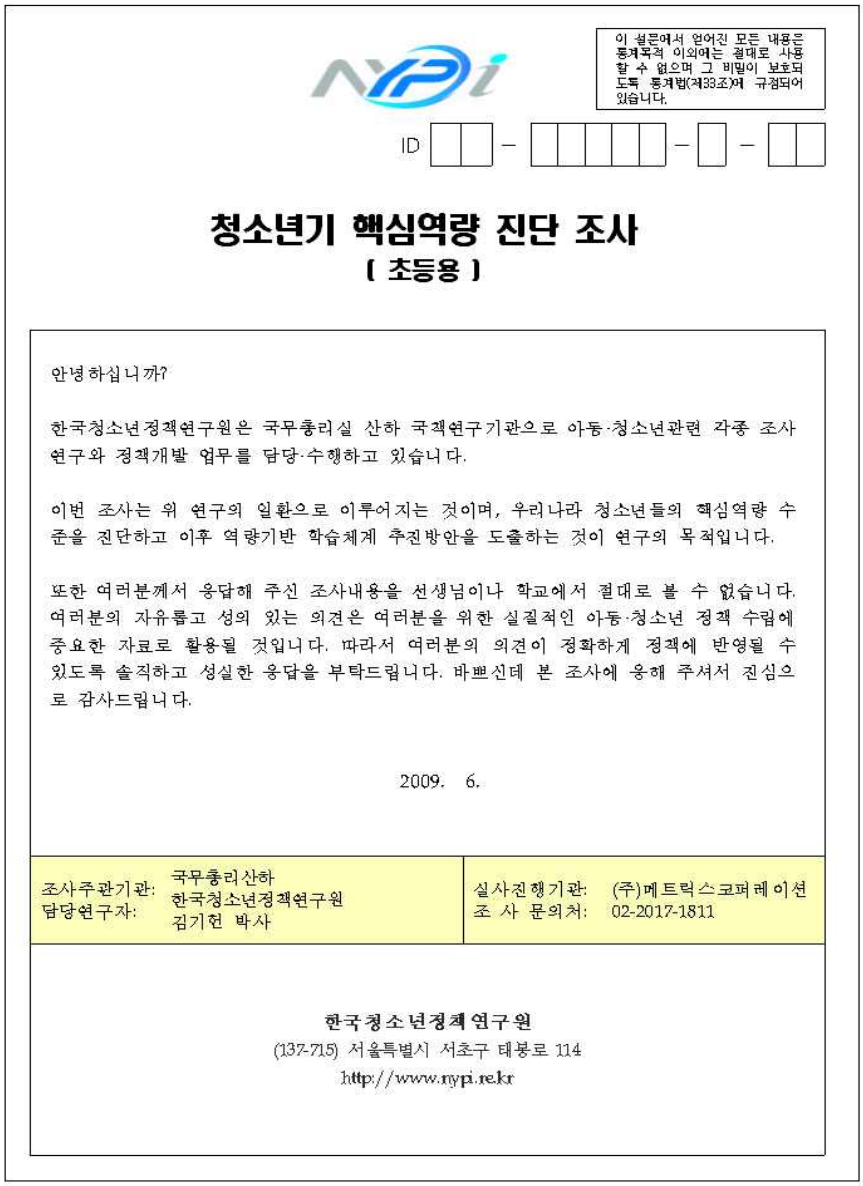
	문항제거시 척도평균	문항제거시 척도변량	개별문항 상관계수	문항중다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척도신뢰도
문제인식해결	9.9874	6.119	.133	.025	.297
이민자허용도	10.5182	5.336	.416	.197	.148
이민자영향	7.9250	2.017	.280	.191	.256
다양한 가치 수용정도(평등)	13.0748	6.729	.036	.017	.338
다양한 가치 수용정도(사회통합)	12.7223	6.531	.137	.037	.305
다수정당 존재이유	12.9576	6.613	.073	.011	.325

갈등관리 영역에서 나머지 두 문항에 해당하는 조망능력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04로 나타났다. 앞선 세 영역의 문항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부표2-4> 갈등관리 영역 중 조망능력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문항제거시 척도평균	문항제거시 척도변량	개별문항 상관계수	문항중다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척도신뢰도
Q37_a1	56.3397	84.667	.325	.620	.572
Q37_a2	57.0455	86.098	.289	.640	.578
Q37_a3	57.3300	88.136	.203	.627	.592
Q37_a4	56.7516	84.419	.336	.704	.570
Q37_a5	57.7973	90.504	.131	.621	.603
Q37_a6	56.4411	83.264	.364	.722	.565
Q37_a7	58.1263	92.242	.086	.514	.609
Q37_a8	56.3812	83.828	.358	.710	.566
Q37_b1	59.9955	93.948	.045	.585	.613
Q37_b2	59.4193	89.246	.190	.629	.594
Q37_b3	58.6030	84.773	.254	.631	.583
Q37_b4	59.5301	90.153	.165	.659	.597
Q37_b5	58.1468	83.155	.301	.680	.574
Q37_b6	59.8335	91.397	.133	.687	.602
Q37_b7	57.9120	83.976	.283	.579	.578
Q37_b8	59.7462	91.755	.114	.627	.604

<부록3>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초등용)[4]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초등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후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6.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 담당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박사	실사진행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조 사 문의처: 02-2017-18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4) 이 조사지는 세가지 역량 모두를 진단하기 위한 NYP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 사지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배경변인 및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 단 문항은 설문지 상에서 음영 표시 하였음.

Ⅰ.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 성별은? _____① 남자 _____② 여자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다른 지방의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포함(단,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는 제외).

1) (외)할아버지 2) (외)할머니 3) 아버지 4) 어머니
5) 형제 또는 자매 6) 기타 친척 7) 기타_____ 8) 없음

3.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_____남 _____녀 중 _____째 (예) 1 남 1 녀 중 첫 째)

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구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6.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구 (_____)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동/읍/면 으로 표기
※ 살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동/읍/면 으로 표기

8. 반에서의 학업성적(2009년 1학기)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세요.
※ **영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음'에** ○표 해 주세요.

성 적	매우 못하는수준	못하는 수 준	중간	잘하는 수 준	매우 잘하는수준	배우지 않 음
(1) 국 어	①	②	③	④	⑤	
(2) 영 어	①	②	③	④	⑤	⓪
(3) 수 학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영역	①	②	③	④	⑤	
(5) 과학영역	①	②	③	④	⑤	

9. 지금 집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장소)들이 얼마나 있나요?

9-1) 자동차

___① 없음 ___② 1대 ___③ 2대 ___④ 3대 이상

9-2) 자기방 (혼자사용)

___① 예 ___② 아니오

9-3) 책(잡지 · 신문 · 만화 · 교과서 · 참고서 등은 제외)

____① 0~10권 ____② 11~25권 ____③ 26~100권
____④ 101~200권 ____⑤ 201~500권 ____⑥ 501권 이상

10.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구분	거의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
(1)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5) 함께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6) 함께 저녁식사	①	②	③	④	⑤

11.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_____① 매우 나쁘다 _____② 나쁘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좋다 _____⑤ 매우 좋다 _____⑥ 모르겠다

12. 학교 체육 수업시간 외에 30분 이상 지속하는 운동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요?

_____① 거의 하지 않는다 _____② 일주일에 1~2회 _____③ 일주일에 3~4회
_____④ 일주일에 5~6회 _____⑤ 매일

13. 매일 교과서나 참고서를 제외한 책을 읽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_____① 전혀 없다 _____② 30분 이내 _____③ 30분~1시간
_____④ 1시간~2시간 _____⑤ 2시간 이상

Ⅰ. 다음은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4.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_____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_____② 불만족스럽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만족스럽다 _____⑤ 매우 만족스럽다

15.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생활 중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나요?

구분	없었다	한 두 번	서 너 번	다섯 번 이 상
(1) 휴학 경험	①	②	③	④
(2) 지각 경험	①	②	③	④
(3) 무단결석 경험	①	②	③	④
(4) (교내·외) 사회봉사 혹은 등교정지 등의 징계	①	②	③	④

17. 장래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창업포함)을 정해 놓았나요?

_____① 아직 정해 놓은 직업이 없다

_____②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_____③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Ⅲ. 다음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8.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본인의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말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관심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바라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상대방의 말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들으며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절대로 안된다	아주 약간만	어느 정도	가능한 많이	모르겠다
(1)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 (예; 고려인, 조선족 등)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민족이 아닌 외국인	①	②	③	④	⑤
(3)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20.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친척과 얼마나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나요?

_____① 전혀 만나지 않는다 _____② 한달에 한번이 안된다
_____③ 한달에 한번 정도 _____④ 한달에 여러 번
_____⑤ 일주일에 한번 정도 _____⑥ 일주일에 여러 번
_____⑦ 매일 _____⑧ 모르겠다

22.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한다 ◀	0	1	2	3	4	5	6	7	8	9	10	▶ 사람들은 정당하게 나를 대우한다	모르겠다 □

23.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_____① 전혀 관심없다 _____② 거의 관심없다 _____③ 약간 관심있다
_____④ 매우 관심있다 _____⑤ 모르겠다

24.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매 우 불만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매 우 만족한다	모르겠다 □

25.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매 우 불행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매 우 행복하다	모르겠다 □

Ⅳ.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검색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26. 평소 다음의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나요?

구분	전 혀 사용안함	한 달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하루에 1회 이상
(1) 한글프로그램(훈글 등)을 이용한 문서 작성 및 편집	①	②	③	④
(2) 엑셀 등을 이용한 계산표 작성	①	②	③	④
(3)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을 이용한 그림자료 및 발표용 자료의 작성	①	②	③	④
(4)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 만들기	①	②	③	④
(5) 나의 일정 및 스케쥴 관리하기	①	②	③	④
(6) CD나 DVD를 시청하거나 정보 얻기	①	②	③	④
(7) 컴퓨터 게임하기(인터넷 게임은 제외)	①	②	③	④

27. 평소 다음의 목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나요?

구분	전 혀 사용안함	한 달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하루에 1회 이상
(1) 친구, 선생님 등과 전자우편(이메일) 주고 받기	①	②	③	④
(2) 채팅, 메신저, 게시판 및 댓글 작성, 또는 온라인 토론에 참여(학급게시판 참여 포함)	①	②	③	④
(3)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사거나 관련정보 검색	①	②	③	④
(4) 인터넷 학습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	①	②	③	④
(5) 음악(노래) 듣기 또는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듣기 포함)	①	②	③	④
(6) 인터넷 게임(게임 관련 자료 다운로드 포함)	①	②	③	④
(7) 영화, 동영상 보기 또는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한 TV 시청 포함)	①	②	③	④
(8) 신문, 잡지, 전자책(e-book) 읽기 또는 다운로드	①	②	③	④
(9) 숙제 및 학교 수업을 위한 인터넷 정보 검색	①	②	③	④
(10)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검색 (학습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정보 검색은 제외)	①	②	③	④
(11) 동호회활동(카페 · 커뮤니티 포함)	①	②	③	④
(12)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운영	①	②	③	④
(13)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또는 업그레이드	①	②	③	④

28.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구분	전 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컴퓨터(또는 인터넷)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컴퓨터와 인터넷은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 컴퓨터와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5)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학습능력이나 재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6) 컴퓨터와 인터넷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7) 컴퓨터와 인터넷은 나의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Ⅴ.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29.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1) 노인인구	____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2) 출산율	____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3) 평균수명	____ 길어지고 있다	____ 짧아지고 있다	____ 모르겠다
4) 학생수	____ 늘어나고 있다	____ 줄어들고 있다	____ 모르겠다
5) 결혼연령	____ 늦어지고 있다	____ 빨라지고 있다	____ 모르겠다
6) 여성의 경제활동	____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7) 다문화가정	____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30.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 [?] ➡ 내가 내는 세금이 늘어난다

____① 가정의 지출이 줄어든다　　____② 학생들이 줄어든다

____③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____④ 아동인구가 줄어든다

Ⅵ.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31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비교한 후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앞날을 내다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행동을 할 때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결과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뜻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어느 정도 듣는지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친구들로부터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3. 아래에 제시된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금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원(정보)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모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혼자 힘으로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인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해보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 세상에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당연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4>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중등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 조사

(중등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후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6.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 담당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박사	실사진행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조 사 문의처: 02-2017-18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Ⅰ.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 성별은? _____① 남자 _____② 여자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다른 지방의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포함(단,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는 제외).

1) (외)할아버지 2) (외)할머니 3) 아버지 4) 어머니
5) 형제 또는 자매 6) 기타 친척 7) 기타_____ 8) 없음

3.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_____남 _____녀 중 _____째 (예) 1 남 1 녀 중 첫 째)

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구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6.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구 (_____)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동/읍/면 으로 표기
※ 살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동/읍/면 으로 표기

8. 반에서의 학업성적(2009년 1학기)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세요.
※ **영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음'에** ○표 해 주세요.

성 적	매 우 못하는수준	못하는 수 준	중간	잘하는 수 준	매 우 잘하는수준	배우지 않 음
(1) 국 어	①	②	③	④	⑤	
(2) 영 어	①	②	③	④	⑤	ⓞ
(3) 수 학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영역	①	②	③	④	⑤	
(5) 과학영역	①	②	③	④	⑤	

9. 지금 집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장소)들이 얼마나 있나요?

9-1) 자동차

___① 없음 ___② 1대 ___③ 2대 ___④ 3대 이상

9-2) 자기방 (혼자사용)

___① 예 ___② 아니오

9-3) 책(잡지·신문·만화·교과서·참고서 등은 제외)

___① 0~10권 ___② 11~25권 ___③ 26~100권
___④ 101~200권 ___⑤ 201~500권 ___⑥ 501권 이상

10.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구분	거의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
(1)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5) 함께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6) 함께 저녁식사	①	②	③	④	⑤

11.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___① 매우 나쁘다 ___② 나쁘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좋다 ___⑤ 매우 좋다 ___⑥ 모르겠다

12. 학교 체육 수업시간 외에 30분 이상 지속하는 운동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요?

____① 거의 하지 않는다 ____② 일주일에 1~2회 ____③ 일주일에 3~4회
____④ 일주일에 5~6회 ____⑤ 매일

13. 매일 교과서나 참고서를 제외한 책을 읽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_____① 전혀 없다 _____② 30분 이내 _____③ 30분~1시간
_____④ 1시간~2시간 _____⑤ 2시간 이상

14. 지난 1년간 다음의 그룹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구분	아니오	예	응답 거부
(1) 스포츠 단체(농구팀, 테니스 클럽 등)	①	②	③
(2) 문화, 교육 또는 취미단체 (연극동아리, 독서클럽, 게임 동호회 클럽 등)	①	②	③
(3) 봉사활동 동호회	①	②	③
(4) 지역모임, 지역공동체 모임	①	②	③
(5) 종교단체 활동	①	②	③
(6) 정치단체 활동	①	②	③
(7) 그 밖의 다른 그룹이나 단체, 모임	①	②	③

15. 지난 1년간 다음의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구분	아니오	예	응답 거부
(1) 기금 모금	①	②	③
(2)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으로 봉사	①	②	③
(3) 가르치기 또는 상담하기	①	②	③
(4) 자선활동을 위한 음식제공 봉사 또는 구호 물품 수집	①	②	③
(5) 그 밖의 다른 활동 (행사기획 및 조직, 사무실 근무, 단체들을 위한 정보제공 등)	①	②	③

Ⅱ. 다음은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6.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_____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_____② 불만족스럽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만족스럽다 _____⑤ 매우 만족스럽다

17.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학교생활 중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나요?

구분	없었다	한 두 번	서 너 번	다섯 번 이 상
(1) 휴학 경험	①	②	③	④
(2) 지각 경험	①	②	③	④
(3) 무단결석 경험	①	②	③	④
(4) (교내 · 외) 사회봉사 혹은 등교정지 등의 징계	①	②	③	④

19. 장래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창업포함)을 정해 놓았나요?

_____① 아직 정해 놓은 직업이 없다

_____②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_____③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Ⅲ. 다음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20.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본인의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말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관심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바라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상대방의 말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들으며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절대로 안된다	아주 약간만	어느 정도	가능한 많이	모르겠다
(1)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민족이 아닌 외국인	①	②	③	④	⑤
(3)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22. 다음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22-1)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나쁜 영향을 미친다	0	1	2	3	4	5	6	7	8	9	10	좋은 영향을 미친다	모르겠다 □

22-2)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문화 수준을 떨어뜨린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화를 풍성하게 만든다	모르겠다 □

22-3)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살기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더 살기 힘들게 만든다	0	1	2	3	4	5	6	7	8	9	10	더 살기 좋게 만든다	모르겠다 □

23.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사람들은 정당하게 나를 대우한다	모르겠다 □

25.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_____① 전혀 관심없다 _____② 거의 관심없다 _____③ 약간 관심있다
_____④ 매우 관심있다 _____⑤ 모르겠다

26. 아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믿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믿는다			모르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1) 국회 (국회의원)												
(2) 사법기관 (검사, 판사 등)												
(3) 경찰서 (경찰)												
(4) 정당 (정치인, 당원 등)												
(5) 국제연합 (UN)												

27.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구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음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진술들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각각의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표시해 주세요(각 질문에는 '참' 혹은 '거짓'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거짓	참
(1)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②
(2)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①	②
(3)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①	②
(4)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①	②

29. 민주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_____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_____② 정치적 부패를 막기 위해
_____③ 사람들이 시위하거나 데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
_____④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30.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_____①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_____② 정당들이 항상 서로를 비판할 때
_____③ 사람들이 세금을 아주 많이 내야만 할 때
_____④ 모든 시민들이 어떤 직업에 대한 권리를 가질수 없을 때

31.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매 우 불만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매 우 만족한다	모르겠다 □

32.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매 우 불행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매 우 행복하다	모르겠다 □

33. 친척과 얼마나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나요?

_____① 전혀 만나지 않는다 _____② 한달에 한번이 안된다
_____③ 한달에 한번 정도 _____④ 한달에 여러 번
_____⑤ 일주일에 한번 정도 _____⑥ 일주일에 여러 번
_____⑦ 매일 _____⑧ 모르겠다

34. 개인적인 비밀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나요?

_____① 없다 _____② 있다

35. 같은 나이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나요?

_____① 훨씬 적게 참여한다 _____② 적게 참여하는 편이다
_____③ 비슷하게 참여한다 _____④ 많이 참여한다
_____⑤ 매우 많이 참여한다 _____⑥ 모르겠다

36.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최근에 철수는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남의 집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석방된 후 철수는 영희라는 사람의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영희는 "철수가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36-1)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①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_____② 철수가 옆집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_____③ 만약 주변 사람들이 철수를 잘 대우해 준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_____④ 철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영희에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36-2)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_____①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_____②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_____③ 영희는 자신과 철수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_____④ 영희는 자신과 철수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7.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어느 날 한 노인이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교통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노인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경찰의 친한 친구 부모님이었다. 그 경찰은 다음의 두 가지 선택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37-1)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적발해서 **벌금을 매긴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3	-2	-1	0	+1	+2	+3	
사적이다								공적이다
나쁘다								좋다
비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몰인정하다								인정있다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너그럽지 않다								너그럽다
무원칙적이다								원칙적이다

37-2)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u>모른 척 눈감아 준다면</u>**'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

	-3	-2	-1	0	+1	+2	+3	
사적이다								공적이다
나쁘다								좋다
비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몰인정하다								인정있다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너그럽지 않다								너그럽다
무원칙적이다								원칙적이다

Ⅳ.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검색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38. 평소 다음의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나요?

구분	전 혀 사용안함	한 달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하루에 1회 이상
(1) 한글프로그램(흔글 등)을 이용한 문서 작성 및 편집	①	②	③	④
(2) 엑셀 등을 이용한 계산표 작성	①	②	③	④
(3)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을 이용한 그림자료 및 발표용 자료의 작성	①	②	③	④
(4)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 만들기	①	②	③	④
(5) 나의 일정 및 스케줄 관리하기	①	②	③	④
(6) CD나 DVD를 시청하거나 정보 얻기	①	②	③	④
(7) 컴퓨터 게임하기(인터넷 게임은 제외)	①	②	③	④

39. 평소 다음의 목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나요?

구분	전 혀 사용안함	한 달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하루에 1회 이상
(1) 친구, 선생님 등과 전자우편(이메일) 주고 받기	①	②	③	④
(2) 채팅, 메신저, 게시판 및 댓글 작성, 또는 온라인 토론에 참여(학급게시판 참여 포함)	①	②	③	④
(3)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사거나 관련정보 검색	①	②	③	④
(4) 인터넷 학습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	①	②	③	④
(5) 음악(노래) 듣기 또는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듣기 포함)	①	②	③	④
(6) 인터넷 게임(게임 관련 자료 다운로드 포함)	①	②	③	④
(7) 영화, 동영상 보기 또는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한 TV 시청 포함)	①	②	③	④
(8) 신문, 잡지, 전자책(e-book) 읽기 또는 다운로드	①	②	③	④
(9) 숙제 및 학교 수업을 위한 인터넷 정보 검색	①	②	③	④
(10)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검색(학습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정보 검색은 제외)	①	②	③	④
(11) 동호회활동(카페 · 커뮤니티 포함)	①	②	③	④
(12)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운영	①	②	③	④
(13)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또는 업그레이드	①	②	③	④

40.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로 **<u>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u>**은 무엇인가요?

_____① 날씨 - 기상청 사이트
_____② 학습자료 - 에듀넷 사이트
_____③ IT 정보 - 전자신문 사이트
_____④ 지역소식 - 여행사 사이트
_____⑤ 연예소식 - 포털 사이트

41. 영수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폭력의 문제점 및 영향'에 관한 신문기사를 모으는 과제를 준비하고자 할 때, 검색 사이트에서 어떠한 키워드(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 **<u>가장</u>**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_____① 텔레비전, 폭력, 문제
_____② 방영, 폭력, 영향
_____③ 텔레비전, 방영, 영향
_____④ 폭력의 문제점
_____⑤ 텔레비전의 영향

42. 영희는 다음 달에 가족과 함께 경주를 여행하고자 합니다. 경주에 어떠한 문화재가 있는지 찾고자 할 때, 검색 사이트에서 어떠한 키워드(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_____① 경주 or 문화재
_____② 경주 not 문화재
_____③ 경주 nor 문화재
_____④ 경주 and 문화재
_____⑤ 경주 near 문화재

43. 철수는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서핑을 하다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웹사이트를 다음에 다시 활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_____① 그때마다 검색하여 해결한다.
_____② 즐겨찾기에 추가 또는 폴더를 만들어 북마크 한다.
_____③ 따로 기록하여 둔다.
_____④ 웹사이트의 주소를 기억해 둔다.
_____⑤ 따로 파일을 만들어 저장한다.

44. 형석이는 얼마전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동호회 게시판에 음란한 자료를 올려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_____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비밀번호는 자주 바꾸도록 한다.
_____② 자신의 비밀번호를 남에게 쉽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_____③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만들 때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_____④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는 함부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다.
_____⑤ 여러 사이트에 가입한 아이디나 비밀번호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모두 같은 비밀번호로 통일한다.

45.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컴퓨터(또는 인터넷)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컴퓨터와 인터넷은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 컴퓨터와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5)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학습능력이나 재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6) 컴퓨터와 인터넷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7) 컴퓨터와 인터넷은 나의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Ⅴ.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46.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1) 노인인구	____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2) 출산율	____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3) 평균수명	____ 길어지고 있다	____ 짧아지고 있다	____ 모르겠다
4) 학생수	____ 늘어나고 있다	____ 줄어들고 있다	____ 모르겠다
5) 결혼연령	____ 늦어지고 있다	____ 빨라지고 있다	____ 모르겠다
6) 여성의 경제활동	____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7) 다문화가정	____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47.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 [?] ➡ 내가 내는 세금이 늘어난다

____① 가정의 지출이 줄어든다
____② 학생들이 줄어든다
____③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____④ 아동인구가 줄어든다

48. 다음은 노래 음반을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각의 방법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음반을 구매하는 방법	장점	단점
음반가게나 온라인 매장에서 정품을 구입한다	품질이 보장된다 문제가 있으면 보상 받는다	비용이 많이 든다 원하는 노래만 구입하기 어렵다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	비용이 절감 된다 빨리 구매할 수 있다	(1)

48-1) (1)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모두** √표 해 주세요.

____① 음질이 나쁘거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다
____② 양심에 걸린다
____③ 좋은 음악을 만드는 가수들이 줄어든다
____④ 비용이 많이 든다
____⑤ 얻는데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____⑥ 음반 시장이 축소된다
____⑦ 고소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8-2)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음반을 사지 않고 불법다운로드를 한다 ➡ [?] ➡ 좋은 노래가 줄어든다

____① 음반 판매량이 줄어든다 ____② 파일 공유 업자가 늘어난다
____③ 불법복제 방지 기술이 발전한다 ____④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커진다

VI.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49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비교한 후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앞날을 내다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행동을 할 때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결과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뜻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0.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어느 정도 듣는지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매 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친구들로부터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51. 아래에 제시된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지금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원(정보)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모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혼자 힘으로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인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해보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2.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 세상에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당연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 · 안선영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 · 장원섭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 · 안선영 · 이계오 · 이미리 · 김성식 · 김명희 · 박일혁

09-R02 아동 · 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 · 김영애 · 조선하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 · 김성언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09-R04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 · 송병국 · 김혁진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박병식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최은실

09-R07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 · 조손가정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혜연 · 이용교 · 이향란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 · 방은령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II / 이종원 · 김영인

09-R10 아동 · 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 · 박형란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 · 설수영 · 원형중 · 설민신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청소년 진로 · 직업 지표 / 최인재 · 김봉환 · 황매향 · 허은영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아동 · 청소년 활동 · 문화 지표 / 임지연 · 김정주 · 김신영 · 김민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 · 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 · 김희진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 · 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 · 천정웅 · 신승배 · 이중섭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 · 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 · 조혜영 · 이수정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 · 윤철경 · 임재훈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 · 문경숙 · 송민경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동범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 · 김동일 · 김성희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 · 강병로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 · 윤옥경 · 조남억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 · 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 · 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흥식 · 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 · 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 정대영 · 황순영 · 김영미 · 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 박현옥 · 이경숙 · 김민 (자체번호 09-R18-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 · 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 김원경 · 고정욱 · 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 김기헌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김나라 · 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김낭항 (자체번호 09-R19-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헌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헌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 · 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 · 김영지 · 김희진 · 정익중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 · 이종원 · 천정웅 · 이용교 · 길은배 · 전명기 · 정효진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 · 서정아 · 길은배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철웅 · 방은령 · 송민경 · 송병국 · 오승근 · 유진이 · 조아미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헌 · 홍세희 · 설현수 · 유성렬 · 정익중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 · 정익중 · 박현선 · 천창암 · 박현동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 · 김지경 · 성윤숙

09-R26 한 · 중 · 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 · 임희진 · 김현철 (2010년 발간)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 · 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 · 진미정 (2010년 발간)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 · 김성희 · 박영숙 · 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 · 임희진 · 안선영 · 김지연 · 강현철 · 김광혁 · 김기남 · 박창남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 · 성윤숙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조혜영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 · 이종원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 · 박진규 · 박정배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 · 김미숙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헌 · 안선영 · 장상수 · 김미란 · 최동선

09-R38 통합 아동 · 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 · 박영균 · 성윤숙 · 문경숙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 · 박수선

09-R40 2009 아동 · 청소년백서 / 김기헌 · 김지경 · 임희진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 · 이기봉 · 최인재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 · 전명기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 ·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 김형주 (2010년 발간)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이혜연 · 서정아 · 홍연균 · 유진이 · 김영호 · 김광남 · 황성수(2010년 발간)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 · 양계민 (2010년 발간)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09-s04 아동 · 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샵 (4/11)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09-s06 독일의 장애아동 · 청소년 지원 정책 (5/25)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 · 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09-s19 아동 · 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09-s20 한 · 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09-s21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 · 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9-32-03
연구보고 09-R19-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Ⅱ: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인 쇄 2009년 12월 22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예림피앤디 전화 (02)2263-0483 대표 한필연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820-5(93330)
ISBN 978-89-7816-817-5(93330)(세트)